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해행기海行記』 국역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유 종 수

# 『해행기海行記』 국역

Korean Translation of Haehaengi(海行記)

2023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유 종 수

# 『해행기海行記』 국역

지도교수 한 예 원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4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유 종 수

## 유종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종훈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예원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엄태식	(인)

2023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범례-

1. 『海行記』는 유일 필사본으로 일본 동양문고(청구기호Ⅶ-2-217)에 소장되어 있는데,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ostma.korea.ac.kr/>)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 자료를 저본으로 삼았다.
2. 본고 저본에 나타나는 한자의 同字는 현재 사용하는 한자로 통일하고, 俗子와 訛字는 本字로 통일하였다.
3. 본고 저본의 쌍행으로 된 소주의 처음과 끝은 ‘【 】’로 구별하여 그 안쪽에 번역문을 신되, 필요에 경우에는 본문으로 처리하여 번역하였다. 『海行記』 표점에서도 ‘【 】’ 안에 쌍행 소주를 넣어 표시하였다.
4. 한자어의 표기는 본문과 각주에서 모두 한글 다음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5. 散文의 번역은 日記의 하루 단위로 국역문을 먼저 실고 원문인 한자는 그 뒤에 두었다. 中間에 나오는 韻文은 번역문 내에도 국역문의 오른쪽에 한자 원문을 드러내었다.
6. 본고의 저본에 日記 날짜가 바뀌는 경우에는 2줄을 띄우고 번역문을 시작하며, 저본의 같은 날짜 안에 별행이 있는 경우에는 1줄을 띄우고 번역하였다. 원문의 표점도 이와 같다.
7. 註釋은 脚註로 처리하여 원문의 典故를 밝히되, 필요한 경우 문맥에서의 의미도 설명하였다.
8. 본고의 저본에서 對馬島主 및 對馬島人의 성씨로 표기한 ‘平’은, 번역문에서는 그대로 따라 ‘平氏’라고 하였으나 해제와 주석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宗氏’로 표기하였다.
9. 번역문에서는 일본인의 인명을 국어 발음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해제와 주석에서는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등을 참고하여 일본어 발음으로 우선적으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고, 일본어 발음을 알 수 없는 인명은 번역문에서와 같이 표기하였다.
10. 일본어 지명은 원칙적으로 국어 발음에 한자를 병기한다. 해제나 각주에 나오는 일본어 지명 가운데 한국에서도 익숙하게 통용되는 것은 일본어 발음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 목 차

### 1부 『海行記』 解題

I. 서론 .....	11
II. 본론 .....	12
1. 서지사항 및 기술 체제 .....	12
2. 저자 金弘祖와 그의 가계 .....	14
3. 갑인년 問慰行의 구체적 정보 .....	16
4. 『해행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 .....	18
4.1. 圖書還收와 慰問禮式 .....	18
4.2.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일가 및 기타 인물과의 교류 .....	22
4.3. 노오[能] 공연 관람 .....	25
4.4. 대마도에서의 醫療 활동 .....	27
III. 결론 .....	28

### 2부 『해행기』 번역

「김임중 해행기서」 .....	35
「해행기서」 .....	38
계축년(1733, 영조9) 9월 .....	42
11월 .....	42
계축년 12월 .....	52
갑인년(1734, 영조10), 정월 작은달 .....	54
2월 큰달 .....	79
3월 작은달 .....	105
4월 큰달 .....	123
5월 작은달 .....	136
「해행특지」 .....	138

### 3부 『해행기』 표점

「金任重海行記序」 .....	139
「海行記序」 .....	140
癸丑九月 .....	141



癸丑十二月 .....	146
甲寅正月小初 .....	147
三月小初 .....	172
四月大 .....	181
五月小 .....	188
「海行錄識」 .....	189
※ 참고문헌 .....	190

# ABSTRACT

## Korean Translation of Haehaenggi(海行記)

Yoo Jong-Soo

Advisor : Prof. Han Ye-Won, Ph.D.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writing of the diary, Haehaenggi is a work that records when a person named Kim Hong-jo(金弘祖, 1698~1748) traveled back and forth to Tsushima Island in 1734, accompanied by his uncle Kim Hyun-mun(金顯門, 1675~1738), who was in charge of Munwihaeng(問慰行) in his capacity as a companion. Currently, this book is known as the only work that records the entire process of Moonwihaeng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majority of various records and studies on Tongshinsa(通信使) in the history of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Moonwihaeng is a diplomatic procedure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Sō Michihiro(宗方熙, 1696~1760), the governor of Daemado Island, and his nephew, Sō Yoshiyuki(宗義如, 1716~1752), took over his position.

Kim Hong-jo's diary has several main contents that stand out. The various rituals were well described in carrying out the work of celebrating the succession between the former island administrator and the current island administrator. In addition, it is well recorded in the diary about recovering three doseo seal(圖書) following succession. There seems to be also a lot of contents that get along well with Hoshu Amemori (雨森芳洲, 1668~1755), a Japanese scholar and diplomat at the time, and as a Korean in the 18th century, it is noteworthy that he first watched the traditional Japanese performance(No, 能), and left a detailed record. It is also interesting to see that he has treated many Tsushima Island people with his medical knowledge.

While he provided a lot of information to the reader based on facts when recording his experiences on Tsushima Island in Japan, his status and personal preconceptions expose some limitations in the delivery of information.

### 【Key words】

Haehaenggi, Munwihaeng, Kim Hyun-mun, Kim Hong-jo, Sō Michihiro, Sō Yoshiyuki, Doseo seal, Amemori Hoshu.



## 『해행기(海行記)』 해제(解題)

### I. 서론

『해행기』는 1734년(영조10) 김홍조(金弘祖, 1698~1748)라는 인물이 반인(伴人) 자격으로 문위행(問慰行)의 정관(正官)인 숙부 김현문(金顯門, 1675~1738)을 수행하며 대마도(對馬島)를 오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일기류(日記類)의 글이다. 현재 이 책은 한일 교류사 중 통신사(通信使)에 관한 각종 기록과 연구가 대다수인 실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위행의 전 과정이 기록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문위행은 조선 중기 이후에 생긴 제도로, 『속대전(續大典)』에 처음 명문으로 외교에 관한 의례로 들어가 있다. 즉 대마도주가 에도(江戶)에서 돌아오면 문위 역관(問慰譯官)을 차송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sup>2)</sup> 이는 당상 역관(堂上譯官)을 파견하는 것으로 통신사의 사신(使臣) 일행보다 등급이 낮지만, 그 오고가는 빈도나 조일(朝日) 간의 관계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외교적 역할로 보면 그 중요도는 통신사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문위행의 기원을 따져 본다면 관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어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다. 1636년(인조14)에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1604~1657)가, 부관이던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와의 오랜 불화 끝에 그에게 받은 무함에서 벗어나 결국 그를 축출하고, 그 뒤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와 그 상황을 조선 측에 설명하면서 사신을 보내 하례(賀禮)해 줄 것을 요청하자, 조선에서 홍희남(洪喜男) 등을 파견함으로써 이를 수용하였다. 이 일을 시작으로 이후 대마도 측에서 경조(慶弔)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례를 요구하여 마침내 상례화(常例化)된 것이다.<sup>3)</sup>

문위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통문관지(通文館志)』에 보이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통문관지』의 「교린(交隣)」 부분을 보완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실려 있다. 본고의 번역 대상인 『해행기』의 배경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부분이 『증정교린지』 권6 「문위각년례(問慰各年禮)」에 실려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면서 김홍조가 수행한 1734년 문위행의 결과물인 『해행기』라는 작품과 그 배경에 대한 서술을 시작해 보

1) 정우봉, 「1734년 問慰使行錄 『海行記』 연구」,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236쪽.

2) “對馬島主, 還自江戶, 則差送問慰譯官.”(『大典通編 禮典 待使客』)

3) “十四年丙子, 義成自江戶還島, 具報調興坐黜之狀, 仍請賀价, 欲誇耀於島衆, 特遣堂上洪喜男堂下姜渭濱以慰之. 自是島主還自江戶, 或因慶弔差倭來請, 則輒許, 仍爲恒例.”(『增正交隣志 卷6 問慰行』)

려 한다. 이하에서는 ‘1734년 문위행’은 되도록 ‘갑인년(甲寅年) 문위행’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영조 9년 계축(1733년) 대마도주 평방희(平方熙 소 미치히로(宗方熙))가 물러나 쉬고 그의 조카 의여(義如 소 요시유키(宗義如))가 그 자리를 이었으므로 당상 김현문과 당하 박춘서를 보내어 치하하고 아울러 문위하도록 하였다.<sup>4)</sup>

## II. 본론

### 1. 서지사항 및 기술 체제

『해행기』는 유일 필사본으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sup>5)</sup> 구체적인 서지사항에 대해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제(表題)는 ‘海行記’이고, 표지(表紙)의 묵서(墨書)는 ‘甲寅’이라고 적혀 있다. 간종(刊種)은 필사본(筆寫本)이고 장수(張數)는 1책 76장이며, 행자(行字)는 10행 22자이며 규격은 33.5×21.7(cm)이다. 서문(序文)으로는 이덕집(李德集)의 「김임중해행기서(金任重海行記序)」와 오상문(吳尙文)의 「해행기서(海行記序)」가 있고, 후지(後識)로는 저리병부(樗里病夫)라고 칭한 자의 「해행록지(海行錄識)」가 있다. 소장인(所藏印)은, 이덕집 서문 및 본문 첫 장과 후지에 총 14방(方)이 있는데, 이덕집 서문 및 본문 첫 장에는 ‘幣原圖書’, ‘富貴有爭難下手林泉無禁可安身’, ‘北遊燕塞長城下南涉峯島漆山鄉’, ‘金氏家藏’, ‘晚悟’, ‘岑城’, ‘金弘祖印’, ‘任重’ 및 東洋文庫 인장 2방이 찍혀 있고, 후지(後識)에는 ‘靜養齋藏’, ‘聖世閒民’, ‘晚悟癡氓’, ‘金氏家藏’ 4방이 찍혀 있다.<sup>6)</sup>

다음은 『해행기』의 기술 체제이다. 표제의 다음 쪽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본문이라

4) “九年癸丑，島主方熙退休，姪義如承襲，遣堂上金顯門·堂下朴春瑞，致賀兼致慰。”(『增正交隣志 卷6 問慰各年禮』) 여기서 영조 9년은 신구(新舊) 대마도주가 승습(承襲)한 해라고 할 것이며, 김홍조 일행이 실제로 도해(渡海)한 때는 그 이듬해이다.

5) 원문 이미지와 기본 서지사항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ostma.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기호VII-2-217)

6) 몇몇 인장에 대한 설명을 붙여 보면 다음과 같다. ‘幣原圖書’는 일본인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 1870-1953)의 기증 도서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富貴有爭難下手林泉無禁可安身(부귀는 다툼이 있는 것이니 추구하기가 어렵지만, 자연은 금함이 없어 몸을 편히 할 만하다.)’는 徐敬德의 시에서 취한 것이다. ‘北遊燕塞長城下南涉峯島漆山鄉(북으로 연경 변방과 장성의 아래를 노닐었고, 남으로 봉도와 칠산의 고장을 건넜다네.)’는 자신이 지은 글에서 취한 듯하고, ‘晚悟’는 김홍조의 호로 보인다. ‘岑城’은 저자의 본관 牛峯의 古號이다.

고 할 수 있는 일기(日記) 외의 부분으로 시작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두 개의 서문으로, 이덕집(李德集)이 쓴 「김임중해행기서(金任重海行記序)」와 오상문(吳尙文)의 「해행기서(海行記序)」인데, 오상문의 서문은 초서(草書)로 쓰였다. 이덕집과 오상문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그 다음으로 신도주(新島主)와 구도주(舊島主)를 수신인으로 하는 해조 서계(該曹書契)와 별폭(別幅) 2조(組)가 나오고, 이어 문위행의 명단이 6장에 걸쳐 나오는데 단순한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직책과 거주지, 일행의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정보,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하여 문위행을 접대한 일본인 명단도 부기해 놓았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기 기록이 이어진다. 날짜, 간지, 날씨가 앞에 오고 이어서 그날의 업무 및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행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안에는 신도주와 구도주가 보낸 각각의 회답서계와 별폭, 일공(日供) 및 오일공(五日供) 물품에 관한 단자(單子) 등 공적인 기록 또한 포함되어 있고, 당일에 있었던 일이 아닌 비망기(備忘記) 형식의 글도 있다. 일기가 끝난 뒤 가장 마지막은 후지(後識)가 있는데, 지은이인 ‘저리병부(樗里病夫)’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책자로 이루어진 시점은, 1746년(영조22)에 지은 발문과 대마도를 다녀온 해가 1734년(영조10)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늦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온전하고 글씨도 정갈하게 썼는데, 이체자(異體字)가 상당히 보이며, 일행이 거쳐 간 대마도의 포구(浦口)나 일본식 한자어에는 한글음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본문의 큰 글씨 외에, 다수의 쌍행(雙行)으로 적은 부분은 주석에 해당하지만 내용상 본문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도 다수 있고, 두주 형식의 주석 또한 하나가 보인다.<sup>7)</sup> 필사 과정에서 글자가 누락된 곳에 푸른색의 작은 글씨로 첨입(添入)한 것이 다수 있으며, 이런 방식의 개선이 곤란한 곳은 따로 수정한 내용을 날카롭게 올려 그 위에 붙이기도 하였다.

『해행기』에는 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부기할 점이 있다. 즉 『해행기』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 형식의 글이 주를 이루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부록(附錄)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날의 기록 다음에 별행으로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각종 서계와 별폭, 일공(日供) 및 오일공(五日供)의 물품과 수량, 일행의 명단, 일정한 기간이나 전체 기간의 여정과 거리를 정리한 부분 등은 개인적인 신변잡기라기보다는 공적인 기록이다.

7) 『海行記』, 갑인년 2월 12일.

또한 부산포로 무사히 돌아온 날인 4월 14일의 일기 다음에, 별행으로 10개의 단락을 나누어 대마도의 풍속 등을 기술한 것은 부록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에서 한 가지 특색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혼인제도, 장례(葬禮), 신분에 따른 형벌제도, 봉행(奉行)·금도(禁徒) 등의 관직 설명, 부역(賦役), 대마도 사람의 기질과 옷차림, 가마꾼 이야기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대마도인의 기질과 노출이 심한 남녀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관점에서 약간의 포폄을 가하고 있다.

## 2. 저자 金弘祖와 그의 가계

『해행기』의 저자를 김홍조(金弘祖, 1698~1748)라고 확정할 수 있는 단서는, ① 이덕집의 서문에 광천(廣川) 김지남(金指南)의 손자라고 한 점, ② 일기 내에 여러 차례 문위역관(問慰譯官)의 조카라고 칭하였는데,<sup>8)</sup> 당시 문위역관이 김현문(金顯門, 1675~1738)인 점, ③ 일행 원액(一行元額)의 반인(伴人) 명단에 ‘김홍조’가 들어 있는 점, ④ 지면에 찍힌 인장에 ‘김홍조인(金弘祖印)’이 있는 점 등인데, 이를 가지고 우봉 김씨(牛峯金氏) 계동공파(繼全公派)의 가계에서 찾아보면 김홍조가 저자임을 무리 없이 확정할 수 있다.

김홍조는 본관은 우봉(牛峯), 자가 임중(任重) 또는 자중(子重)이며, 초명은 홍득(弘得)이다. 그는 사역원 봉사를 역임한 김순문(金舜門)의 첫째 아들이었고, 우봉 김씨 역관(譯官)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지남(金指南)의 손자이다. 그는 1719년(숙종45) 증광시 역과에서 한학(漢學) 전공으로 합격하였다.<sup>9)</sup> 1734년 문위행에 반인 상관(伴人上官)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대마도를 다녀왔고, 문위행 이후의 그에 관한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그가 숙부인 문위 정관(問慰正官) 김현문의 반인 자격으로 대마도에 갔을 때 수행한 일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정관인 김현문을 배종하거나, 편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때로는 일본 측의 요구에 응해 자기 아래 사람들을 책임지고 인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행 내에서 예단과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아래에 부산포로 무사히 돌아온 날 감개어린 어조로 인생을 슬회한 부분을 덧붙여 저자의 대한 정보를 보충해 본다.

8) “余雖以伴人上官來此，而乃是問慰正使之親姪，不可以立庭矣。”(『海行記』 갑인년 1월 12일), “朝廷以家叔父，爲致賀，兼問慰正官。”(『海行記』, 갑인년 9월 21일)

9) 『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10) 유채연, 「『海行記』를 통해서 본 1734년 문위행」, 『韓日關係史研究』 제58집, 302쪽.

나는 수년 동안 부형(父兄)을 배종(陪從)하느라 북으로 연대(燕臺)의 아래에 노닐었고 남으로 봉도(蓬島)의 위를 건너다녔다. 남북으로 수천 리를 다녀 강산과 문물을 역력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킬 듯하니, 또한 장하다고 할 만하다.<sup>11)</sup>

우봉 김씨 집안은 17세기 초에 역과에 진출하여 이후 많은 역관을 배출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이는 김지남(金指南, 1654~1718)이다. 그는 18세에 역과에 합격하여, 1682년(숙종8)에 역관으로 일본 통신사의 일행으로 에도를 다녀와서 『동사일록(東槎日錄)』을 남겼다. 1710년(숙종36)에는 연행 사절로 북경에도 다녀왔으며, 2년 뒤에는 조선과 청(淸)의 국경 문제를 정하는 일에도 참가하여 『북정록(北征錄)』이라는 관련 기록을 남겼다. 또한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가는 기회에 화약 제조법을 배워 와 『신전차초방(新傳煮硝方)』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큰 업적은 1720년(숙종46)에 그의 첫째 아들 김경문(金慶門)과 함께 『통문관지(通文館志)』를 편찬한 일이다. 이것은 사역원(司譯院)의 연혁, 관제, 고사를 정리하고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에 관한 외교 자료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관서지(官署志)이다. 이러한 그의 사업은 그의 증손인 김건서(金健瑞, 1743~1807)<sup>12)</sup>가 『통문관지』의 「교린(交隣)」 부분을 증보하여 편찬한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의해 계승되었다.

『해행기』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인물로 김현문(金顯門, 1675~1738, 자(字)는 양보(揚甫))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갑인년 문위행의 정관으로 『해행기』를 쓴 김홍조의 숙부이자, 김지남의 둘째 아들이다. 1702년(숙종28) 28세 때에 왜학(倭學) 전공으로 역과에 합격했는데,<sup>13)</sup> 전공인 왜학을 살려 평생 부산포에 거처를 두고 왜관(倭館)과 대마도, 일본 관련 외교 업무를 맡았다. 1709년에는 부산 왜관의 별차(別差)를 지냈고, 1711(숙종37)년에는 통신사행의 압물통사(押物通事)로 활약하였으며, 1715년에는 왜관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감동관(監董官)으로 파견되어 활동했다. 이 가운데 특기할 것은 압물통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동사록(東槎錄)』을 남겨 전한 것인데,<sup>14)</sup> 이 작품은

11) “余於數年之間，陪從父兄之後，北遊燕臺之下，南涉蓬島之上，南北數千里，江山民物，歷歷如在指點中，亦可謂壯也。”(『海行記』, 갑인년 4월 7일) 여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김홍조는 이미 北京에도 다녀온 듯하다.

12) 김건서는 김지남의 삼남 金纘門(1690~1714)의 아들인 金弘說(1708~1750)의 삼남이다.

13) 『譯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8]

14) 『東槎錄』은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일본 교토대학에 소장되어 있는데, 백옥경에 의해 번역된 바 있다. (백옥경 역, 『동사록』, 도서출판 해안, 2007)



부친의 『동사일록』을 잇고 조카가 지은 『해행기(海行記)』의 선구가 되는 것으로, 우봉 김씨 역관 가문의 치열한 기록 정신과 높은 전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후 1731년 왜학 훈상(倭學訓上)을 지내고, 1734년에 문위행의 정관으로 대마도를 다녀왔다. 그 뒤 1738년(영조14)에 재차 문위행의 당상 역관에 임명되어 동래(東萊)로 내려가는 도중에 사망하였다.<sup>15)</sup>

### 3. 갑인년 문위행(問慰行)의 구체적 정보

『변례집요(變例集要)』 제1권 「별차왜(別差倭)」에는 김홍조가 참여한 문위행의 공식적인 성격과 목적이 자세히 적혀 있다. 즉 1733년(영조9) 1월부터 10월 사이에 ‘신도주가 승습했다는 경사를 알리는 봉행대차왜[新島主承襲告慶奉行大差倭]’, ‘새 도주가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환도고지차왜(還島告知差倭)’, ‘새 도주가 승습한 후에 도서(圖書)<sup>16)</sup>를 바꾸어 주기를 청하는 대차왜[圖書改請大差倭]’를 보낸 데 대해, 조선에서는 신구 대마도주의 승습을 축하하고 이에 따른 이전에 발급한 도서의 환수를 위해 문위행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행기』에서는 사행의 배경과 문위행이 정해지는 경과를 당해 문위행이 있기 전해인 1733년 9월 21일 일기에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대마주 태수 평방희(平方熙)가 물러나고 그 형의 아들 의여(義如)가 그 지위를 이어받자, 호행재판(護行裁判)을 내보내어 문위관(問慰官)을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 가숙(家叔)을 치하(致賀)하고 아울러 문위하는 정관(正官)으로 삼았고, 박정 화중(朴正和仲) 박춘서(朴春瑞)를 부관(副官)으로 삼았다. 이에 숙부께서 부산 훈도(釜山訓導)로서 상경하여 복명한 뒤에 다시 숙배하고 내려오셨다.<sup>17)</sup>

문위행의 인원은 문위 정관(問慰正官)인 김현문과 부관 박춘서(朴春瑞)를 포함하여 8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인년 11월 24일 일기 아래 ‘일행 원액(一行元額)’이라는

15) 백옥경 역, 『동사록』, 도서출판 해안, 2007, 15~16

16) 여기서의 圖書는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書契에 찍는 인장으로,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해제의 『해행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 부분에 나온다.

17) “癸丑九月廿一日, 對馬州太守平方熙退休, 以其兄之子義如, 承襲其位, 而出送護行裁判來請問慰官, 朝廷以家叔父爲致賀兼問慰正官, 以朴正和仲爲副官. 叔父以釜山訓導, 上京復命後, 更爲肅拜下來. 十二月初七日到東萊.”(『海行記』, 계축년 9월 21일)

제목 아래 직책, 성명, 거주지 등의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고 있다. 김홍조는 특별한 설명이나 표식 없이 ‘반인(伴人)’ 명단에 체아직(遞兒職)인 부사맹(副司猛)의 직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명단을 다 적은 뒤에는 다음의 말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 84원의 명단 내에 왜인이 제공한 인원은 65인이다. 상상관(上上官)은 2원이고, 상관(上官)은 25원이며, 중관(中官)은 25인이고, 하관(下官)은 13명인데, 그 나머지 중·하관(中下官) 19인은 급료가 없기 때문에 상관의 일공(日供)에서 제출(除出)하여 규례에 따라 분급하였다.<sup>18)</sup>

조선 측 명단 다음에는 일본인의 명단도 있는데, 왜관에 있다가 문위행 배로 대마도에 같이 간 자들과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한 뒤에 문위행 일행을 접대한 자들의 명단을 구분하여 신고 있다.

문위행이 몇 척의 배로 왕복하였는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2척으로 다녀온 듯하다.<sup>19)</sup> 부산을 출발하여 대마도에 체류했다가 다시 부산포로 돌아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총 93일이었고, 배로 이동한 거리는 760리였다. 김홍조는 갑인년 4월 14일 일기의 끝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해 두고 있다.

갑인년(1734, 영조10) 정월 초10일에 배에 올라 순풍을 기다려, 12일에 좌수내포(佐須奈浦)에 도착하였고 15일에 서박포(西泊浦)에 도착하였으며, 16일에 너호내(瀬戶内)에 도착하였고 18일에 대마도 부중에 도착하였다. 3월 24일에 배를 타고 순풍을 기다려, 4월 1일에 풍포(豊浦)에 도착하였고 3일에 좌수내포에 다시 도착하였으며, 12일에 표류하다가 가덕진(加德鎭)에 정박하였고 13일에 장림포(長林

18) “以上八十四員名內, 倭人所供六十五人. 上上官二員, 上官二十五員, 中官二十五人, 下官十三名, 其餘中下官十九人, 無料, 故除出, 上官日供, 依式分給.”(『海行記』 갑인년 11월 24일) 上上官은 正使와 副使를 가리키는데, 같은 날 기록에 나머지 上官 이하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즉 伴人, 軍官, 書契吏, 首通詞, 都訓導, 都沙工은 상관이고, 그 나머지는 中官이며, 格軍은 하관이다.(“伴人·軍官·書契吏·首通詞·都訓導·都沙工爲上官, 其餘爲中官, 格軍爲下官.”)

19) 문위행에 당상역관 2명이 가는 경우를 ‘雙渡海’라고 하여 騎船 외에 卜船을 1척 더 마련한다고 하는데, 1734년 문위행은 副官으로 당하역관인 朴春瑞가 갔다. 『增正交隣志 卷6 問慰行』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계축년 11월 24일의 배를 점검한 일기에 粧船 1대를 점검한 내용에 의하면 정관, 부관, 선장의 숙소를 한 배에 두었고, 갑인년 1월 12일에는 대마도로 출항할 때에 裁判騎卜船과 함께 나갔다고 적고 있다. 재판기복선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나 裁判倭가 탄 배로, 예단이나 雜物 등을 주로 실은 배인 듯하다. 『해행기』에 ‘재판선’이라고 부른 곳도 보인다.(『海行記』, 갑인년 4월 7일)

浦) 앞바다에서 머물렀으며, 14일에 부산포로 돌아와 정박하였다. 전후로 소요된 시간은 모두 93일이고 물길은 도합 760리이다.<sup>20)</sup>

#### 4. 『해행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

##### 4.1. 도서 환수(圖書還收)와 문위 예식(慰問禮式)

갑인년 문위행은 신구(新舊) 대마도주의 승습(承襲)을 축하하고 에도(江戶)에 체재하다 환도(還島)한 신도주를 위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승습에 따른, 이전에 발급한 도서(圖書)를 환수하는 임무도 있었다. 여기서의 도서는 대마도주에게 입국(入國)이나 무역(貿易) 등 조선과의 외교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 주던 동인(銅印)인데, 10세 무렵의 대마도주의 아들에게 그 아명(兒名)으로 발급해 주었던 인장인 아명도서(兒名圖書)까지 아울러 말한다. 1734년 문위행에서는 3과(顆)를 환수했는데, 구구도주(舊舊島主) 소 요시노부(宗義誠, 1692~1730) 및 구도주 소 미치히로(宗方熙 1696~1759)의 도서와 평미일(平彌一 소 요시유키(宗義如, 1716~1752))의 아명도서<sup>21)</sup>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행기』의 기록이 갑인년 2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봉행 스키무라 주(杉村仲)와 여러 왜인 집사가 와서 신도주의 회답서계(回答書契)와 별폭 및 구구도주 평의성(平義誠), 구도주 평방희(平方熙), 평미일(平彌一)의 아명도서를 수량에 맞추어 봉납하였다.<sup>22)</sup>

또 지난가을에 사자를 보내어 요청한 새 인장을 주조해 보내 주셨는데, 감사히 수령하였습니다. 즉시 동무(東武 에도[江戶])에 아뢰고 이어서 전임 두 분 태수의 도서와 아명도서 총 3과를 다시 돌려 드립니다.<sup>23)</sup>

20) “甲寅正月初十日，乘船待風，十二日到佐須奈浦，十五日到西泊浦，十六日到瀬戶內，十八日到馬島府中，三月二十四日乘船待風，四月初一日到豊浦，初三日還到佐須奈浦，十二日漂泊加德鎮，十三日浮留長林浦前洋，十四日回泊釜山浦，首尾共九十三日，水路合七百六十里。”(『海行記』, 갑인년 4월 14일)

21) 平彌一은 신도주 平義如의 어릴 적 이름이다. 조선 측에서는 島主 자리를 이을 자에게 10세 무렵에 兒名圖書를 발급하는데, 지난해 平義如가 도주로 취임하여 새 도서를 주조해 지급했으므로 이에 아명도서를 환수한 것이다.

22) “奉行杉村仲，與諸執事倭，來呈新島主回答書契，并別幅及舊舊島主平義誠·舊島主平方熙·平彌一兒名圖書，照數捧納。”(『海行記』, 갑인년 2월 29일)

23) 신도주 平義如가 回答한 書契에 나오는 부분이다. “且去秋馳价所請新印，賜以鑄送，感領。即啓東武，仍今般先老二太守之圖書，及兒名圖書共三顆，還璧焉。”(『海行記』, 갑인년 2월 28일)

그 다음으로 신구도주(新舊島主)의 교체와 에도(江戶)로부터의 환도(還島)에 따른 위문 의식인데, 이는 문위행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가장 공식적인 것이다. 『증정교린지』에는 문위행의 공식 행사의 명칭과 예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즉 ①하선연(下船宴), ②별연(別宴), ③상선연(上船宴), ④서계다례(書契茶禮),<sup>25)</sup> ⑤이정암다례(以酹菴茶禮), ⑥만송원다례(萬松院茶禮)를 각각 한 차례 행하되, 서계다례와 하선연 및 상선연은 모두 대마도주의 집에서 베풀며 별연은 대마도주의 별당(別堂)에서 베풀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위의 공식 행사는 갑인년 문위행에서 규정대로 진행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선연과 신도주의 서계다례를 함께 치룬 것으로 보이는 점,<sup>26)</sup> 구도주의 서계다례를 구도주의 집이 협소한 관계로 신도주의 집에서 거행한 점,<sup>27)</sup> 상선연을 따로 거행하지 않고 건물(乾物)과 예물 단자(禮物單子)만을 수수한 점<sup>28)</sup>은 규정과는 다르지만 모두 예의 실질은 잘 지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도주의 서계다례와 상선연을 제외하고, 아래에서 공식적인 의례가 『해행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본다.

신도주의 서계다례(書契茶禮)는 1월 22일에 거행되었다. 아침에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행차하기를 청하여, 문위행 일행이 전배와 후배로 나누어 성대한 위의를 차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도주의 집으로 가는데, 도착해서 도주의 집에서 잠시 쉬며 구경하다가 곧바로 서계와 예단(禮單)을 전달하였다. 이 무렵 도주가 문위정관(問慰正官)을 처음 만나 예를 거행하고 이어 주연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나온다.<sup>29)</sup>

24) “下船宴. 別宴. 上船宴. 書契茶禮. 以酹菴茶禮. 萬松院茶禮.”(『增正交隣志』 卷6, 彼地宴享)

25) 서계다례는 조선 측에서 가지고 온 서계를 전달하는 의식인데, 新舊島主에게 각각의 서계를 가지고 왔으므로 두 번의 서계다례가 있게 된다.

26) “裁判與大廳奉行仁位貞之丞·吉田安右衛門來, 議下船茶禮·新島主茶禮, 以本月二十二日, 舊島主茶禮, 以二十五日停當.”(『海行記』 갑인년 1월 29일)

27) “舊島主所住處狹窄, 故行禮於此處云.”(『海行記』, 갑인년 1월 25일)

28) “3월 16일/裁判六郎左衛門, 島主禮房倭大石伴五, 持上船宴乾物單字來. 島主乘船, 故不得設行.”(『海行記』, 갑인년 3월 16일)

29) “少歇後, 依例傳給書契·公私禮單, 與島主行振舞之禮, 而所食之物, 灑以金銀, 是其欲誇其奢麗之意, 而實爲怪駭. 上官則同會於上上官歇廳之左, 隔壁大廳, 余與兩叔氏, 北向主壁坐, 而左壁則金令俊益爲首, 右壁則金令禹三爲首, 各依齒而坐. 中官坐於外廳, 下官坐於內中門外云矣. 一時進饌, 而上上官前則島主·軍官等進支, 其餘則執事者多率小童倭, 奔走應接, 輕快如飛, 而無一毫錯亂喧雜之舉, 法之尙嚴, 可知矣. 食畢進酒, 酒畢進糖果·乾烏魚·柑橘而撤矣.”(『海行記』, 갑인년 1월 22일)

그 다음 의례로 만송원다례(萬松院茶禮)는 2월 2일에 거행되었다. 만송원은 역대 대마도 도주와 그 가족들이 묻혀 있는 묘역으로 제2대 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1604~1657)가 죽은 뒤에 대마도 종벽산(鍾碧山)에 설치한 원당(願堂)이다. 만송원에 도착하여 배례(拜禮)를 거행한 뒤 이어 연향이 시작되기까지를 김홍조는 아래와 같이 적었다.

또 그 옆에 만송원(萬松院)이 있는데, 문에 ‘종벽산(鍾碧山)’ 세 글자를 내걸었다. 상상관(上上官)이 문밖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리자 왜인 승려들이 종을 치고 영접하였다. 대청봉행 두 사람이 앞을 인도하여 행보석(行步席)을 따라 원당의 앞에 이르니 봉행, 재판, 조두(組頭), 여러 왜인 집사 및 주지승과 장로승이 인접(引接)하여 당에 올랐다. 당에 녹색(綠板)에 금색 글자로 ‘만송정사(萬松精舍)’라고 쓴 편액이 있었고 밝은 등축이 빛나고 금색 벽이 휘황찬란하였다. 북쪽 벽 아래에 감실(龕室) 하나가 있었는데 영롱하게 조각하여 황금으로 칠을 하였다. 평의지(平義智 소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 이하의 위판을 나열해 세우고 분을 바른 앞면에는 글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직명과 호칭인 듯했지만 자획이 가늘어 상고할 수 없었다. 약간의 폐물(幣物)을 준 뒤에 등축을 끄고 발을 내리고는 옆의 대청으로 옮겨 앉아 진무례(進舞禮)를 거행하였다.<sup>30)</sup>

별연(別宴)은 『해행기』의 2월 12일에 있었던 ‘중연(中宴)’을 가리키는 듯하다.<sup>31)</sup> 문위정관 김현문이 신도주의 집에 도착하여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내청(內廳)으로 들어가 도주를 만나 읍례와 주례를 행한 뒤에 나오고, 이어 외청(外廳)으로 나와 그들이 준비한 일본의 전통 창극(唱劇)인 노오[能]를 관람하였다. 노오를 관람한 이후에는 연향(宴享)이 있었고 또 일본 측의 요청으로 문위행 측의 기예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아래는 문위정관이 대마도주의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내청으로 들어가 도주와 접견하는 예를 거행한 뒤 노오를 처음 구경하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다.

왜인 집사가 또 도주의 뜻으로 내청(內廳)에서 만나보기를 청하니, 전어관(傳語

30) “其傍有島主廟宇，又其傍有萬松院，而門懸鍾碧山三字。上上官至門外下轎，僧倭等撞鍾迎接，而大廳奉行兩人前導，從行步席進至院堂前，奉行·裁判·組頭·諸執事倭及主持長老僧引接陞堂。堂有綠板金字萬松精舍之扁額，而明燭煌煌，金碧閃爍。北壁下有一龕室，玲瓏彫琢，塗以黃金，列立義智以下位板，粉面而有記書，意其職名號，而字劃纖細，不可考矣。贈給若干幣物後，滅燭下簾，移坐傍廳，行進舞禮。”(『海行記』, 갑인년 2월 2일)

31) 유채연, 앞의 논문, 306쪽.

官 왜인 통역관) 등이 말하기를 “이는 더욱 존경하는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청봉행, 재판, 조두 등이 앞을 인도하여 내청에 이르러 도주와 만나보고 배례(盃禮)를 함께 행하였다. 예를 마치고 다시 외청에서 잡희(雜戲) 보기를 청하므로, 여러 왜인 집사와 함께 외청으로 나가 중앙에서 동향(東向)하여 앉자, 봉행 스기무라 주(杉村仲)·히라타 쇼겐(平田將監)·오우라 주자에몬(大浦忠左衛門) 등이 숙부를 모시고 앉고, 상관 이하는 차례대로 북향하여 좌정하였다. 그 뒤 채색 복장을 한 왜인 4인이 각각 악기를 꺼안고 푸른 비단 휘장을 헤치고 나와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음악 소리가 짧고 급한 것이 우리나라의 음악과 같지 않았다.<sup>32)</sup>

이정암다례(以酌菴茶禮)는 2월 18일에 행하였다. 이정암은 임란(壬亂) 후에 대마도와 조선을 오가며 외교관계 복원에 공로가 있는 승려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1537~1611)가 세운 절로 그의 사후에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한 기관이다. 이곳에서 거행하는 다례는 다른 다례와 달리, 대청(大廳) 북쪽 벽 탁자 위에 봉안된 ‘조선국왕전하만만세(朝鮮國王殿下萬萬歲)’라고 쓴 전비(殿牌)에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다시 편복으로 갈아입은 뒤 연향을 행한다. 『해행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숙부와 부관이 전패의 아래에서 사배례를 행하였고, 나와 족장 여경씨(汝卿氏), 숙부 사징(士徵), 함유덕(咸有德), 변정서(卞廷瑞)는 영외(楹外)에서 사배례를 행했으며, 비장들 또한 이에 따라 예를 행했는데 중관 이하는 영외의 밖에서 예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고 등축을 끄고 문을 닫았다. 숙부와 장로승 및 봉행 스기무라 주(杉村仲)이 두 번 읊하고 앉아 진무례를 거행하였다.<sup>33)</sup>

그리고 『해행기』에는 소략하게 적혀 있지만, 신도주와 구도주가 보내 온 회답서계와 별폭을 받은 의식이 서계 및 별폭과 함께 각각 갑인년 2월 28일과 3월 12일에 기록되어 있으며,<sup>34)</sup> 생략된 상선연과 관련한 건물(乾物)과 단자를 수령한 기록 또한 3월 16

32) “執事倭又以島主之意，請內廳相見。傳語官等言：‘此尤尊敬之意云。’大廳奉行·裁判·組頭等，前導至內廳，與島主相見，同盃禮。罷，復請外廳觀戲，故與諸執事倭出就外廳，當中東向坐，奉行杉村仲·平田將監·大浦忠左衛門等陪坐，而上官以下，依次北向坐定後，彩服倭四人，各抱樂器，披綠錦帳而出，一齊作樂，樂聲短促，與我國之樂不同。”(『海行記』, 갑인년 2월 12일)

33) “叔父與副官行四拜禮殿牌之下，余與族長汝卿氏·士徵叔及咸有德·卞廷瑞，行四拜禮於楹外，裨將等亦依此行禮，而中官以下，行禮於楹外之外。禮畢，滅燭闔門。叔父與長老僧，及奉行杉村仲，兩揖而坐，行振舞禮。”(『海行記』, 갑인년 1월 18일)

34) 회답서계와 별폭을 받는 의식은 『증정교린지』에 실려 있다. 도주가 봉행 1인과 재판차왜가 이들을 가

일 일기에 보인다.

#### 4.2.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일가 및 기타 인물과의 교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는 ‘우삼동오랑(雨森東五郎)’, ‘우삼등오랑(雨森藤五郎)’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 일기에서는 ‘우삼동(雨森東)’이라고 줄곧 불렀다. 그는 일본의 유학자이자 어학자로 중국어와 조선어에 능통하여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외교문서를 기초하거나 해독하는 실무자로 활약하였다. 에도(江戶)로 가는 통신사를 배행(陪行)하기도 하고, 기타 막부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공식적인 일로 여러 차례 조선을 드나들며 역사적 족적을 뚜렷이 남겼다.

원래 아메노모리 호슈는 오랜 외교 관력으로 인해 문위정관인 김현문(金顯門)과의 관계가 각별하였는데, 김홍조 또한 아메노모리 호슈의 장남인 우삼현지윤(雨森顯之允)이 도도금도(都都禁徒)로 1733년 왜관에 파견되었을 때 여러 차례 만난 사이라서 그 일가와 인연이 있었다. 이에 우삼현지윤(雨森顯之允)이 표제(表弟)인 대청봉행 길전안 우위문(吉田安右衛門)을 통해 문안하자 바로 편지를 써서 답하기도 하였다.<sup>35)</sup> 또한 대마도에 와서는 관소로 찾아온 아메노모리 호슈의 둘째 아들인 송포청장(松浦廳長)에게 숙부의 편지를 대신 써서 주기도 하였는데,<sup>36)</sup> 2월 12일 중연(中宴) 자리에서는 아메노모리 호슈가 송포청장과 함께 김홍조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여 직접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래는 그때의 상황이다.

우삼동(雨森東)이 그 차자(次子) 송포청장(松浦廳長)과 함께 내게 와 읍하고 말하기를 “존공께서 천리 창과를 무사히 건너 오셨으니, 매우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왜어(倭語)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말만 했는데 매우 분명하였다. 내가 일어나 감사함을 표시하고 함께 마주 앉았는데 우삼동이 말하기를 “제가 바로 우

---

치고 오면 문위관이 公服을 갖추고 나가 맞이하여 읍한 뒤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茶床을 대접하여 보낸다고 하였다. “問慰官俱公服出. 軒外揖迎. 至大廳相揖. 就坐開函. 照看書契別幅後. 封置於壁龕. 設茶床饋之. 揖送之節如來時.”(『增正交隣志 卷6 受回答書契別幅式』)

35) “雨森東之長子名顯之允者, 嘗以都都禁徒, 出來我國, 與之相接者累矣, 而到此之後, 渠國之法, 無執事者不得出入於館中, 且渠有病不能來見, 故使其表弟大廳奉行吉田安右衛門問候, 而兼致景昂之意.”(『海行記』, 갑인년 1월 29일)

36) “去廿二日茶禮時, 雨森東之次子松浦廳長, 來謁於叔父前而呈書, 故叔父使余裁書答之.”(『海行記』, 갑인년 1월 24일)

삼원장(雨森院長)입니다. 지난 계사년(1713 숙종39)에 존공의 숙부님과 귀국의 화관(和館 왜관(倭館))에서 교유하였는데,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간절히 서글프게 그리워하다가 뜻밖에 지금 연향 자리에서 존공의 숙부께 인사드렸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의 불초자식 현지윤(顯之允)이 저번에 초량(草梁)에서 돌아와서는 족하께서 보살피준 은혜를 크게 칭송하였는데, 근래 괴질에 걸려 집밖으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족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때에 달려가 사례하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대신 공경의 뜻을 펴게 되었는데, 그대의 얼굴을 뵈게 되어 이보다 다행스러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숙부님과 족하께서 교유한 우의가 있음을 듣고는 한번 뵈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매우 떨어져 있고 경계에 한계가 있음이 마치 바람난 말이나 소도 서로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기에 늘 개탄하였습니다. 지금 뜻밖에 태수(太守)의 당에서 얼굴을 뵈어 평소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sup>37)</sup>

이후 2월 15일에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차자 송포청장이 그 형 우삼현지윤(雨森顯之允)의 아들 귀윤(龜允)을 데려와 조카의 글씨를 보여주니 김홍조가 칭찬한 일이 있었고, 2월 22일에는 아메노모리 호슈가 손자 귀윤과 직접 함께 와서 김현문에게 인사한 뒤 김홍조에게 우삼현지윤의 편지를 전해 주면서 귀윤에게 큰 글씨로 칠언 절구 적게 하니, 김현문이 이를 보고 크게 칭찬하는 말로 그 부친 우삼현지윤에게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sup>38)</sup>

37) “雨森東與其次子廳長，來揖於余曰：‘尊公利涉於千里滄波，仰賀仰賀。’而不用倭語，專以我言，十分明白。余起立答謝，與之對坐。森東以爲：俺卽雨森院長也。往在癸巳，與尊叔父，交遊於貴國之和館者，今已二十餘年矣。恒切悵仰，而不意今者獲拜尊叔父於公宴之上，欣幸之懷，曷勝言哉！且僕之不肖息顯允，向自草梁回來，盛稱足下眷愛之澤，而近得怪疾，不能出入於戶庭之間，故聞足下之來，而趁不得趨謝，朝暮咄嗟。不勝舐犢之情，替伸敬意，而得瞻芝宇，幸莫大焉。’余答曰：‘僕在弊邦之日，得聞家叔父與足下交遊之誼，願一識荆，而南北絕遠，境界有限，如風馬牛之不相及，故尋常慨歎矣。今茲意想之外，獲瞻芝眉於太守之堂，以遂平生之願，何幸如之？’”(『海行記』, 갑인년 2월 12일)

38) “二十八字，而與前日島主家視余之細書字，大異。其排置體劃，正直分明，念出許多字，信手書之，而無一錯漏，誠甚奇妙。上·副房賞紙筆墨，余亦多贈果子，而其父顯允處，答書以送。”(『海行記』, 갑인년 2월 22일)



아메노모리 호슈 일가 외에 교유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본다. 기실 김홍조 교유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부산포를 빈번하게 오가는 대마도 관리들과 공적인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면을 익히기도 하고, 더하여 그가 가진 의술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넓고 탄탄한 인적 신뢰를 쌓았다고 봐야 한다. 이 밖에 『해행기』에 나타난 몇 명의 사람을 들자면 우선 춘일현의(春日玄意)라는 연소한 인물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관소로 찾아와서는 조부와 부친이 일찍 돌아간 관계로 미처 배우지 못했던 의술을, 김홍조에게 배워 가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매우 절절하게 가르침을 구했다. 김홍조가 처음에 고사(固辭)했다가 결국 허락하자, 이때부터 수시로 관소로 와서 자기가 공부하던 침구서(針灸書)의 의문처와 혈자리에 대해 배웠는데,<sup>39)</sup> 어떤 때는 대마도의 풍토병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였다.<sup>40)</sup> 김홍조를 극진히 높였으나 김홍조는 겸손히 대하였고, 속마음 역시나 자기가 남의 스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매우 불편해 하였지만, 그간의 대면으로 작별할 때에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도 않았다.<sup>41)</sup>

나머지 김홍조가 일상을 벗어나 만난 인물로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제자라고 소개한 나이 어린 아비류구오랑(阿比留久五郎)이란 자가 병에 대해 묻고 인사를 하러 한 차례 왔었고,<sup>42)</sup> 대마도 부중의 대화재에 집을 잃었다고 한 정수등십랑(井手藤十郎)이란 자는 부산포로 돌아가는 중 구전(久田)에서 발이 묶여 울적함을 풀려고 물에 내려갔을 때에 우연히 방문한 집의 주인이다.<sup>43)</sup>

39) “僕之祖米田勘右衛門·父勘三郎, 俱以針術, 鳴於島中, 不幸早死. 僕幼未能紹續箕裘, 而弊島狹陋, 師授無路, 尋常慨惋. 今聞足下飽覽華扁之書, 有起死回生之法云, 不勝欣聳, 幸望足下, 點掇愚蒙, 使之成就, 以續父兄之業.”(『海行記』, 갑인년 3월 4일)

40) 자기 나라의 부인은 나이 20이 지나면 배 안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10에 8, 9가 되어 ‘土用八專’의 때에 더 심해진다고 하면서 “병을 앓는 부인이 매양 네 仲月이 되면 초하루에서 19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혹은 일찌감치 혹은 늦도록 3, 4일이나 혹 5, 6일 간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 낫고, 19일이 지나면 아프지 않다가 또 중월이 되면 그 통증이 전과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물어보았으나 김홍조는 괴이한 일이지만 土用八專에 대해서는 끝내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所患婦人, 每當四仲之月, 則自初一日至十九日, 或早或晚, 三四日或五六日, 極痛而愈, 過十九日則不痛, 又當仲月, 則厥痛如前之謂也云.”(『海行記』, 갑인년 3월 15일)

41) “玄意拱手稱謝曰: ‘謹當如教, 而館中出入, 十分難便, 且身病如此, 不得再來, 從此告別, 惟望珍重, 早早利涉云云.’ 而去, 余亦有缺然之懷耳.”(『海行記』, 갑인년 3월 20일)

42) “有一年少倭, 與傳語官清石衛門, 來問其疾, 且曰: ‘僕名阿比留久五郎, 賤號鵬溟, 卽雨森院長之門人也. 因師院長, 得聞聲華久矣. 今來獲拜, 而辱賜青眼, 不勝欣幸云云.’”(『海行記』, 갑인년 3월 5일)

43) “其人答曰: ‘僕名井手藤十郎, 自少居於府中, 不幸再昨年弊島之慘被火災也, 燒盡家產, 而愛此風景, 結廬而居, 不意今者, 忽得貴人之辱臨弊地, 何幸如之, 而山家無物, 末由款接, 慙赧云云.’ 而慙慙勸茶, 其意可嘉, 而移時間答, 亦覺有趣.”(『海行記』, 갑인년 3월 29일)

### 4.3. 노오[能] 공연 관람

노오<sup>44)</sup> 공연은 2월 12일에 거행되었던 중연(中宴)의 이색적인 부분으로 공적인 의식의 일부로 중연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대마도주의 특별한 호의에 의해 마련한 배우 이색적인 일이어서 『해행기』 기록의 한 특징이라 할 만하다. 김홍조가 일본인 통역관에게 전해 듣고 기록한 노오의 작품으로는 「학귀(鶴龜)」, 「백양(伯養)」, 「사리(舍利)」, 「교변경(橋辨慶)」이다. 이들에 대한 김홍조의 기록은 모두 전형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는데, 여기서는 관람 인원들이 자리를 정한 뒤 무대를 설치하여 첫 두 작품을 공연하는 부분과 김홍조의 품평이 붙어 있는 마지막 공연인 「교변경(橋辨慶)」의 후단 부분을 소개해 본다.

그 뒤 채색 복장을 한 왜인 4인이 각각 악기를 꺼안고 푸른 비단 휘장을 헤치고 나와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음악 소리가 짧고 급한 것이 우리 우리나라의 음악과 같지 않았다. 얼마 뒤에 왜인 2명이 접힌 상(床)을 들고 나와서 양봉(凉棚 일종의 차양막)을 장식해 만들고는 들어갔다. 사모(紗帽)를 쓰고 금포(錦袍)를 걸친 1인이 휘장 속에서 나와 인사하고 양봉 가운데에 올라가 앉았고, 또 무각모(無角帽)를 쓰고 반란포(斑爛袍)를 걸친 2인이 손에 숙환선(繡紈扇)을 잡고서 양봉의 아래로 나와 앉아 큰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몸짓과 말이 중국 시장에서 하는 공연과 대략 비슷하였다.

또 동자 2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금구관(金龜冠)을 쓰고 한 사람은 백학관(白鶴冠)을 썼는데, 몸에는 녹금의(綠金衣)를 착용하였다. 이리저리 돌며 춤추고는 또한 그 곁에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모자를 쓴 자와 함께 들어갔다. 또 두 맹인(盲人)이 나와 방황하다가 피차가 서로 치고받아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맹인 1인이 매우 노하여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 때리려고 하자 다른 1명의 맹인이 다급해져 허둥지둥 도망하여 피하는 모습을 하니 몹시 포복절도하였다. 전어관(傳語官 왜인 통역관)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잡희의 이름은 「학귀(鶴龜)」와 「백양(伯養)」입니다. 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두 맹인이 그 음악 소리를 듣

44) 노오는 鎌倉時代 후기부터 室町時代 초기에 완성된 일본의 독자적인 무대 예술의 일종인 '노오가쿠[能樂]'의 한 분야이다. 즉 노오는 일본의 전통 연극의 하나로, 어떤 전설이나 설화에 의거한 이야기를 피리(笛), 고쓰즈미[小鼓], 오오쓰즈미[大鼓], 북[太鼓] 등 네 종류의 반주 악기에 맞추어 특징 있는 곡조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시테[仕手]라는 주연주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소리[謠]와 춤으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회를 보이는 예능이다.(정우봉, 앞의 논문, 250쪽)

고 들어와 토식(討食)하는데 서로 치고받다가 구타를 당하는 데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45)</sup>

여기에 맨 처음 등장하는 채색 복장을 한 4명의 악공(樂工)이 연주하는 것을 듣고는 우리나라의 음악과 비교해 보고 있으며, 공연을 조금 본 뒤에는 중국 시장에서 하는 공연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처음부터 진지하게 관람에 임한 것을 보여준다.

또 한 동자(童子)가 머리에 쇠그릇[金箍]을 이고 몸에는 흰 비단옷을 걸쳤으며 허리에 긴 칼을 차고서 당 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었다. 갑자기 몸에 붉은 비단을 걸치고 명주로 머리를 싸맨 채 표범 머리에 괴상한 눈을 한 자가 크게 고향 치면서 뛰어나왔다. 큰 칼로 손짓하며 춤추다가 동자를 곧장 찌르려고 하였는데, 동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와 칼싸움을 하였다. 서로 휘두르고 찌름에 검광(劍光)이 번쩍번쩍하고 한기(寒氣)가 뽕뽕했는데, 한참 동안 격전을 벌일 때에 갑자기 표범 머리에 괴상한 눈을 한 자가 칼을 버린 채 물러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동자는 칼을 빗겨 찬 채 그를 꾸짖고는 떠나갔다. 전어관(傳語官 왜인 통역관)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교변경(橋辨慶)」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용맹함만을 믿고 도처에서 사람을 죽이므로 동자가 검술을 배워 그의 흉악함을 꺾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이 잡희의 도구들은 모두 새로 만든 것인데, 들어간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배우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알 수 없었지만, 구경하는 여러 왜인들이 박수치고 왁자지껄 웃으며 손발로 춤추고 구르는 것을 보니, 그들 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어관의 전하는 말이 그다지 명쾌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sup>46)</sup>

45) “後彩服倭四人，各抱樂器，披綠錦帳而出，一齊作樂，樂聲短促，與我國之樂不同。俄而二倭擡出摺床，粧造涼棚而去，紗帽錦袍者一人，自帳裡出來拜現，上坐棚中，又無角帽斑爛袍者二人，手執繡紈扇，出坐於涼棚之下，高聲談說，不知其說話之如何，而其舉止語訓，則與中國之場市，略相似焉。又童子二人，一戴金龜冠，一戴白鶴冠，身着綠金衣，盤旋而舞，亦坐其傍，互相答話，與着帽者入去，而又二盲出來彷徨，彼此相搏，幾至顛仆，一盲怒甚，舉杖追擊，一盲着急，蒼黃奔避之狀，極爲絕倒。問於傳語官，則以爲：‘戲名鶴龜·伯養。不能詳知其事實，而二盲則聞其樂聲，入來討食，誤致相搏，被其毆打云。’”(『海行記』，갑인년 2월 12일)

46) “又一童子，頭戴金箍，身被白錦衣，腰插長劍，出舞堂中，忽豹頭怪眼者，身被紅錦，以帛裹頭，而大喊跳出，手舞大刀，直取童子。童子少無懼怯，拔其佩劍，與之合鋒，互相擊刺，劍光閃爍，寒氣颯颯，移時酣戰之際，忽豹頭怪眼者，擲劍退伏，叩頭稱罪，童子橫劍叱咤而去。問於傳語官，則以爲：‘此名橋辨慶，此人恃勇，到處殺人，故童子學得劍術，挫其兇頑云。’而且言：‘今此戲具，皆是新造，所費甚重。’云。余不解其戲子言語，故雖不

「교변경」의 후단 부분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인물의 모습과 동작을 묘사하고 관객들의 반응까지 빠지지 않고 적고 있다. 또 나름대로의 추측을 덧붙이기까지 하며 일본인 통역관을 통한 이해에 갑갑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때 마지막까지 선입견 없이 인상 깊게 공연을 관람하였다고 하겠다.

#### 4.4. 대마도에서의 의료(醫療) 활동

김홍조는 대마도에 체재하는 동안 대마도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 빈번하게 의료 활동을 하였다. 이는 꽤나 흥미를 끄는 부분으로 이 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의료 활동의 계기는 1732년(영조8) 고경차왜(告警差倭)가 왔을 때 김홍조가 초량에 있으며 우연히 차왜의 종당(堂從)인 송지조(松之助)를 위독한 상황에서 낮게 해 준 데에서 비롯한다.<sup>47)</sup> 이 일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퍼져서 문위행이 대마도에 왔을 때 일찌감치 김홍조를 알아보고, 도주 일가와 고관들이 틈만 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치료를 위한 방문을 요구하였다. 또 이러한 왕진(往診)을 행하고 응대를 받은 뒤에는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치료하러 간 집의 안팎에 소문을 듣고 대기하는 다른 병자들까지 어쩔 수 없이 병세를 듣고 일일이 치료하기도 하였다. 치료 방법은 병세에 관해 환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뒤 침(針)을 놓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식이었다.<sup>48)</sup> 아래는 맨 처음으로 왕진하게 된 날의 기록으로 다수의 사람을 치료하러 간 경우인데, 다른 날 왕진할 때의 기록도 대충 이런 식이다.

내가 초량(草梁)에 있을 때에 약간의 약방문(藥方文)을 외워 왜관의 왜인 5, 6인을 치료해 살린 적이 있었는데 경솔한 무리들이 서로 칭송하였다. 이번에 배행(陪行)하는 뜻이 미리 섬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이곳의 남녀노소가 날마

能悉曉其意味之如何，而觀其觀光諸倭之拍掌誼笑，手舞足蹈，則可知其渠國之有來歷故事，而傳語官所傳之語。不甚明快，可慨也已。”(『海行記』, 갑인년 2월 12일)

47) “癸丑之夏，新島主承襲告慶之行，有年少名松之助者偕來，而即差倭之堂從也。重得痛病，幾至死境，而余偶施一得之術，快得蘇完”(『海行記』 갑인년 1월 13일) 또한 김홍조 본인의 말로는 약간의 약방문으로 왜관의 왜인 5, 6인을 치료한 적이 있어 왜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도 하였다. “余在草梁之日，記誦若干湯頭。醫活館倭五六人，輕率之輩，互相稱譽，今番陪行之意，預爲傳播於島中”(『海行記』, 갑인년 2월 7일)

48) “卽招病人，等近前，使傳語官，問其症情，痿者，躄者，……不一其端，依其症候，或鍼或藥，葶葶塞責，所識者短，酬應者煩，將不免於拖白之患。”(『海行記』, 갑인년 2월 7일)

다 문밖에 몰려들었으나 국법이 두려워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도도금도 평산향좌위문(平山鄉左衛門)에게 간절히 요청하였다. 평산향좌위문은 바로 계축년(1733, 영조9) 여름에 이정암(以酹菴)의 송사(送使)로 우리나라에 와서 나와 여러 차례 만났던 자이다. 전어관(傳語官 왜인 통역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해 문후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아뢰 바가 있지만 말은 직임 때문에 국법을 어기고 관소에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그 뜻은 나로 하여금 나와서 그를 만나도록 한 것인데 감히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어관 등이 또한 누누이 간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소동 정윤보(鄭潤寶)와 함께 금도청(禁徒廳)에 나아갔다.<sup>49)</sup>

이 밖에 2월 11일에는 감정소의 오랑좌위문(五郎左衛門)의 형을, 21일에는 봉행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를, 29일에는 도주의 외조부 히구치 마고자에몬(樋口孫左衛門)을, 3월 2일에는 제5대 대마도주 소 요시미치(宗義方, 1684~1718)의 아들이자 현 도주의 당종(堂從)인 촌강좌경(村崗左京)을, 3월 19일에는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의 아들인 스키무라 주(杉村仲)의 부탁에 응해 그 아우를 치료하러 나갔다. 이들 경우에 대부분 다른 병자들까지 치료하고 관소로 돌아왔는데, 많은 병자들을 상대하느라 몹시 괴롭다는 말을 꼭 적어 두고 있다.

### III. 결론

위에서 김홍조가 지은 『해행기(海行記)』의 형식적·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상투적인 말로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이해된 일본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막연한 느낌을 해소하여 양국 간에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조선과 일본 간 교린(交隣)의 수많은 역사적 족적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구하여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마도의 지리적·역사적 밀접성은 한일교류사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임진란(壬辰亂) 이후 대마도를 오가며 양국

49) “余在草梁之日，記誦若干湯頭。醫活館倭五六人，輕率之輩，互相稱譽，今番陪行之意，預爲傳播於島中，故此處老小男女之有病者，日聚門外，而畏法不敢入，懇乞於都都禁徒平山鄉左衛門，此人，卽癸丑之夏，以以酹庵送使出來我國，與之數次相接者也。使傳語官，送言問候，且曰：‘竊有所告達，而所帶之任，不可以違法入館，奈何奈何云。’其意欲使余出來見渠，而不敢明言者也。傳語官等，亦爲縷縷懇請，故不得已與小童鄭潤寶，出就禁徒廳。”(『海行記』, 갑인년 2월 7일)

간의 실질적인 외교를 담당한 조선 측 사절인 문위행(問慰行)은 매우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에도(江戸)를 오갔던 통신사(通信使)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지만, 문위행에 대한 그 성과는 매우 빈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조 『해행기』가 가지는 몇몇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해제를 마무리 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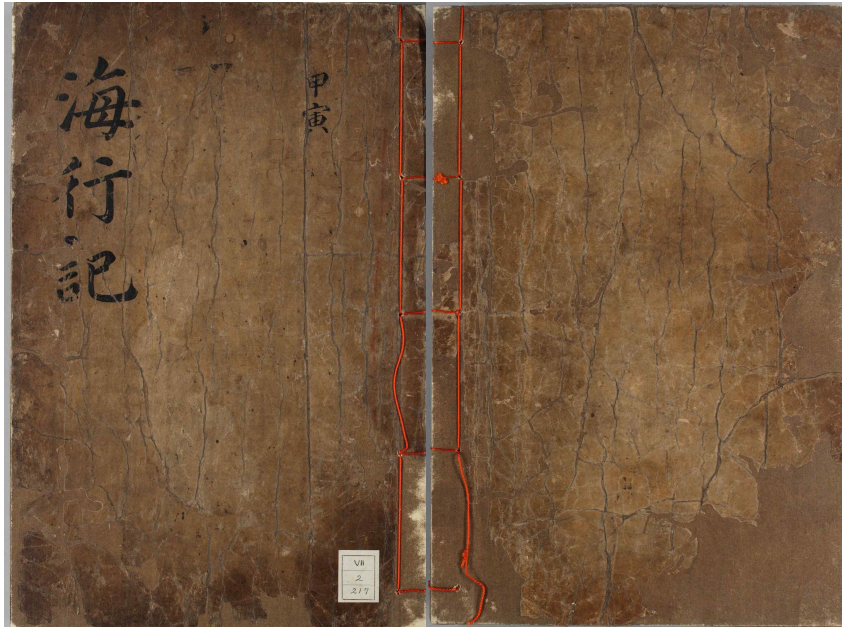
이 일기는 문위행의 전체 과정이 기록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변례집요(變例集要)』,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누락된 공적인 기록, 예컨대 양국 간 주고받은 서계(書契) 및 각종 예단(禮單)이 빠짐없이 적혀 있으며, 이들 책에서 규정한 문위행의 각종 의식이 실제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를 담고 있다.

또한 대마도에서만 장기간 체류하였기 때문에 대마도인(對馬島人)에 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일교류사의 중요 인물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에 관한 풍부한 기술은 매우 귀중하며, 저자의 밝은 의술로 대마도의 여러 유력가에 불려 다니며 기록한 다수의 인적 연결 관계 또한 대마도 지배층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토대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살필 만한 것은 일본의 전통 무대 공연인 노오[能] 관람을 기록한 부분이다. 18세기의 조선인이 노오라는 정확한 공연의 명칭을 숙지한 뒤 각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유일무이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한 내용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데, 등장인물의 복식, 배우의 몸짓 및 사건의 전개, 관람객의 반응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연희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별해 볼 가치를 가진다.

이렇듯 김홍조는 치열하게 잘 기록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그는 정관(正官)을 수행하는 반인(伴人)이었지만 신분상 그가 경험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은 정관이나 부관(副官)에 미치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가 이전부터 부산포의 왜관을 익숙히 다녀 일인(日人)들과 친했지만, 한학(漢學)을 전공한 관계로 통역관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대마도인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일기에 간간히 기록하였는데, 무의식중에 그들을 폄하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는 성리학 전통의 도덕적 우월감이나 일본인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벗어나지도 벗어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해행기』 참고 이미지



앞표지와 뒷표지



序文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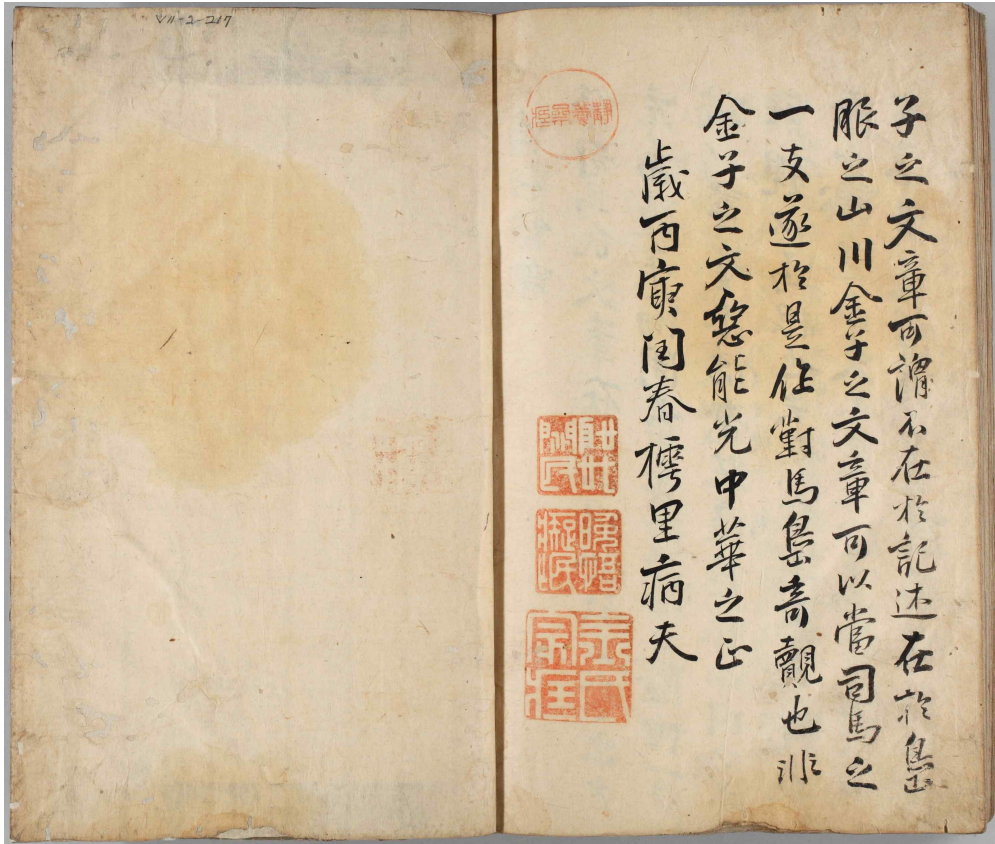


柄 真墨三十笏  
 朝鮮國禮曹參議金龍慶奉書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  
 平公閣下逖惟茲辰動止冲裕况聞新膺寵命還紹世壽  
 撫蒞一州旌燾載新誠信相接庶期益篤其在隣好曷勝  
 欣賀茲差象官聊修薄儀願留是希肅此不備  
 別幅  
 人參五斤 虎皮三張 豹皮三張 白苧布十匹 白  
 綿紬十匹 黑麻布十匹 白木綿三十匹 花席十張  
 四油花五部 霜花紙十卷 畫硯三面 黃毛筆三十  
 柄 真墨三十笏  
 癸丑九月廿二日對馬州太守平方照退休以其元之  
 子義如承襲其位而出送護行裁判未請問慰官  
 朝廷以家叔父為致賀兼問慰正官以朴正和仲為  
 副官叔父以釜山訓導上京復 命後更為肅拜下  
 來十二月初七日到東萊  
 十一月二十四日辛丑晴艸將徐後稭再昨自統營  
 艇艇回來差使負粟浦 止泊釜山云余與李順白金  
 俊益金禹三及小童朴重泰下人朴松齊尹命伊李  
 培同等下往釜山船滄裨將等及諸親舊一時俱來  
 而開雲萬戶金君世瑤以差使負亦未見沙工等與

본문2-2

站止宿是日行八十里  
 初七日壬午晴自真村難發直谷站中火板橋站止宿是  
 日行一百一十里  
 初八日癸未晴自板橋難發至江頭舍弟子珪平長兒及  
 奴僕來迎與之偕行到家拜 廟後父子兄弟團聚一  
 處握手相歡欣喜可掬矣  
 海行錄論  
 管司馬氏文章在於山川余故未嘗出戶  
 序而隨手編閱華夷疆幅之險坦可  
 能以畫豈不偉哉然惟隄隘山川之未  
 能觀以為恨也夫載於輿圖者既無  
 所不識悉而文不足以述焉得海行一  
 書而其民俗道里之庶幾微焉則金

後識2-1



後識2-2



## 『해행기』 번역

### 「김임중 해행기서」

「金任重海行記序」

나는 일찍이 홍창랑(洪滄浪)<sup>50)</sup>의 유고를 읽은 적이 있다. 거기에 김광천(金廣川)<sup>51)</sup>의 『동사록(東槎錄)』 서문<sup>52)</sup>이 있었는데, 그 대략에 “내가 김광천과 함께 일본에 사행(使行)을 가서 20여 년이 지났으니 아득히 꿈속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 기록한 『동사록』을 살펴보니 흡사 떠오르고 느껴지는 것이 눈앞에 역력히 나열한 듯하니, 산천의 원근과 풍속의 상이함이 날날이 다 갖추어져 수천 리 밖 부상(扶桑)<sup>53)</sup>을 앉아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세상에 안사고(顔師古)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왕회도(王會圖)」를 만든다면<sup>54)</sup> 반드시 여기에서 채택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50) 홍창랑(洪滄浪) : 홍세태(洪世泰, 1653~1725)로, ‘창랑’은 그의 호이다. 그의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도장(道長), 다른 호는 유하(柳下)이다. 중인 출신으로, 1675년(숙종1) 식년시 역과(譯科)에 응시하여 한학관(漢學官)으로 뽑혀 이문학관(吏文學官)에 제수되었고,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등 당대의 사대부들과 교유하였다. 위항 시인(委巷詩人)의 시를 모은 『해동유주(海東遺珠)』라는 시선집(詩選集)을 간행하였다. 저서로는 『유하집』이 있다.

51) 김광천(金廣川) : 김지남(金指南, 1654~1718)으로, ‘광천’은 그의 호이다. 역관(譯官)으로, 그의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계명(季明)이다. 『해행기』의 저자인 김홍조(金弘祖)의 조부이자, 『해행기』 내의 정관(正官)인 김현문(金顯門)의 부친이다. 1671년(현종12) 역과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일본과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벼슬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로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 『동사일록(東槎日錄)』 등이 있고, 편서로는 아들 김경문(金慶門)과 함께 작업한 『통문관지(通文館志)』가 있다.

52) 동사록(東槎錄) 서문 : 『유하집(柳下集)』 권9에 실린 「김계명동사록서(金季明東槎錄序)」을 말한다. 보통 김지남의 이 작품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는 『김역사동사일록(金譯士東槎錄)』로 나오는데 흔히 『동사일록(東槎日錄)』으로 부른다.

53) 부상(扶桑) : 해가 뜨는 동쪽에 있다는 신목(神木)으로 동해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사행(使行)과 관련해서는 일본(日本)을 가리킨다.

54) 세상에……만든다면 : ‘왕회도(王會圖)’는 사방 나라의 사신들이 중국 조정에 와서 조회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당(唐)나라 정관(貞觀) 3년(629)에 안사고(顔師古, 581~645)가 당 태종(唐太宗)에게, “예전 주나라 무왕 때 천하가 태평해지자 먼 나라들이 귀의하였는데, 주나라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록하여 「왕회」 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회하는데, 이들의 장복은 실로 그림으로 그럴 만하니, 이번에 「왕회도」를 편찬하게 해주소서.[昔周武王時, 天下太平, 遠國歸款, 周史乃書其事, 爲王會篇. 今萬國來朝, 至於此輩章服, 實可圖寫, 今請撰爲王會圖.]”라고 청하여 「왕회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비록 미처 광천공(廣川公)을 보지는 못했으나 서문을 통해 『동사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매번 한번 얻어 보아서 나의 가슴을 씻어내고자 하였는데, 일본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지나온 길에 대해 물어보면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니, 이에 더욱 『동사록』에 마음이 갔지만 끝내 볼 수가 없었다.

근래에 김임중(金任重)<sup>55)</sup>씨와 사귀게 되었는데, 임중은 바로 광천공의 손자로 일찍이 문위행(問慰行)을 따라 바다를 건너갔다가 돌아온 자이다. 근래에 그 『해행기(海行記)』 한 편을 보여 주므로 읽어 보았더니 이른바 수천만 리 밖의 부상이 나의 눈앞에 펼쳐졌기에 가슴이 호연(浩然)해졌다.

무릇 광천공이 부상에 갔을 때에는 창랑자(滄浪子)와 같은 당대의 문사(文士)를 얻어 같은 배로 함께 하였는데, 그 산천과 풍속을 기록한 것은 공의 일에 속하였다. 공의 뒤 50여 년 만에 이어 기록한 일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임중에게 속하였으니 그 또한 기이하다.

『동사록』이 이 책에 비해 그 상세함과 소략함이 과연 어떠한지는 모르겠다. 창랑자가 본 글을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본 글을 창랑자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 천만 리 밖의 산천과 풍속을 얻은 것은 나와 창랑자가 실로 다름이 없다. 내가 이에 『동사록』을 볼 수 없었음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고서 이 책을 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무릇 창랑자는 그 자신이 직접 그윽한 흥취와 기이한 광경을 충분히 누렸음에도 오히려 『동사록』을 덕(德)스럽게 여겼다.<sup>56)</sup> 하물며 뒤옹박처럼 매달려 있는 나 같은 자는 이 책을 얼마나 아끼고 탐독하겠는가. 애석하게도, 임중이 배타고 대양(大洋)을 나가 동쪽으로 갈 때에 창랑자가 광천공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동행 할 수는 없었다. 또 광천공은 창랑자를 얻어서 서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동사록』이 볼 만하다는 것을 알아서, 과연 안사고와 같은 자가 나와 「왕회도」를 만든다면 필시 버려지지 않을 것이지만, 임중은 불행히도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하리오, 내가 어찌 하리오.

『舊唐書 卷209 南西蠻列傳』

55) 김임중(金任重) : 『해행기』의 저자인 김홍조(金弘祖)로, ‘임중’은 그의 자이다.

56) 동사록을 덕(德)스럽게 여겼다 : 홍세태(洪世泰)가 일본을 다녀온 지 20여 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차에, 김지남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가 기록한 책자를 보고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완전히 떠올릴 수 있게 되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다. 『柳下集 卷9 金季明東槎錄序』

정사년(1737년 영조13) 2월 하순 완산(完山) 이덕집(李德集)<sup>57)</sup>이 적다.

---

57) 이덕집(李德集) :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지 않다.

## 「해행기서」

### 「海行記序」

아아, 차마 말할 수 있으랴. 천지가 무궁하여 갑신년(甲申年)의 일<sup>58)</sup>은 되돌아오고 봄 가을이 번갈아 대신하여 임진년(壬辰年)의 일<sup>59)</sup>은 매양 반복된다. 우리 동방의 뜻이 있는 선비가 칼을 어루만지고 주먹을 불끈 쥐는 회포가 북으로 남으로 문장을 일삼다가 이미 시들고 말았다.

지금 김임중(金任重)의 『해행기』를 보니, 시원스레 북으로 남으로 문장을 일삼았던 것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적었다. 다만 그 산천과 도리(道里), 토속(土俗)과 인물은 한 폭의 역력한 부상(扶桑 일본)에 관한 그림이지만, 기록할 만하나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으리라.

나는 지금 임중씨에게 질문해 본다. 저 나라가 정령(政令)을 시행함과 백집사(百執事)가 일을 수행하는 것에 능히 스스로 기강을 부지하는 도가 있는지, 병력(兵力)의 강약과 양식(糧食)의 다소는 어떠한지에 대해 과연 능히 그 허실을 자세히 얻었는가? 변방 지역 부상의 기후는 또 어떠하며, 이른바 부산(富山)<sup>60)</sup>의 위에 떠다니는 운기(雲氣)가 흑 물빛인가 가을빛이던가?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바는 여기에 있지 저기에 있지 않다.

임중씨는 이것을 필획 밖의 오묘한 도리와 마음속의 계책으로 삼았으니,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도 속인에게는 말해 주기 어렵다<sup>61)</sup>는 것이리라. 그러저럭 이를 책에 적어 지사(志士)가 살펴서 채택하기를 기다린다.

갑자년(1744 영조20) 6월 상완(上浣)에 수양(首陽) 오상문(吳尙文)<sup>62)</sup>이 적다.

58) 갑신년(甲申年)의 일 : 명(明)나라가 의종황제(毅宗皇帝)를 끝으로 갑신년인 1644년에 북경을 함락한 이자성(李自成)에게 멸망한 사건을 말한다.

59) 임진(壬辰年)의 일 :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말한다.

60) 부산(富山) : 후지산(富士山)을 가리키는 듯하다. 후지산은 일본 본토에 있는 산으로 대마도(對馬島)에 소재한 산은 아니다.

61)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어렵다 :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이 임안(任安)에게 준 편지에 보이는 표현으로, 거기에는 일본의 ‘難與’가 ‘難爲’로 되어 있는데, 뜻은 차이가 없다.

62) 수양(首陽) 오상문(吳尙文) :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수양’은 본관을 칭한 것으로 해주(海州)의 옛

---

이름이다.



### 해조 서계(該曹書契)<sup>63)</sup>

조선국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용경(金龍慶)<sup>64)</sup>이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전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공(平公) 합하<sup>65)</sup>께 삼가 글을 올립니다. 기후가 바뀌어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데 우리러 봄에 그리운 마음이 갑절이나 심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웃나라의 우호가 돈독하였습니다. 자리를 물러나시는 지금 의탁할 사람이 있으시니 기쁘고 축하하는 나머지 슬픔과 허전한 마음이 아울러 듭니다. 이에 역관을 보내어 대신 위문(慰問)하는 뜻을 펴고, 변변치 못한 별폭(別幅)으로 옛 정을 표합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계축년(1733, 영조9) 9월 일

### 별폭(別幅)<sup>66)</sup>

인삼 5근(五斤), 호피(虎皮) 3장, 표피(豹皮) 3장, 백저포(白苧布) 10필, 백면주(白綿紬)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백목면(白木綿) 30필, 화석(花席) 10장, 사유둔(四油菴) 4장 붙인 유둔) 5부, 상화지(霜花紙) 10권, 화연(畵硯) 3면, 황모필(黃毛筆) 30자루, 진묵(眞墨) 30개.

조선국 예조 참의 김용경이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공(平公)<sup>67)</sup> 합하께 삼가 글

63) 해조 서계(該曹書契) : ‘해조’는 해당 조로, 예조(禮曹)를 가리킨다. ‘서계’는 일본과 왕래하는 외교문서의 일종으로 관백(關白)과 조선 국왕 간에 오고가는 국서(國書)보다 급이 낮은 것인데, 대마도주나 관백의 관리들에게 예조 참관, 참의 등의 명의로 상대방의 직위에 상응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64) 김용경(金龍慶) : 1678~1738.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이현(而見), 홍성 사람이다. 1718년 정시(庭試)에 급제하였다. 승지와 이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1738년 진하 겸 사온 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65) 전……평공(平公) : 소 미치히로(宗方熙 1696~1759)로 제7대 대마도주이다. 계명(戒名)은 청정원(淸淨院), 관위는 민부대보(民部大輔)이다.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아들이나 형인 소 요시노부(宗義誠, 1692~1730)의 양자가 되어 1731년에 대마도주가 되었다. 역대 도주 중 유일하게 이름에 ‘의(義)’자가 붙지 않은 인물인데, ‘방(方)’자는 그 형인 소 요시미치(宗義方, 제5대 도주)에게서 온 것이라고 한다.

66) 별폭(別幅) : 쪽지나 조각을 뜻하는 말로 공식 문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첨부하는 문건이다. 보통 예물(禮物)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것으로,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품목과 그 양이 정해져 있다. 왜인들의 풍속에 서로 물건을 줄 때에는 별폭을 사용한 데서 이런 형식이 생겼다고 한다. 『通文館志 卷5 交隣上 年例送使』

67) 일본국……평공(平公) : 종의여(宗義如, 1716~1752)로 제8대 대마도주이다. 1716년 제6대 대마도주 소 요시노부(宗義誠, 1692~1730)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1730년 어린 나이에 부친이 사망하여 지위를 잇지 못하였다. 이에 1731년 5월에, 제7대 대마도주가 된 숙부 종방희(宗方熙)의 양자가 되었다가, 1732년 종

을 올립니다. 멀리서 생각건대 이러한 때에 기거가 좋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듣기로 새로 총애하는 명을 받아 다시 대대의 작위(爵位)를 이어셨다고 하는데, 한 주(州)를 다스림에 위의(威儀)가 새로워졌습니다. 정성과 믿음으로 사귀어 관계가 더욱 독실해지기를 기대하니, 이웃나라의 우호에 있어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에 상관(象官)<sup>68</sup>을 차정하여 애오라지 소박한 예물(禮物)을 준비했으니 받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 별폭

인삼 5근(五斤), 호피(虎皮) 3장, 표피(豹皮) 3장, 백저포(白苧布) 10필, 백면주(白綿紬)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백목면(白木綿) 30필, 화석(花席) 10장, 사유둔(四油菴) 4장 붙인 유둔) 5부, 상화지(霜花紙) 10권, 화연(畫硯) 3면, 황모필(黃毛筆) 30자루, 진묵(眞墨) 30개.

---

방희의 은거로 인해 제8대 대마도주가 된 것이다. 1752년 1월에 당시 쓰시마에 유행하던 천연두로 인해 37세로 사망했다.

68) 상관(象官) : 역관(譯官)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문위역관(問慰譯官)을 가리킨다. 『예기』 「왕제(王制)」에 “오방의 백성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기호가 같지 않은지라 그 뜻을 전달되게 하고 그 기호를 소통되게 하였으니, 동방은 ‘기’, 남방은 ‘상’, 서방은 ‘적제’, 북방은 ‘역’이라고 하였다.[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 達其志, 通其欲, 東方曰寄, 南方曰象, 西方曰狄鞮, 北方曰譯.]”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계축년(1733, 영조9) 9월

### 21일

대마주 태수 평방희(平方熙)가 물러나고 그 형의 아들 의여(義如)가 그 지위를 이어 받자, 호행재판(護行裁判)<sup>69</sup>을 내보내어 문위관(問慰官)을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 가속(家叔)<sup>70</sup>을 치하(致賀)하고 아울러 문위(問慰)하는 정관(正官)으로 삼았고, 박정 화중(朴正和仲)<sup>71</sup>을 부관(副官)으로 삼았다. 이에 숙부께서 부산 훈도(釜山訓導)로서 상경(上京)하여 복명한 뒤에 다시 숙배하고 내려오셨다. 【12월 7일에 동래에 도착하였다.】

### 11월

#### 24일 신축, 맑음

선장(船將) 서후치(徐後釋)가 그제 통영(統營)에서 장선(粧船 단장한 배)을 타고 돌아와 부산에 정박했다고 한다. 【차사원(差使員)은 울포 권관(栗浦權管) 이후배(李厚培)이다.】 나는 이순백(李順白), 김준익(金俊益), 김우삼(金禹三) 및 소동(小童) 박중태(朴重泰), 하인(下人) 박송제(朴松齊)·윤명이(尹命伊)·이배동(李培同) 등과 함께 부산의 선창(船艙)에 내려갔다. 비장(裨將) 등과 여러 친구가 일시에 함께 왔는데 개운 만호(開雲萬戶) 김군 세충(金君世聰)이 차사원 신분으로 또한 와서 만나 보았다. 사공(沙工) 등과 역관·뱃사람이 교판(橋板)을 놓아 내려서 하선하여, 와서 인사한 뒤에 나를 만나 보고 올라갔다.

내가 배 위에 이르렀는데, 뱃머리에서 고물까지가 17장(丈)이고 저판(底板)<sup>72</sup>은 9입

69) 호행재판(護行裁判) : 문위역관호행재판차왜(問慰譯官護行裁判差倭)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는 문위역관호행차왜(問慰譯官護行差倭), 도해역관호행차왜(渡海譯官護行差倭)라고도 하는데, 문위역관(問慰驛官)을 호행(護行)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하는 일본 사신을 가리킨다. ‘재판’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일을 주관하는 차왜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재판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숙종 6년(1680)부터이고, 조선에서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숙종 7년부터이다. 『邊例集要 卷4 裁判』

70) 가속(家叔) : 김현문(金顯門)이다. 김지남(金指南)의 둘째 아들이자, 『해행기』의 저자인 김홍조(金弘祖) 부친 김순문(金舜門)의 형이다.

71) 박정 화중(朴正和仲) : 박춘서(朴春瑞)로, ‘화중’은 그의 자(字)이고,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1714년(숙종40) 증광시에서 왜학(倭學)으로 합격하였고,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다. 『譯科榜目』

72) 저판(底板) : 배밑판이라고도 하는데, 배의 바닥에 깔리는 널빤지를 말한다. 본판(本板)이라고 하기도

(立)이고 삼판(杉板)<sup>73)</sup>은 18입으로 1,000여 인을 수용할 수 있었다. 앞의 범죽(帆竹)<sup>74)</sup>은 13과(把)이고 뒤의 범죽은 12과이며 치목(鴟木)<sup>75)</sup>은 7과였다. 난간의 안으로 목판을 평평하게 깎 것이 마치 육지와 같았고, 정관(正官)의 장방(粧房)은 중앙에 있고 그 옆으로 부관(副官)의 방이 있으며 그 뒤로 선장이 머물 곳이 있었다. 그리고 그밖에 노와 닻, 밧줄 등 여러 물건이 매우 견고하여 조금도 영성하고 빠진 것이 없기에 평지를 밟듯이 창파(滄波)를 헤쳐 나가기를 보장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왕명(王命)이 미치는 바에 따라 온갖 집사들이 모두 마음을 다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매우 감축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한 선장(船長)이 부지런히 주선했던 덕분이기도 하니, 적임자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제군(諸君)들과 장루(粧樓)에 앉아 안부를 주고받고 있을 때에 선장이 나에게 말하기를 “전에 바다를 건너갈 배를 단장할 때에는 선장의 장방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은 스스로 편리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생각건대 이번의 여행에 공이 필시 배종할 것이므로 생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장이 나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니, 진실로 몹시 감사하였다.

### 일행 원액(一行元額)

당상 절충장군 용양위 부사맹 김(堂上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猛 金)<sup>76)</sup>

당하 통훈대부 전 사역원 정 박(堂下通訓大夫前司譯院正 朴)<sup>77)</sup>

### 선장(船將)

출신(出身) 서후치(徐後穉), 부산(釜山)

한다. 『김재근, 韓國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8쪽』

73) 삼판(杉板) : 배의 외곽을 이루는 외판(外板)으로, 현판(舷板) 또는 삼(杉)이라고도 한다. 『김재근, 韓國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13쪽』

74) 범죽(帆竹) : 돛대로 쓰는 대이다.

75) 치목(鴟木) : 타축(舵軸)으로,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이다.

76) 당상 절충장군 용양위 부사맹 김(堂上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猛 金) : 1734년(영조10) 문위행(問慰行)의 정관(正官) 김현문(金顯門)이다.

77) 당하 통훈대부 전 사역원 정 박(堂下通訓大夫前司譯院正 朴) : 1734년 문위행의 부관(副官) 박춘서(朴春瑞)이다.

### 군관(軍官)

절충(折衝) 서석귀(徐錫龜). 병방(兵房), 부산. 뒤쳐져 있었음.

백선웅(白善雄), 병방, 부산.

최섬(崔暹), 공방(工房), 부산.

김득해(金得海), 공방, 부산.

김준익(金俊益) 예방(禮房), 동래(東萊).

출신 서후봉(徐後逢), 예방(禮房), 동래.

사과(司果) 김처중(金處重) 호방(戶房), 부산.

한량(閑良) 김상걸(金尙傑), 부산.

이순백(李順白), 동래.

방흥복(方興福), 동래.

### 반인(伴人)

통덕랑(通德郎) 박진호(朴震豪).

부사맹(副司猛) 김홍조(金弘祖).

한량 김서문(金瑞門).

절충 김우삼(金禹三)

한량 변정서(卞廷瑞), 동래.

함유덕(咸有德), 동래.

### 병정(并定)<sup>78)</sup>

장지석(張之碩), 동래.

박동식(朴東植), 동래.

김엽기(金業基), 동래.

이만걸(李萬傑), 동래.

유동휘(柳東輝), 호방, 부산.

정순명(鄭順命), 부산.

### 서계색(書契色)

---

78) 병정(并定) : 접대하는 일을 맡은 인원을 가리킨다.

김익희(金益喜), 동래.

**도훈도(都訓導)**

김상정(金象鼎), 부산.

**상통사(上通事)**

백철동(白哲同) 초량(草梁).

**통사(通事)**

김험찰(金險札), 초량.

최세우(崔世佑), 초량.

추올만(秋五乙萬), 오일(五日),<sup>79)</sup> 초량.

고돌립(高石乙立), 부산.

**소동(小童)**

김삼걸(金三傑), 동래.

정윤보(鄭潤寶), 동래.

손봉취(孫鳳就), 부산.

박중태(朴重泰), 부산.

**예방색(禮房色)**

이만덕(李萬德), 고자(庫子).

박송제(朴松齊) 【오일고자(五日庫子)<sup>80)</sup>로 옮겨 차임한 것이다.】

**공방색(工房色)**

박월백(朴月白) 【호방색을 겸하였다.】, 고자(庫子).

**호방색(戶房色) 고자(庫子)**

---

79) 오일(五日) :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지 않다. 이 일기에서 ‘오일’은 ‘오일지공(五日支供)’을 연상시키

므로 이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추올만(秋五萬)은 이 일기 안에서 시종 통사로 거론된다.

80) 오일고자(五日庫子) : 5일마다 지공(支供)되는 물품을 출납하는 일을 맡은 자이다.

반전색(盤纏色) 고자

예단색(禮單色) 고자 【이상은 성책(成冊) 가운데에서 일행 중의 사람으로 채웠다.】

급창(及唱)

배분정(裵分貞), 부산.

도척(刀尺)

윤명이(尹命伊), 동래.

식척(食尺)

이배동(李培同), 동래.

상방 노자(上房奴子) 【좌수내포(佐須奈浦)에 이르러 주방고자(廚房庫子)에서 차출하였다.】

학립(鶴立).

잉질석(荇叱石).

몽령(夢齡)

부방 노자(副房奴子)

윤립(允立).

원석(元石).

사령(使令)

김을미(金五乙未), 동래.

김업선(金業先), 동래.

오원이(吳元伊), 우병영(右兵營).

정효봉(鄭孝奉), 우병영.

김득학(金得鶴), 좌병영(左兵營).

박후삼(朴厚三), 좌병영.

김치적(金致迪), 좌수영(左水營).

정이리산(鄭已里山), 좌수영.

### 포수(砲手)

이지휘(李枝輝), 통영(統營).

백팔십이(白八十伊) 좌수영.

### 사공(沙工)

최수명(崔守命), 통영.

### 무상(舞上)

강홍진(姜弘晉), 통영.

### 선공(船工)

김상만(金尙萬), 통영.

### 공인(工人)

원달(元達), 김해(金海).

정명산(鄭命山), 김해.

원천희(元天禧), 김해.

백천원(白千元), 김해.

김똥이(金屎伊), 김해.

### 격군(格軍)

당포(唐浦), 문원망(文元望).

옥포(玉浦), 서영휘(徐永輝).

천성(天城), 김철우(金哲右). 【수보선장(修補船匠)이다.】

가덕포(加德浦), 전돌이(田石只).

삼천포(三千浦), 이창운(李昌雲).

사량(蛇梁), 김처건(金處建).

적량(赤梁), 천개금(千介金). 【수선직(守船直)이다.】



평산(平山), 최의곤(崔義崑).  
 곡포(曲浦), 한선귀(韓善貴).  
 상주포(尙州浦), 고막실(高莫實).  
 미조항(彌助項), 김업동(金業同). 【화포장(火砲匠)이다.】  
 안골포(安骨浦), 정담사리(鄭淡沙里).  
 제포(薺浦), 이자선(李自善). 【병선색(兵船色)이다.】  
 조라포(助羅浦), 김이운(金以雲).  
 지세포(知世浦), 정애송(鄭愛松).  
 소을비포(所乙非浦), 공세운(孔世雲).  
 가배량(加背梁), 양선건(梁善巾).  
 율포(栗浦), 김몽석(金夢石).  
 귀산포(龜山浦), 박막남(朴莫男).  
 이상 84원의 명단 내에 왜인이 제공한 인원은 65인이다.

상상관(上上官)은 2원이고, 상관(上官)은 25원이며, 중관(中官)은 25인이고, 하관(下官)은 13명인데, 그 나머지 중하관(中下官) 19인은 급료가 없기 때문에 상관의 일공(日供)에서 채출(除出)하여 규례에 따라 분급(分給)하였다. 비록 평균(平均)이라고 하나 일이 매우 구차하다. 선배들이 왜인이 청한 바대로 곱혀 따라 마음대로 감액하였으니 이러한 후폐(後弊)를 끼친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 호행재판차왜(護行裁判差倭)<sup>81)</sup>

길천육랑좌위문(吉川六郎左衛門).

---

81) 호행재판차왜(護行裁判差倭) : 문위역관호행재판차왜(問慰譯官護行裁判差倭)를 가리킨다. 이는 문위역관호행차왜(問慰譯官護行差倭), 도해역관호행차왜(渡海譯官護行差倭)라고도 하는데, 문위역관(問慰驛官)을 호행(護行)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하는 일본 사신을 가리킨다. ‘재판’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일을 주관하는 차왜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재판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숙종 6년(1680)부터이고, 조선에서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숙종 7년부터이다. 『邊例集要 卷4 裁判』 ‘차왜’는 일본이나 대마도에서 연례적으로 조선에 보내던 사절(使節)과 달리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 또는 그 명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한 왜인을 가리킨다. 『增正交隣志 卷2 差倭』

### 봉진(封進)

율곡등병위(栗谷藤兵衛). 재판으로서 동선(同船)한 자이다.

### 전어관(傳語官)

화전중우위문(花田重右衛門).

### 금도(禁徒)<sup>82)</sup>

소전우평치(小田尤平治).

소전안평(小田安平).

### 사공(沙工)

미오병위(彌五兵衛).

시삼랑(市三郎).

청오랑(淸五郎).

이상은 우리 배에 함께 탄 자들이다.

### 대청봉행(大廳奉行)<sup>83)</sup>

인위정지승(仁位貞之丞).

길전안우위문(吉田安右衛門).

### 회괘(賄掛) 【오일차지(五日次知)이다. 마가내】<sup>84)</sup>

82) 금도(禁徒) : 금도왜(禁徒倭)로, 일본에서는 횡목(橫目), 목부(目付) 등으로 부른다. 왜관(倭館)에 배치된 금도왜의 종류와 인원수를 보면 도두금도(都頭禁徒) 1명, 도금도(都禁徒) 2명, 별금도(別禁徒) 4명, 중금도(中禁徒) 1명 등이며, 소금도왜(小禁徒倭) 10명은 정해진 수가 없었다. 『東萊府事例 倭館』 이 일기에서는 ‘도두금도’를 시종일관 ‘도도금도(都都禁徒)’라고 표기하였다.

83) 대청봉행(大廳奉行) : 여기서 ‘봉행’은 명령을 받들어 행한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대마도(對馬島)에는 모두 6인을 두었는데, 집안의 장자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아들이 이어받거나 세습이 끊기기도 한다. 『海行記 甲寅 4月 14日』 일본의 막부가 그 직할지나 사사(寺社)의 영유지의 행정과 사법(司法)을 담당하기 위해서 봉행이라는 직을 두어 배치했는데, 각 지방의 봉건 영주(領主)도 각 소지역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봉행 직책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84) 회괘(賄掛)……마가내 : ‘회괘’는 일본말에서 온 듯하고 ‘마가내’는 그 소리를 적은 듯하다. ‘회(賄)’에 해당하는 일본음이 마카나이(makanai)이다. ‘차지’는 담당한다는 뜻으로, 문위행의 인원들에게 5일마다 지급되는 오일지공(五日支供)을 담당함을 말한다. ‘오일지공’은 ‘오일하정(五日下程)’이라고도 하는데, 일

삼포치부우위문(三浦治部右衛門).  
 진류본우우위문(津留本 【尤右衛門】 ).  
 청수흥좌위문(清水興左衛門).  
 평산길좌위문(平山吉左衛門).

**대청 도도금도(大廳都都禁徒)**

평산향좌위문(平山鄉左衛門).  
 고기칠좌위문(高崎七左衛門)  
 호전상우위문(戶田常右衛門)

**전어관(傳語官)**

월치병위(越治兵衛).  
 소전사랑병위(小田四郎兵衛). 【함께 음.】

**선창 도도금도(船滄都都禁徒)**

평전권우위문(平田權右衛門).  
 굴판우위문(堀判右衛門).  
 고천이우위문(古川伊右衛門).  
 길송청우위문(吉松淸右衛門).  
 암기사랑삼랑(巖崎四郎三郎).  
 강구금칠(江口金七).

**좌수포 회괘(佐須浦賄掛)**

산전식우문(山田式右衛).  
 정수오랑병위(井手五郎兵衛).  
 사기희평차(寺崎喜平次).  
 광송무팔(廣松茂八). 【이상은 부중(府中)에 도착한 뒤에 접대한 자들이다.】

본의 풍속에 손님을 접대하는 예(禮)는 처음 5일 간의 양식을 주고, 5일이 지난 뒤에 다시 지급해서라고 한다. 하루 반미(飯米)의 수는 각각 역참에 모두 정해진 예(例)가 있고, 술, 간장 이하 모든 종류는 역참마다 각기 다른 산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수량의 더하고 덜함이 많았다고 한다. 『增正交隣志 卷5 下程』 ‘하정’은 사행을 접대하는 술이나 음식을 뜻하는 말이다.

반인(伴人), 군관(軍官), 서계리(書契吏), 수통사(首通詞), 도훈도(都訓導), 도사공(都沙工)은 상관이요, 그 나머지는 중관(中官)이며, 격군(格軍)은 하관(下官)이다.

## 계축년 12월

### 20일 정묘, 맑음

행선(行船)의 습의(習儀)를 위해 나와 족장(族丈) 여경(汝卿)씨,<sup>85)</sup> 숙부 사징(士徵),<sup>86)</sup> 및 군관 서후봉(徐後逢), 이순백(李順白), 김준익(金俊益), 방홍복(方興福), 박동식(朴東植), 이만걸(李萬傑), 장지석(張之碩), 김업기(金業基), 소동 정윤보(鄭潤寶), 고자(庫子) 박송제(朴松齊), 도척 윤명이(尹命伊)가 함께 부산의 숙소인 백시위(白是偉) 집에 가서 문안한 뒤에 그대로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다.

개운 만호 김군 세총(金君世聰), 박우 상눌(朴友尙訥)과 정담을 나눌 때에 병방(兵房)이 숙부께 초취(初吹), 이취(二吹), 삼취(三吹)<sup>87)</sup>를 아뢰므로, 나와 제공(諸公)이 배행(陪行)하여 선창에 이르렀다. 전배(前陪)의 기수(旗手)와 취수(吹手)는 으레 각 영(營)에서 정해 보내는데 아직 다 모이지 않아서 태반을 부산진(釜山鎭)에서 빌려서 썼다. 비록 정리되고 가지런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볼 만하니, 이는 국가의 은덕이 아님이 없는지라 감축하는 마음이 그지없었다.

배에 올라 장방(粧房) 위에서 좌정(坐政)<sup>88)</sup>한 뒤에 병방이 앉아서 취타(吹打)를 행하기를 아뢰어 취타를 마치고, 비장 등은 차례로 장방 아래에서 배알하여 좌우로 나뉘어 섰고 각 집사와 하인들 또한 차례로 머리를 조아렸다. 이를 마치고 크게 풍악을 늘어 비장 등으로 하여금 차례로 대무(對舞)하게 하고 나와 두 분 숙부는 장방 가운데에 앉아 술을 마시고 담소하며 배가 출발할 때를 기다렸다.

85) 족장(族丈) 여경(汝卿)씨 : ‘여경’은 그의 자(字)로 보인다. 문위행의 시종을 함께한 인물로 나오는데, 일행의 명단만 가지고는 확정하기 곤란한 듯하다.

86) 숙부 사징(士徵) : 반인(伴人) 명단에 있는 한량 김서문(金瑞門)을 가리킨다. 정관 김현문의 막내동생이자 김지남(金指南)의 5남이다. 따라서 이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두 숙부[兩叔]’는 지은이의 두 숙부인 문위행 정관 김현문과 김서문을 병칭하는 말이 된다.

87) 초취(初吹) 이취(二吹) 삼취(三吹) : 행군(行軍)에 있어 세 번에 걸쳐 나팔을 부는 의식이 있는데, 사행 때에도 이러한 나팔 소리에 맞춰 일정을 알리고 일깨우는 절차가 있는 듯하다.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 1798년 11월 20일 기사에, “꼭두새벽에 군뢰(軍牢)가 장막 밖에서 나팔을 부니 이는 이른바 ‘초취(初吹)’라 구인(驅人)이 다 말에 물을 먹이고, 이취(二吹)에 주방이 조반을 내오며 인마를 정제하고, 삼취(三吹)에 드디어 떠나니 여기서부터 북경까지 이렇게 하더라.”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88) 좌정(坐政) : 무슨 말인지 미상이나, 처음 배에 오른 만큼 각종 인원들의 임무에 대한 인건(人件)을 정하는 절차로 보인다.

그런데 역풍(逆風)이 크게 일어 흰 파도가 출렁이자 배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풍세(風勢)가 이러하므로 잠시도 배를 출발시킬 수 없습니다. 우선 바람이 순조로워지기를 기다린 뒤에 배를 출발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차왜(差倭)에게 바람이 순조로워지면 즉시 배를 출발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 풍세가 종일토록 순조롭지 못하였으므로 미시(未時)에 자리를 파하였다. 삼취(三吹)<sup>89)</sup>를 행한 뒤에 배행하여 배에 내려 숙소에 이르렀다. 숙부께서 머물러 유숙했기 때문에 숙주(叔主)<sup>90)</sup> 및 비장, 하인 등과 숙부께 하직하고 부(府)에 올랐다.

## 21일 무진, 맑음

풍세가 순조롭고 좋았기 때문에 닭이 처음 울 때에 미리 배를 출발시켜 초량(草梁)의 설문(設門)<sup>91)</sup> 안에 정박하였는데, 숙부께서 육로로 와서 배 위에 도착하여 어제와 같이 의식을 거행하였다. 왜인(倭人) 금도(禁徒), 통사(通事), 사공(沙工)에게 음식을 차려 술을 주고, 생원 권재운(權載運), 윤정 세화(尹正世和), 김정 정태(金正鼎台), 박정 필대(朴正弼大), 본부 비장 정일서(鄭日瑞) 또한 모두 와서 모였다고 한다. 이는 실로 성대한 모임인데 나는 한기(寒氣)에 노출되어 몸이 아팠으므로 나아가 참석할 수 없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러웠다.

훈도(訓導) 한찬흥(韓纘興)은 술 5병과 오리 5마리를 보내주었는데 공무 때문에 와서 모일 수 없었다. 별차(別差) 김정균(金鼎均)이 배가 정박한 곳에 와서 세 번 교판(橋板)을 올렸으나 반도 오르지 못하고 어지럼증 때문에 다리가 떨려 끝내 올라오지 못했다고 하였다. 듣고는 매우 우스웠지만 김공의 노쇠함을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숙부 사징(士徵)은 어제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인연이 있는 것이다.

89) 삼취(三吹) : 예전에, 군대가 출발할 때 세 차례 나팔을 불던 일인데, 여기서는 문위행(問慰行)이 길을 나설 때의 행하는 의식이다. 52쪽 주 87) 참조.

90) 숙주(叔主) :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세하지 않다. 1733년(영조9) 12월 20일에 등장하는, 김현문(金顯門)이 부산에서 묵었다고 나오는 집의 주인인 백시위(白是偉)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91) 설문(設門) : 왜인들이 바깥으로 나가 초량(草梁)의 민가에 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문이다. 『增正交隣志 卷3 館宇』

## 갑인년(1734, 영조10), 정월 작은달

### 초9일 병술, 맑음

이른 아침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 노야(鄭老翁)<sup>92</sup>와 접위관(接慰官) 권 노야(權老翁)께 들어가 인사하였다. 두 노야의 은근한 정이 평소보다 갑절이어서 몸조심하라는 뜻을 자세히 타일러 말하니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식사를 한 뒤에 족장 여경씨(汝卿氏) 및 박동식(朴東植), 이만걸(李萬傑)과 함께 부산의 숙소에 내려와 문안한 다음, 이어 잡물(雜物)을 점검하였다. 어두워진 뒤에 현중거(玄仲舉)가 와서 집에서 보낸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집안사람들의 안부가 별탈이 없었기에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 초10일 정해, 맑음

축시(丑時)에 영가대(永嘉臺)<sup>93</sup>에서 기풍제(祈風祭)를 거행하였는데, 변정서(卞廷瑞)를 대축관(大祝官)으로, 유동휘(柳東輝)와 최섬(崔暹)을 집사(執事)로, 김준익(金俊益)을 전사관(典祀官)으로, 김상걸(金尙傑)을 척기색(滌器色)<sup>94</sup>으로, 박동식(朴東植)을 알자(謁者)로, 방흥복(方興福)을 찬자(贊者)로, 이만걸(李萬傑)을 봉로(奉爐)로, 정순명(鄭順命)을 봉향(奉香)으로, 김득해(金得海)를 재랑(齋郎)으로 삼았다. 제물(祭物)은 돼지 1마리,

92) 동래……노야(老翁) : 정래주(鄭來周, 1680~1745)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내중(來仲), 호는 동계(東溪)이다. 1705년(숙종 31)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 영해 부사(寧海府使)를 지내다가 1733년(영조9) 2월 동래 부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4월 28일에 후임 이흠(李滄)이 하직한 기록이 보이므로, 문위행(問慰行)이 대마도에서 돌아와 보고할 때까지 동래 부사 직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 英祖 9年 2月 8日, 10年 4月 28日』

93) 영가대(永嘉臺) :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었다. 1614년(광해군6) 경상도 순찰사 권반(權盼)이 부산진성(釜山鎭城) 근처 해안에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이때 바다에서 퍼 올린 흙이 쌓여 작은 언덕이 생겼고, 이곳에 나무를 심고 정자를 만들었다. 1617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던 오윤겸(吳允謙)이 이곳에서 일본으로 출발한 이후 통신사행은 줄곧 이곳에서 해신제(海神祭)를 올리고 일본으로 떠났다. 정자의 이름은 1624년(인조2) 선위사 이민구(李敏求)가 일본 사절을 접대하기 위하여 부산에 파견을 나갔다가 이 정자를 보고 권반의 고향 안동의 옛 지명인 영가(永嘉)를 따서 붙여진 것이다.

94) 척기색(滌器色) : 제기(祭器) 씻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떡 1시루, 밥 3기(器), 산적 1기, 탕(湯) 3기, 과일 5기, 포(脯) 1기, 젓갈 1기, 채소 1기, 술 3작이다. 폐백은 백목(白木) 12자이다. 【상자에 담았고 주척(周尺)을 썼다.】 위판(位版)은 종이로 만들었는데 큰 글씨로 ‘대해지신(大海之神)’이라고 썼다.

위판을 봉안한 뒤에 알자가 헌관(獻官) 이하를 이끌어 모두 문밖의 자리에 나아갔다. 알자가 축관 및 집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제단(祭壇) 남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쪽으로 서서 사배(四拜)했다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각 자리에 나아갔다. 집사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잔을 씻고 닦아 잔대 위에 두자, 알자가 헌관을 이끌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갔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어 졌으니, 일을 거행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 물러나 자리에 되돌아갔다. 헌관이 사배하고 진폐례(奠幣禮)를 행하자, 알자가 헌관을 이끌어 관세위에 나아가니, 헌관이 북향하고 서서 손을 씻은 뒤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신위의 앞으로 나가 북향하여 꿇어앉았다. 음악을 연주하고 세 번 향을 올리자, 축관이 폐백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폐백을 집어서 축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하였다. 부복(俯伏)했다 일어서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니, 음악이 그쳤다. 축관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東向)하여 꿇어앉고서 축문을 아래와 같이 읽었다.

유세차 갑인년(1734, 영조10) 정월 무인삭(戊寅朔) 10일 정해(丁亥)에 문위관(問慰官) 절충장군행용량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김(金), 통훈대부전사역원정(通訓大夫前司譯院正) 박춘서(朴春瑞), 선장(船將) 출신 서후치(徐後穉)가 경건히 하룻밤 재계하여 감히 대해(大海)의 신에게 밝게 고합니다.

충신을 의지하면	忠信之仗
지극히 험한 길도 평탄히 밟고	至險坦履
정직함을 지키면	正直之守
밝은 신명이 살펴보네	明神鑑視
허연 칼날을 웃으며 보고	笑睨白刃
누런 금을 흙덩이처럼 보니	土看黃金
우러러 창천에 질정하고	昂質倉旻



적성(赤誠)에 의지해 맹세하네	倚誓赤心
만리 바닷길을 작은 배로 가는데	一葦萬里
감히 고생스러움을 꺼리겠는가	敢憚辛苦
신하의 직분에 당연하니	臣職當然
왕사를 견고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네	王事靡盬
희생과 미주(美酒)를 이에 갖추어	牲醑式蕝
인자함으로 보살피 주기를 바라니	仁隲是祝
바람과 파도를 무사히 건너면	風濤利涉
사명에 욕됨이 없으리	使命無辱
부디 흠향하소서	尙饗

동래 부사 정 사군(鄭使君)<sup>95)</sup> 【래주(來周)이다.】 이 지은 것이다. 부복했다 일어난 뒤 몸을 바르게 펴고 이끌고 내려와 자리로 되돌아갔다. 음악이 울려 헌관이 사배하니, 음악이 그쳤다. 아헌관(亞獻官)과 삼헌관(三獻官)도 위와 같이 거행하니,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예를 마칩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헌관을 이끌고 나갔다. 알자가 축관과 여러 집사를 이끌고서 함께 제단 남쪽의 배위(拜位)에 되돌아가고 축관이 하가 모두 사배하였다. 알자는 집사를 이끌고 나가 위판(位版)을 태우고 축관은 축문을 태웠다. 폐백, 밥, 시생(豕牲)은 전사관(奠祀官)이 해항(海港)의 입구로 가지고 나가 바닷물에 던졌다. 이날 상스러운 바람이 잔잔하고 일색(日色)이 청량하니, 이것이 어찌 우리 숙부님과 여러 집사가 정성을 바친 결과가 아니겠는가. 나는 몸에 병이 들어 참석할 수 없었기에 마음이 몹시 서운하였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본부의 수검비장(搜檢裨將) 박경학(朴經學)이 내려와서 재촉하였기 때문에 공사(公私)의 잡물을 모두 꺼내었는데 박장 신재(朴丈信哉)씨, 현장 도이(玄丈道以)씨 및 5, 6인의 출사(出使)한 적이 있는 여러 벗들이 일시에 함께 왔다. 본부의 기생들 또한 이르러 왔기 때문에 크게 풍악을 벌여 기녀(妓女)들로 하여금 쌍쌍으로 대무(對舞)하게 하였다. 숙부를 모시고 앉아 문위행의 절차를 아뢰어 정하고 있을 때에, 병방과 도훈도(都訓導)가 세 차례 와서 아뢰었다. 그런데 서울의 여러 벗들이 숙

95) 정 사군(鄭使君) : 정래주(鄭來周)이다. 54쪽 주 92) 참조.

부를 송별하기 위하여 화선(畫船)과 무동(舞童)을 성대히 갖추고서 부산의 대변청(待變廳)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므로, 선창으로 곧바로 갈 수 없어 그곳으로 모시고 갔다.

현(玄)·박(朴) 두 어른이 먼저 도착하였고, 현계심(玄季深), 황성응(黃聖應), 윤화숙(尹和叔), 김여화(金汝和), 박군석(朴君碩), 현중거(玄仲舉), 박민보(朴敏甫), 황대이(黃大而) 제군 및 본부의 비장 김언중(金彦重), 이채휴(李采休) 두 사람 또한 와서 모였다. 여러 기생들이 행선(行船)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어부사(漁父詞)」를 불렀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으므로 현·박 두 어른과 인사하고 이별하였다. 현도이(玄道以) 어른이 나의 손을 잡고 은근한 정을 보이며 송별하는데 몸조심하라는 뜻으로 재삼 부탁하였고, 현계심 등 제군과 김(金)·이(李) 두 사람과 함께 악수하며 서로 이별하니, 이때에 가고 머무는 마음을 견디기 어려웠다. 게다가 나는 임자년(1732, 영조8) 4월에 배종하여 내려왔다가 그대로 바다를 건너는 여정에 오르게 되었으니, 서글픈 회포가 남보다 갑절이나 된다.

숙부를 모시고 선창에 이르니 동래와 부산의 여러 친구들이 와서 전송하였고, 본부의 기생 추향(秋香), 양개(仰介), 발역이(勃亦伊), 명금(命今), 익랑(益娘), 귀재(貴才), 걸녀(傑女), 무의(無疑), 내일(來日), 봉화(鳳花) 등 여러 명이 일제히 와서 모여 은근하게 송별하는데 더러 눈물을 떨구기까지 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마음이 사랑스러웠다. 신시(申時)에 숙부를 모시고 배에 올랐는데 조수가 물러가 물이 얕았기 때문에 닻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 11일 무자, 맑음

축시(丑時)에 조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거정포(擧碇砲)<sup>96</sup>를 쏜 뒤에 그대로 닻을 펼쳐 왜관의 선창 밖에 이르니 풍세가 잔잔해져 전진할 수 없었다.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는 다음날 바람이 순조롭기를 기다렸다. 오후에 별일대관(別一代官) 춘일귀죽우위문(春日龜竹右衛門)이 숙부께 합찬(盒饌)을 보내어 올리기에, 안전(案

96) 거정포(擧碇砲) : 배를 출발시킬 때 쏘는 포를 말한다.

前)의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날 밤에 사방의 운예(雲翳)가 걷혀 달빛이 낮과 같았는데 마음이 서글퍼 달빛 아래를 걷고 싶은 마음<sup>97)</sup>을 견디기 어려웠다. 한참 동안 배회하다가 밤이 깊은 뒤에야 소동 정윤보(鄭潤寶)와 함께 장방에서 묵었다.

## 12일 기축, 맑음

자시(子時)와 축시(丑時)에 서북풍(西北風)이 극도로 순조로웠다. 진시(辰時)에 재판(裁判)이 통사왜(通事倭) 중우위문(重右衛門), 금도왜(禁徒倭) 소전우평치(小田尤平治), 소전안평(小田安平)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날씨가 청량하고 바람이 순조로워 배를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선장에게 분부하여 포를 쏘고 닻을 올리며 돛대를 펼쳐, 재판기복선(裁判騎卜船)과 함께 곧바로 대마도(對馬島)로 향하였다. 배 안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물살이 이처럼 안온한 적이 이전에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배가 물의 한복판에 이르자 구토하고 쓰러지는 자가 태반을 넘었다. 만약 바람이 맹렬하고 파도가 격렬해지면 물에 익숙한 자 외에는 반드시 정신을 차릴 사람이 없을 것이니, 바닷길의 위험함을 이를 통해 알 만하였다.

물마루에 이르러 내가 뱃머리에 가서 사방을 시원스레 바라보았다. 푸른 파도가 출렁이고 구름과 물이 서로 연결한 것이 몇 만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흡사 천지간에 다시 다른 사물이 없는 것과 같았다. 안계(眼界)가 광활하고 흥금이 쇠락하니, 저 흥진 속 만 갈래의 번거롭고 자잘한 속박을 돌아봄에 저도 모르게 부끄럽고 무안하였다.

대마도와 100여 리 떨어진 곳에서 물살이 점점 급하여 배가 화살처럼 나아가는지라, 나 또한 눈앞이 아른거리고 다리가 떨려 오래 서 있을 수 없었다. 잠시 장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고 편안히 누워 정신을 수습할 때에 배의 사람들이 거의 물에 도착했다고 알려 주므로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보았다. 대마도가 하나의 산으로 거대한 물결 가운데에 횡으로 빠져 있는 것이 마치 물과 더불어 부침하는 듯하니, 옛사람이 이른바 ‘자라

97) 달빛……마음 : 고향집이 몹시 그리운다는 말이다. 두보(杜甫) 시 「한별(恨別)」에, “고향 집 생각하며 달빛 아래 거닐다 맑은 밤에 서 있고, 아우를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노라.[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卷4』

가 산을 등지고 있다.’<sup>98)</sup>라는 말이 과연 빈말이 아니었다.

좌수포(佐須浦 좌수내포(佐須奈浦)) 선창에 들어가 포를 쏘고 돛을 내리자, 도주(島主)가 도도금도(都都禁徒) 진강권평(津江權平)으로 하여금 뱃머리에서 문안하게 하였다. 미시(未時)에 물에 내렸는데 상관(上官) 이하는 으레 수검(搜檢)하는 일이 있으므로 금도청(禁徒廳) 앞에 각각 상관과 중관의 자리를 설치하여 차례대로 열을 지어 세운 뒤에 금도왜 1인이 잠시 옷 위를 어루만졌는데,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들은 바와 크게 달랐다. 나 또한 상관으로서 장차 그 해괴한 일을 당할 것이므로, 즉시 통사왜 광송무팔(廣松茂八)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반인(伴人) 상관으로 이곳에 왔지만 바로 문위 정사(問慰正使)의 친조카입니다. 뜰에 세워서는 안 되고 의당 참작할 방도가 있어야 하니, 이러한 뜻을 재판과 도도금도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광송무팔이 달려가 그 말을 전달하자, 재판과 도도금도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애초에 정말 몰랐고 지금에야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고 의당 변통할 방도가 있어야 하겠으나, 수검하는 한 가지 일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규례이므로 또한 중지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청 위로 와서 규례에 따라 행한다면 피차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저들의 말이 이미 이와 같으니, 생각건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소동 정윤보와 함께 대청 위로 나아갔다. 여러 왜인과 서로 인사를 마친 뒤에 금도 1인이 몸을 약간 어루만져 책임치레를 하고 그만두었다. 저들이 예(禮)로 대우함은 가상하다마는 끝내 법을 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또한 몹시 고무하였다.

하례(下隸)와 격졸(格卒) 등이 수호대로 수검을 받은 뒤에 숙부의 전배가 군물(軍物), 악기, 승교(乘轎), 장개(張盖)를 배에서 물으로 내렸다. 재판 육량좌위문(六郎左衛門)과 대목부(大目付) 육지진(六之進) 및 도도금도 복전전칠(福田傳七)이 일제히 당에서 내려오자 숙부가 가마에서 내려 상견례를 행하였는데, 예의(禮意)가 공손하였다. 상견례를 마친 뒤에 그대로 관소(館所)로 향했다. 일행 가운데 이 여행을 서너 번 경험한 자가 5,6인이 있었는데 모두 말하기를 “전에 문위행을 왔을 때에 상상관(上上官)이 물에 내

98) 자라가……있다 : 마치 산이 바닷가에 솟아 있는 것과 같음을 형용한 것이다. 옛날 발해(渤海) 동쪽의 다섯 신산[五神山]이 과도에 떠밀리자, 상제(上帝)가 다섯 마리의 자라로 하여금 자라 등[鰲背]으로 이를 떠받치게 했다는 전설에서 온 말이다. 『列子 湯問』

렸으나 여러 금도왜들이 예모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결같이 수검(搜檢)을 일삼고 조금도 예로 대우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이번은 일마다 이렇게 하니, 융숭한 예모에 마치 귀한 보배를 얻은 듯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관소에 나아간 뒤에 저 사람들이 상상관 이하에게 술과 음식을 올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나는 상관들과 함께 한곳에 모여 담소하며 실컷 먹고 마셨는데, 악공(樂工)으로 하여금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게 하여 무사히 물을 건넌 경사를 축하하고, 그대로 묵었다. 이날 180리를 운항하였다.

### 13일 경인, 맑음

복물(卜物)을 수검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고 삼취(三吹)를 행한 뒤에 배행(陪行)하여 금도청(禁徒廳)에 이르렀다. 배 안의 물건을 모두 꺼내어 소금도(小禁徒) 등으로 하여금 힘껏 수검하게 하여 일행이 청백(清白)하여 의심스러움이 없음을 보이면서 숙부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얼마 뒤 왜인들이 말하기를 “오늘 복물을 실어 옮겨 올 때에 쌍방의 여러 사람이 서로 왕래하였으므로 다시 수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관 이하부터 하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다시 수검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금도 등이 전어관(傳語官)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존공(尊公)은 다른 사람과 다르므로 거론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시종일관 예로써 대우해 줌을 대개 생각할 수 있었다.

풍악을 크게 펼쳐 김업기(金業基), 박동식(朴東植), 이만걸(李萬傑), 최섬(崔暹)으로 하여금 대무(對舞)하게 하고, 또 재인(才人) 원천희(元天禧)로 하여금 ‘학시회두(鶴趨回頭)’, ‘입월공문(立越空門)’<sup>99)</sup> 등의 각종 재주와 기예를 차례로 보여 주게 하였다. 그리고 악공 원달(元達)은 본래 늙은 창부(倡夫)로 희학(戲謔)을 잘하는 자였는데, 북에 맞춰 춤을 추면서 혹은 맹인의 모습을 하고 혹은 난장이의 모습을 하였다. 눈을 부라리고 코를 벌렁거리며 목을 움츠리고 팔을 펴는 등의 기괴한 몸짓을 하지 않는 바가 없으므로 이쪽과 저쪽의 구경꾼 가운데 포복절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또한 한가함을

99) 학시회두(鶴趨回頭) 입월공문(立越空門) : 모종의 기예를 일컫는 말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달래는 한 가지 방도였다.

대화하는 중에 대목부(大目附) 【대목부는 수금도(首禁徒)이 칭호이니, 도도금도의 윗 자리에 해당한다고 한다.】 가성육지진(加城六之進)이 자리에 있었는데 피차가 얼굴이 익숙하였지만 깨닫지 못했다. 얼마 뒤에 가성육지진이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작년에 고경사(告慶使)가 나갔을 때에 제가 도선주(都船主)<sup>100</sup>로서 귀국(貴國)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혹시 서로 대면한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계축년(1733, 영조9) 여름에 새 도주가 자리를 이어받아 경사를 알리는 일행에 이름이 송지조(松之助)라는 나이 어린 자가 있었는데 바로 차왜(差倭)의 당종(堂從)이었다. 병에 심하게 걸려 거의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내가 우연히 터득한 의술(醫術)을 베풀어 시원하게 소생하니, 차왜가 그 구해준 덕에 깊이 감사하여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대접해 준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마침 이 사람과 대면하여, 지금 대해(大海)의 밖으로 나와 서로 해후하니, 또한 기쁘고 위로되기에 충분하였다. 가성육지진이 정성스럽게 접대하고 또 말을 전하기를 “존공이 이미 이곳에 오셨습니다. 무릇 일을 주관하시는 일 중에 저와 관계되는 것을 즉시 전하여 알려 주신다면 마땅히 힘을 다해 주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비록 다 믿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예로 대우하는 뜻은 가상하였다. 신시(申時)에 숙부를 모시고 관소에 나아가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이날부터 비로소 일찬(日饌)과 오일지공(五日支供)<sup>101</sup>을 받았다.

상상관(上上官)에게 매일 지급되는 찬품[日饌]은, 생어(生魚) 1자 2치, 두부[造泡] 1자 5치, 생무[生菁] 10본, 미나리[芹菜] 3단(丹), 생파[生葱] 3단, 배추[白菜] 반근, 담배[南草] 1냥 2전이다.

상상관에게 5일마다 지급되는 찬품[五日支供]은 백미(白米) 15수두(水斗), 술 15수두, 감장(甘醬) 5수두, 청장(淸醬) 2수두, 참기름[眞油] 2수두, 소금 6수두, 식초 1수두, 생강 1수두, 꿀[淸蜜] 3냥 2전, 표고버섯[魷古] 4수두, 산 닭[活鷄] 5마리, 산약(山藥) 4수두, 겨자[芥子] 4홉, 말린 고등어[乾古道里] 2조(條), 방어(方魚) 2마리, 계란 15개, 산초(山

100) 도선주(都船主) : 공무를 띠고 조선에 파견된 일본 선박의 담당자로, 여러 선주(船主)들 가운데 우두머리이거나 혹은 정관(正官)이나 부관(副官)이 승선하지 않은 배의 우두머리이다.

101) 오일지공(五日支供) : 문위행 인원들에게 5일마다 지급받는 물품이다. 49쪽 주 84) 참조.

椒) 2홉, 낭자(莢子) 2홉, 돼지다리 5족, 염장 무[鹽菁] 15본, 생포(生鮑) 15개, 초[燭] 15병(柄)이다.

상관(上官)에게 매일 지급되는 찬품은, 생어 1마리, 두부 7치, 생무 5본, 미나리 2단, 생과 2단, 남초 2전 7푼이다.

상관에게 5일마다 지급되는 찬품은, 백미 10수두, 술 10수두, 감장 1수두 반, 소금 2수두, 청장 1수두, 식초 7홉 5작, 참기름 3홉 3작, 산 닭 2마리 반, 방어 7홉, 생포 6개, 미역[藷] 3홉 3작이다.

중관(中官)에게 매일 지급되는 찬품은 생어 5치, 생무 2본, 미나리 1단이다.

중관에게 5일마다 지급되는 찬품은 백미 7수두 반, 술 1수두 반, 감장 4홉 3작 5리(里), 소금 1홉 6작, 방어 7작, 돼지다리 2홉, 건어(乾魚) 2미, 미역 5작이다.

하관(下官)에게 5일마다 지급되는 찬품은 백미 5수두, 술 1수두, 감장 4홉 3작, 소금 1홉 5작, 방어 7작, 돼지다리 2홉, 건어 1마리 반, 미역 5작이다.

상상관과 여러 상관의 소[牛] 값인 은(銀) 3냥은 부중(府中)에 도착하면 지급한다고 하였다.

## 14일 신묘, 맑음

풍세가 순조롭지 못해 배를 출발시킬 수 없기에 마음이 몹시 울적하였다. 일행 중 서너 사람과 뜰 아래를 배회하며 산보하였는데 문득 문밖에서 시끄럽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함께 가서 보니 관소(館所) 가운데 사환왜(使喚倭) 1인이 북치고 춤추는데 모습이 매우 기괴하였다. 내가 악공 원달(元達) 등으로 하여금 풍악을 성대히 울리게 하고 솟구쳐 뛰어오르게 하니, 그 왜인이 한번 용약(踊躍)하여 춤춘 뒤 발이 없는 쟁반 2개를 급히 찾았다. 나와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즉시 구하여 줬더니 그 왜인이 자리 위에 두 쟁반을 두고는, 몸을 빼고 팔을 펴며 말 한 마디에 춤 한 차례씩 추었다. 남만격설(南蠻駭舌)이라 비록 이해할 수 없었으나 아마도 우리나라 배우들의 축사(祝辭)와 같은 것이었으리라. 잠깐 사이에 양 손바닥 위에 두 쟁반을 움켜 두는데, 좌우로 돌리다가 상하로 뒤집고, 뒤집었다 다시 뒤집으며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왼쪽 손바닥의 쟁반이 오른쪽 옆구리 뒤에서 나오고 오른쪽 손바닥의 쟁반이 왼쪽 옆구리의 뒤에서 나오는데, 출몰하고 오르내리는 데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서 마치 아

교와 풀로 달라붙게 한 듯하니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 이 땅 사람들의 성품이 공교함을 대개 알 만하였다.

날이 저문 뒤에 두 분 숙부 및 비장 등과 함께 뱃머리로 나가 음악을 연주하여 흥을 풀었다. 밝은 달 하나가 섬의 산 위로 솟아오르자 그림자가 창해(滄海)에 들어가고 물색(物色)이 맑고 깨끗하여, 이 몸이 천 리 창과 밖의 이역에 있는 줄을 완전히 잊었다. 왜인들이 문을 닫는다고 알리므로 악대(樂隊)로 하여금 앞을 인도하여 관소에 나아가게 하였는데, 그대로 과하지는 않고 비장청(裨將廳)으로부터 아래 통사(通事)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대무(對舞)하고 흥취를 다 푼 뒤에 그만두었다. 【집으로 보내는 일행의 편지를 비선(飛船)<sup>102)</sup> 편에 보내는 차에, 함께 봉(封)하여 밖으로 나가 전어관 사랑병위(四郎兵衛)에게 주었다.】

### 15일 임진, 흐림

축시(丑時)에 망하례(望賀禮)<sup>103)</sup>를 거행하였다. 아침 식사를 할 때에 재판이 전어관 중우위문(重右衛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금일 배를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진시(辰時)에 배를 출발시켜 좌수내포(佐須奈浦)의 항구를 나섰더니, 동남풍이 크게 일어 돛을 걸 수 없었다. 이에 격군(格軍) 등으로 하여금 노질을 하도록 하고, 왜소선(倭小船) 수십 척이 좌우로 나누어 늘어서서 밧줄을 이어 연결해 배 한 척마다 노 대여섯을 써서 일제히 노를 오르내리니 그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지만, 풍세가 순조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선(騎船)의 몸체가 컸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전진하였다.

악포(鰐浦) 【좌수내포(佐須奈浦)에서 30리이다. 왜어(倭語)로 완누라이다.】<sup>104)</sup>에 이르자,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려 집사들의 의복이 다 젖었다. 사후왜선(伺候倭船)을 급히 불러, 비가 내리는 형세가 이와 같으니 우선 머물러 정박하자는 뜻을 재판에게 전하였

102) 비선(飛船) : 작고 속력이 빠른 배로, 대마도 및 관왜(館倭)의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왕래하던 일본의 연락선을 말한다. 1척마다 우두머리 1명에 격군 6, 7명이 타며 항상 허가증을 지내고 왕래하는데, 공궤(供饋)는 없다.

103) 망하례(望賀禮) : 삭망 하례(朔望賀禮)로, 수령이 초하루와 보름에 전패(殿牌)에 절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104) 악포(鰐浦)……완누라이다 : ‘악포’의 당시 음을 ‘완누라’로 적었는데, 현대 일본어음은 ‘와니우라(waniura)’이다. ‘좌수내포(佐須奈浦)’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사스나우라(sasunaura)’이다.



더니,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10리 거리에 있는 땅이 바로 풍기(豊崎)인데 【도이사기이다.】 105) 극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만약 바람이 맹렬하고 물결이 출렁인다면 비록 여기에 몇십 일을 머물더라도 결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남풍이 비록 순조롭지는 않지만 물살이 안온하여 물결 하나 출렁이지 않으니, 이는 실로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또한 심히 이치에 맞아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풍기를 바라보니 돌부리가 뾰족하여 우뚝이 높이 솟은 것이 삼의 줄기처럼 뻑뻑하였다. 또 긴 성과 같은 점이 있었는데, 푸른 물결 사이에서 나왔다 사라졌다 하며 동서로 걸쳐 뻗었으니,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사공(沙工) 및 같은 배에 있는 왜사공이 모두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연일(延日)106)의 강길곶(江吉串)까지 이어져 뻗칩니다.”라고 하니, 이를 통해 살펴보면 비록 천리의 창해에 막혀 있더라도 산천의 맥은 실로 한 줄기인 것이다.

중간에 겨우 몇 척의 배를 수용하는 문처럼 생긴 곳이 있으므로, 왜선 2척이 미리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양쪽 곁에서 나누어 서서, 길을 인도하여 편안히 지나가게 하니 이보다 다행스러움이 없었다. 비가 점점 개고 풍세가 점점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노질을 하면서 배를 끌어, 서박포(西泊浦) 【이신도마리이다.】 107)에 도착해 정박하니, 날은 이미 황혼이 드리웠다. 도주(島主)가 길전우창(吉田又倉)으로 하여금 문안하게 한 뒤에 상방(上房)과 부방(副房)108)에 각각 삼중(杉重)109)과 제백(諸白)110) 【술 이름이다.】 을 올리므로, 배 안의 상하 인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좌수내포에서 서박포에 이르기까지 70리 사이는 산세가 우뚝하고 수목이 울창한데, 산을 파내어 골짜기를 메워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이 수풀들 사이에 은은히 비치니, 바

105) 풍기(豊崎)인데 도이사기이다 : ‘풍기’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토요사키(toyosaki)’이다.

106) 연일(延日) : 경상도 영일(迎日)을 말한다.

107) 서박포(西泊浦) 이신도마리이다 : ‘서박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니시토마리노우라(nisitomarinouura)’이다.

108) 상방(上房)과 부방(副房) : ‘상방’은 정관 김현문(金顯門)이 머무는 곳이고, ‘부방’은 부관 박춘서(朴春瑞)가 머무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109) 삼중(杉重) : 삼나무 판으로 3층의 찬함을 만들어 그 안에 떡·과자·술안주·반찬 등을 담아 놓은 것이다.

110) 제백(諸白) : 흰쌀과 흰 누룩으로 빚은 일본의 고급 청주이다.

라보면 그림 가운데의 그림과 같아 참으로 볼 만하다. 남녀노소의 왜인들이 각각 작은 배를 타고 와 구경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왜인 여자는 입을 옷이 왜인 남자와 다름이 없었고 단지 칼을 차지 않았으며 머리를 깎지 않고서 설면자(雪綿子)로 머리를 감았는데 턱 밑에 이르러 묶었다.

그런데 혹 치아를 검게 물들인 자가 있고 혹 물들이지 않은 자가 있는데, 보자니 몹시 괴이하였다. 전어관 중우위문(重右衛門)에게 그 곡절을 물어보니, 말하기를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유래하는 법도입니다. 남편이 있는 자는 검게 물들이고 처녀와 창녀(娼女)는 물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옷의 성질이 매우 독한데 만약 치아를 물들이다가 중독이라도 되면 이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중우위문이 웃으며 답하기를 “존공은 기실 알지 못합니다. 어찌 옷을 쓰겠습니까. 수철(水鐵)을 파쇄하여 술 속에 가라앉혀, 그 액(液)을 취하여 입을 헹구면 옷칠한 것처럼 검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남편이 있으면 치아를 검게 물들이고 남편이 없으면 치아를 물들이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이는 옛 법도인데,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비록 그 당초의 주된 뜻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몹시 괴이하였다. 【좌수내포에서 악포(鰐浦)까지가 30리이고, 악포에서 풍기(豐崎)까지가 10리이며, 풍기에서 서박포까지가 30리이다.】

## 16일, 계사, 잠깐 흐렸다 잠깐 만에 맑아짐

사시(巳時)에 서박포(西泊浦)에서 배를 출발시켜 곧바로 항구를 나왔더니 동풍(東風)이 극도로 순조로웠기 때문에 포를 쏜 뒤 쌍돛을 일으켜 세워 물결을 따라 나아갔다. 비록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큰 물결이 서로 부딪혀 오르락내리락하며 회전하니, 창문과 난간이 편편(片片)히 메아리치고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심신이 두근두근 놀라 온갖 생각이 모두 없어지니, 지자(智者)가 물을 좋아함이 아무래도 인자(仁者)가 산을 좋아함만 못하다.<sup>111)</sup>

111) 지자(智者)가……못하다 : 사행의 바닷길이 너무 위험하여 물이 꺼려진다는 뜻을 과장되고 해학적으로 한 말로 나타낸 것이다. 『논어』 「옹야(雍也)」에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知者樂水, 仁者樂山.]”라고 한 말을 원용하였다.

부포(富浦), 【도미가우라이다.】<sup>112)</sup> 당주지포(唐舟志浦), 【두지우시우라이다.】<sup>113)</sup> 금포(琴浦), 【긴우라이다.】<sup>114)</sup> 소마포(小麻浦)·일중포(一重浦), 【오시세우라와 히도에우라이다.】<sup>115)</sup> 지다하포(志多賀浦), 【시라가우라이다.】<sup>116)</sup> 좌하포(佐賀浦), 【사가우라이다.】<sup>117)</sup>를 지나 유시(酉時)에 뇌호내(瀨戶内) 【셔도노우시이다.】<sup>118)</sup>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좌우로 펼쳐진 섬의 산이 거둑 겹치고 층층이 이어졌는데, 푸른 소나무와 취색의 잣나무가 울창하여 깊고 그윽하였다. 그 밖의 화훼(花卉)와 기이한 풀들이 뻗뻗하고 푸르게 자라나 있었으며 돌 여울은 위험하고 갈라진 물길은 잡란한데 수많은 선박을 감추어 둘 수 있었다. 두 봉우리가 우뚝이 선 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마치 담장에 문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로 겨우 배 한 척이 지나갈 수 있는 뱃길이 있었으니, ‘뇌호(瀨戶)’라는 이름은 아마 이 때문이리라.

부지런히 운행하여 뇌호의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파른 푸른빛의 석벽에 돌 빛깔이 그린 것과 같아 마치 병풍을 펼친 듯한데 바람은 고요하고 물결은 편안한 것이 진실로 대마도의 첫째가는 승경지였다. 그 옆으로 앞쪽에 작은 돌문을 세운 옛 사당 하나가 있었는데, 돌문이 중국(中國)의 패루(牌樓)<sup>119)</sup> 모습과 같았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옛날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름이 주길(住吉)인 자가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이곳에서 모친을 잃고는 너무 애절하게 통곡하였기 때문에 물이 다 붉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곳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사당을 세웠는데 영험(靈驗)이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렸는데 금도가 지공(支供)하였다. 여러 사

112) 부포(富浦) 도미가우라이다 : ‘부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토미우라(tomiura)’이다.

113) 당주지포(唐舟志浦) 두지우시우라이다 : ‘당주지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토우주시우라(toujusiura)’이다.

114) 금포(琴浦) 긴우라이다 : ‘금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코투우라(kotoura)’이다.

115) 소마포(小麻浦)일중포(一重浦)……히도에우라이다 : ‘일중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히도에우라(hitoeura)’이다.

116) 지다하포(志多賀浦) 시라가우라이다 : ‘지다하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시타카우라(sitakaura)’이다.

117) 좌하포(佐賀浦) 사가우라이다 : ‘좌하포’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사가우라(sagaura)’이다.

118) 뇌호내(瀨戶内) 셔도노우시이다 : ‘뇌호내’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음은 ‘세투우치(setouchi)’이다.

119) 패루(牌樓) : 중국에서 큰 거리에 길을 가로질러 세우던 시설물이나 무덤과 공원 어귀에 세우던 문을 가리킨다.

후왜선(伺候倭船)은 산 옆의 나무에 의지하여 사방 모서리에 흩어져 있는데, 각각 환한 등(燈)을 내걸어 흡사 대낮과 같으니 또한 볼 만하였다. 도주가 도도금도 평전삼좌위문(平田三左衛門)으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고 아울러 상방과 부방에 삼중과 제백을 아울러 올리도록 하였다.

이날은 140리를 갔다. 【서박포(西泊浦)에서 부포(富浦)까지가 10리이고 부포에서 당주지포(唐舟志浦)까지가 10리이며, 당주지포에서 금포(琴浦)까지가 10리이고 금포에서 소마포(小麻浦)·일중포(一重浦)까지가 30리이며, 소마포·일중포에서 지다하포(志多賀浦)까지가 10리이고 지다하포에서 좌수내포(佐賀奈浦)까지가 30리이며, 좌내수포에서 뇌호내(瀨戶内)까지가 40리이다.】

### 17일 갑오, 잠깐 비가 오다 잠깐 만에 맑아짐

바람이 크게 일어 바다 한가운데를 바라보니 흰 물결이 하늘에 닿아 배를 출발시킬 수 없었다. 오후에 우박이 내려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그쳤다.

### 18일 을미, 눈비가 내리다 맑아짐

풍세가 극히 순조로워 진시(辰時)에 돛을 펼쳐 배를 출발시켰는데, 나와 선장 서후치(徐後穉), 호방 비장(戶房裨將) 유동휘(柳東輝)가 나가 뱃머리에 서서 앞길을 시원스레 바라보았다. 만 겹의 청산이 좌우로 휘감아 돌고, 층암(層巖)과 절벽이 그림처럼 우뚝하였는데, 푸르고 잡다한 수목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보리와 조 따위를 심는 밭으로 개간하였다. 자갈로 된 땅을 한 치라도 금처럼 여기니,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주는 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온 섬의 백성들이 겨우 살 수 있음을 알 만하였다.

곧바로 해구(海口)를 나갔더니 왼편의 산이 먼저 끊기는데 망망(茫茫)한 창파(滄波)가 아득히 끝이 없어, 구름은 물과 닿고 물은 구름과 이어졌다. 중국의 소주(蘇州)·항주(杭州), 양절(兩浙)<sup>120</sup>과 시원스레 서로 통하니, 천지의 사이에 바다가 가장 크다고

120) 양절(兩浙) : 일반적으로 중국 강남 지역의 통칭으로 쓰이는 말로, 현재의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에 해당하는데, 소주(蘇州)는 강소성에, 항주(杭州) 절강성에 있다.

한 말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었다. 오른쪽 산을 따라 수십 리를 가다가 다시 한 모퉁이에서 방향을 바꾸니 산세가 꺾이고 굽어져 두 날개처럼 나뉘었는데 용과 범이 서로 껴안고 있는 형국이었다. 배를 정박시키는 선창이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람을 막아주고 해를 향한 것이 진실로 하늘이 만든 땅이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들은 산에 의지한 형세였는데 층암(層巖)의 위에 빙 둘러 있었다. 꽃과 대나무를 심고 소나무와 삼나무를 주위에 가꾸었으며, 단장한 담장과 날아갈 듯한 용마루가 솔숲과 대숲 사이로 서로 은은히 비치니 몹시 공교하고 오묘하였으며 경치가 맑고 깨끗하였다. 이곳 사람의 성품이 힘써 정교하기를 추구하여 모든 하는 일들이 대개 이와 같다고 한다.

대마도주의 사자(使者) 도산대조(陶山大助)가 왜인 집사들과 함께 뱃머리에서 문안하였는데, 이를 구경하는 남녀노소들이 뒤엉켜 인산인해를 이루어 무려 수 천백이나 되었다. 하지만 나무 인형처럼 침묵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조금도 내지 않으니, 또한 기이한 일이었다. 삼취(三吹)를 행하고 포를 쓴 뒤에 의장대의 위용을 성대하게 갖추고 물에 내려 관소(館所)로 갔다. 선창의 입구에서부터 청(廳)의 앞까지 이르도록 행보석(行步席)<sup>121)</sup>을 설치하였고, 문과 창을 보수하여 늘어 놓은 것이 매우 정결하였다.

도주가 시정봉행(市井奉行) 평전원오사랑(平田源五四郎)으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고 상방과 부방에 삼중(杉重)을 올리게 하였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비장청(裨將廳)과 함께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여 일행이 무탈하게 도착해 정박한 것을 축하하였다.

이날 70리를 운행하였는데, 접대하는 예(禮)는 좌수내포(佐須奈浦) 때와 같았다. 【뇌호내(瀨戶内)에서 압거뇌포(鴨居瀨浦)까지가 10리이고 압거뇌포에서 계지포(鷄知浦)까지가 30리이며, 계지포에서 남실포(南實浦)까지가 20리이고 남실포에서 부중(府中)까지가 10리이다.】

## 19일 병신, 맑음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배 안의 복물(卜物)을 운반해 와서 점검했더니 미곡과 과자 따위가 태반이 도둑을 당하였다. 감색(監色)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이니 몹시 온당하지

121) 행보석(行步席) :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마당에 까는 좁고 긴 돛자리이다.

못하다. 도주(島主)가 사기여사우위문(寺崎與四右衛門)으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므로 화상(花床)을 대접하고, 여러 차례 존문(存問)해 주어 감사하다는 뜻으로 답례(答禮)하여 보냈다.

오시(午時)에 재판(裁判)과 대청봉행(大廳奉行) 인위정지승(仁位貞之丞)·길전안우위문(吉田安右衛門)이 와서 하선다례(下船茶禮)와 신도주(新島主)의 다례<sup>122)</sup>는 이번 달 22일로, 구도주(舊島主)의 다례는 25일로 하기로 의논해 결정하였다. 또한 화상을 장만해 대접하여 보냈다. 【집으로 보내는 일행의 편지를 비선(飛船)에 동봉해 보내기 위해, 밖으로 나가 전어관(傳語官) 청우위문(淸右衛門)에게 주었다.】

## 20일 정유, 맑음

도주가 고천다차우위문(古川多次右衛門)으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므로, 화상(花床)을 주었다. 봉행(奉行) 삼촌중(杉村仲) 【평성일(平誠一)이다.】 ·평전장감(平田將監) 【평성태(平誠泰)이다.】 ·평전준인(平田隼人) 【평방직(平方直)이다.】 ·대포충좌위문(大浦忠左衛門) 【평륜지(平倫之)이다.】 및 재판(裁判) 길천육랑좌위문(吉川六郎左衛門) 【평방경(平方敬)이다.】 이 각각 상방(上房)과 부방(副房)에 신선한 조어(鯛魚) 【도미(道味)이다.】를 올렸으므로 비장청(裨將廳), 호방소(戶房所) 사령(使令), 사공(沙工), 공인(工人)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비장 유동휘(柳東輝), 소동 김삼걸(金三傑)·정윤보(鄭潤寶), 서계리(書契吏) 김익희(金益喜) 등과 함께 공사(公私)의 예단(禮單)과 잡물을 봉하여 찼다.

122) 하선다례(下船茶禮) : 대마도에 무사히 도착한 뒤 서계(書契)와 예단(禮單)을 전달하기 위한 의식이다. 『증정교린지』에는 하선연(下船宴), 별연(別宴), 상선연(上船宴), 서계다례(書契茶禮), 이정암다례(以甌菴茶禮), 만송원다례(萬松院茶禮)를 각 1번씩 행한다고 나오는데, 해당 일의 일기에서 서계와 예단을 전달하는 의식으로 나오므로 하선연과 서계다례를 같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서계를 전하는 날의 다례와 하선연, 상선연은 모두 대마도주의 집에서 베풀며 별연은 대마도주의 별당에서 베풀고, 만송원과 이정암다례는 또한 각각 그 장소에서 행한다고 한다. 『增正交隣志 卷6 彼地宴享』 일본의 차왜가 왔을 때 동래 부사(東萊府使)와 부산 첨사(釜山僉使)가 서계와 예단을 주고받는 예식은 『증정교린지』에 권3에 따로 자세히 실려 있다. 『增正交隣志 卷3 茶禮儀』

## 21일 무술, 맑음

봉행 평전준인(平田隼人)·대포충좌위문(大浦忠左衛門)·삼촌중(杉村仲) 및 재판 길친육랑좌위문(吉川六郎左衛門), 대청봉행 인위정지승(仁位貞之丞)·길전안석위문(吉田安石衛門) 등이 왔으므로 각각 화상을 장만해서 대접하였고, 재판과 봉행은 뒤에 남아 다례(茶禮)의 절차를 의논해 정하고 물러갔다. 신시(申時)에 전어관, 금도왜(禁徒倭) 및 매물번(買物番) 【가염반이다.】<sup>123)</sup> 등이 와서, 내일 다례의 예물을 규례대로 수령해 가겠다고 하므로 공사의 예단과 잡물을 수량에 맞추어 내어 주었다.

## 22일 기해, 맑음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행차하기를 청하였다.<sup>124)</sup> 이에 삼취(三吹)를 하고 나서 숙부와 부관(副官)이 의장대[軍儀]와 풍악을 성대히 펼쳤다. 비장청이 용복(戎服)을 입고 활을 차서 전배(前陪)가 되었는데 나와 족장 여경씨(汝卿氏)가 선두가 되었고, 숙부 사징(士徵), 김우삼(金禹三) 등 여러 사람 및 서계리, 도사공(都沙工) 등이 차례대로 두 줄로 후배가 되었다. 타고 간 부마(夫馬)는 저 사람들이 30여 필을 미리 세워 대기한 것인데, 옷칠한 안장과 굵은 등자, 비단 고삐와 채색 재갈을 한 것이 몹시 놀랍고 괴이하였다.

접대를 맡은 왜인 집사들은 혹은 말을 타거나 혹은 도보로 가면서 각각 깃발과 창을 세워 앞뒤로 호행(護行)하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반하는 것과 같았다. 크고 작은 마을 입구에 각각 금도왜(禁徒倭) 두세 사람을 배치하여 몽둥이를 소지한 채 소란을 금하였다. 남녀노소가 길가에서 구경하는데, 더러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감탄해 마지않으며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의관과 문물이 찬란하여 이웃나라 사람들이 흠모함을 대개 알 수 있었다.

관소(館所)로부터 도주가 거쳐하는 곳까지의 몇 리 길은 도로가 비록 그다지 광활하지는 않으나 평탄하고 깔끔하여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았다. 봉행 및 직위가 있는 여

123) 매물번(買物番) 가염반이다 : ‘매물번’은 물건을 취급하는 담당자로, 일본말에서 온 듯하고, ‘가염반’은 그 음을 기록한 것이다. ‘매물번’에 해당하는 현대 일본어 음은 ‘카이모노반(kaimonoban)’이다.

124) 도주의……청하였다 : 신임 대마도주가 주관하는 다례(茶禮)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러 왜인의 집에는 좌우로 화목(花木)과 소나무, 삼(杉)나무 따위를 줄지어 심었는데. 가지가 굵고 잎이 서린 것이 혹은 동이를 세운 형상이 있고 혹은 시루를 엮은 형상을 하였는데, 몹시 기이하고 묘하였다. 그리고 매화, 긴 대나무, 종려(椶櫚)나무, 소철(蘇鐵) 따위를 그 사이에 섞어 심었는데 집집마다 모두 그러하였다.

길 왼쪽에 돌로 된 패루(牌樓)가 있었는데, 청동으로 주조하여 큰 글씨로 ‘팔번궁(八幡宮)’<sup>125)</sup>이라고 편액하였다. 글자의 형체가 해법(楷法)과 다른데 바람에 마모되고 비에 부식되어 녹태(綠苔)가 알록달록하였으니, 대개 오래된 물건이었다. 비장 유동휘(柳東輝)가 말하기를 “일전에 듣기로, 지난날 임진왜란 뒤에 도주 누이의 남편 평조흥(平調興)이 도주 자리를 차지하기를 꾀하여 평의성(平義成)을 무함했다가, 홍 지추(洪知樞) 【희남(喜男)이다.】에게 공박을 당하여 도리어 반좌(反坐)로 처벌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폐서인(廢庶人)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팔번궁은 바로 평조흥의 고택으로 지금은 신당(神堂)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부특송사(副特送使)는 바로 평조흥의 송사(送使)인데 다른 송사에 비해 얻은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평의성이 그 얻은 것을 탐하였다. 이에 평조흥이 폐서인이 된 뒤에 여러 차례 끊임없이 청하자 조정에서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도주의 집에 이르러 대문의 밖에서 말을 내렸다.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다.】 상상관(上上官)이 중문(中門) 밖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려 【하여비(下輿碑)가 있었다.】 행보석(行步席)을 따라 삼중(三重)의 문에 들어갔다. 돌로 된 담장과 분칠한 벽, 높은 누대와 넓은 집이 우뚝이 솟았는데, 극도로 조각(雕琢)을 하여 두공(斗栱)에 산을 조각하고 동자기둥에 마름을 그렸고, 문짝과 문광(門框)은 동(銅) 주석(朱錫)으로 꾸며 사치를 다하기를 힘썼다. 그밖에 화훼(花卉)와 송죽(松竹)의 부류는 날날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재판, 대청봉행(大廳奉行) 및 조두왜(組頭倭) 【빈객을 대접하는 관원으로, 바로 도도금도(都都禁徒)와 대목부(大目付)의 부류이다.】 8, 9인과 감정소(勘定所)의 여러 왜인 【일행에 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자이다.】 들이 앞에서 인도하여 대청에

125) 팔번궁(八幡宮) : 대본에는 ‘八潘宮’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근거하여 ‘潘’을 ‘幡’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하 동일한 낱자의 경우도 같다. ‘팔번궁’은 일본의 고대 궁시신(弓矢神)인 팔번신(八幡神)을 모신 별궁이다.



들어갔는데 각각 혈청(歇廳)<sup>126</sup>이 있었다. 상상관의 혈소(歇所 휴게소)와 도주의 거처에는 금병풍을 두르고 고화(古畫)를 내걸었는데 휘황찬란한 광채가 사람의 눈을 쏘았다. 북쪽 벽의 아래에는 수정으로 된 상(床)을 놓아두고 상 위에는 오래된 동(銅)으로 만든 쭉그린 사자 모양의 화로 하나가 있었다. 주조한 품질이 정묘한 것이 진실로 아끼고 좋아하는 기물이었다.

조금 휴식한 뒤에 【홍포(紅袍)와 오사모(烏紗帽) 차림이다.】 규례대로 서계(書契)와 공사(公私)의 예단(禮單)을 전해 주었다. 도주와 진무례(振舞禮)를 거행하는데 음식물에 금은(金銀)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이는 그 사치하고 화려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지만 실로 해괴하였다. 상관(上官)은 상상관 혈청의 왼쪽에 함께 모였는데 대청과는 벽으로 막혔고, 나와 두 분 숙부는 북향(北向)으로 주벽(主壁)에 앉았는데, 좌벽(左壁)에는 김령 준익(金令俊益)을 우두머리로 삼고 우벽(右壁)은 김령 우삼(金令禹三)을 우두머리가 삼되 각각 연치에 따라 앉았다. 중관(中官)은 외청(外廳)에 앉았고 하관(下官)은 내중문(內中門)의 밖에 앉았다고 한다.

일시에 음식을 바치는데, 상상관에게는 도주의 군관(軍官) 등이 시중을 들고 그 나머지는 집사(執事)가 소동왜(小童倭)를 많이 거느린 채 분주하게 응접하는데 나는 듯 경쾌하면서도 조금도 혼란스럽거나 시끄러운 일이 없었으니, 범이 오히려 엄함을 알 만 하였다. 음식이 다 나오자 술이 나왔고 술이 다 나오자 당과(糖菓), 마른 가물치, 감귤을 올리고 나서야 나오는 것이 그쳤다.

문득 사람 1명이 광송무팔(廣松茂八)과 함께 와서 읍하여 공경을 나타내며 말하기를 “존공(尊公)께서 천 리 바닷길을 무사히 건너오셨으니, 기쁘고 경하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감사함을 표시하고 광송무팔에게 물기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광송무팔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말하기를 “저는 바로 감정차지(勘定次知) 평전조지진(平田助之進)인데, 바로 송지조(松之助)의 아버지입니다.<sup>127</sup> 미천한 자식이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것은 진실로 존공께서 다시 살려

126) 혈청(歇廳) : 휴식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127) 저는……아버지입니다 : 1733년(영조9) 대마도에서 새 도주가 취임한 것을 알리는 차왜(差倭)를 보냈을 때의 일행 중 송지조(宋之祖)라는 어린 일본인이 병에 걸려 위독하였는데, 이 일기의 저자인 김홍조(金弘祖)가 치료해 준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그의 부친이 알고 인사하러 온 것이다. 『海行記 正月小十三日』

주신 은혜에서 비롯한 일입니다. 존공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달려와 사례 함으로써 감축하는 마음을 펴야 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엄하여 관소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므로, 지금에야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세가 그런 것 이지만 마음에 매우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성스러운 모습이 말과 얼굴에 드러 났다.

한두 명의 조두(組頭)가 평전조지진과 친척이라고 하며 각자 감사한 뜻을 전달하였 고, 대목부(大目付) 가성육지진(加城六之進) 또한 조두로서 자리에 있다가 말을 전해 문후하였는데 또한 은근한 뜻을 다하였다. 도주가 들어간 뒤에 이정암(以酌菴)<sup>128)</sup> 【승려 현소(玄蘇)의 원당(院堂)이다.】 장로승(長老僧)이 5, 6명의 도제(徒弟)와 함께 와서 숙부께 문후하였는데, 화상(花床)과 주찬(酒饌)을 성대히 베풀어 무사히 바다를 건넌 경사를 축하하였다. 【장로는 으레 왜경(倭京)에서 차임되어 나오기 때문에 도주가 매우 공경히 대접하는데, 화상(花床)을 내어 보내어 모양을 차린다고 한다.】 예식을 마치고 삼취(三吹)를 행한 뒤에 숙부를 모시고 관소로 나아가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올 때에 비해 더욱 많았다.

### 23일 경자,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비가 음

도주가 사자를 보내어 문후하였고 감정소(勘定所)의 표사랑좌위문(俵四郎左衛門)·길천 번우위문(吉川繁右衛門)·소전사랑좌위문(小田四郎左衛門)·지하심오좌위문(志賀甚五左衛門)·연기치오병위(演崎治五兵衛) 등이 왔으므로 화상을 주었다. 이정암(以酌菴) 장로 또한 집사승(執事僧)을 보내어 문안하므로 다과와 소주(素酒)를 주어 보냈다.

### 24일 신축,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구도주(舊島主)의 사자가 와서 문후하므로, 화상을 주어 보냈다. 지난 22일 다례(茶禮)

128) 이정암(以酌菴) : 일본인 승려 현소(玄素)가 1580년에 대마도(對馬島)에 세운 사찰이다. 현소는 풍신 수길(豐臣秀吉)과 덕천가강(德川家康)의 명을 받아 조선과 주고받는 외교 문서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를 이어 외교문서를 관할하기 위해 에도막부[江戶幕府]에서 대마도에 파견하는, 학식을 갖추고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승려가 주재하는 사찰이다.

를 행할 때에 우삼동(雨森東)<sup>129</sup>의 차자(次子) 송포청장(松浦廳長)이 숙부께 와서 인사하고 편지를 올렸으므로 숙부께서 나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답하게 하였다. 【도주(島主)가 송포청장이 우리나라의 예절을 상세히 안다고 여겨 전도(前導)가 되게 하였다.】 송포청장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저는 본래의 성은 우삼(雨森)이고 이름은 덕윤(德允)인데, 지난 계사년(1713, 숙종39) 우삼원장(雨森院長)<sup>130</sup>이 대차(大差)의 도선주(都船主)가 되었을 때 저는 겨우 11세의 나이로 귀국을 따라 노닐었습니다. 그 당시 족하(足下 김현문(金顯門))께서 마침 초량(草梁)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인사하여 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가 20여 년이 되었는데, 뜻밖에 오늘 연향(宴享)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니, 모르겠습니까만 계속해서 얼굴을 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우삼원장의 차자로 송포하소(松浦霞沼)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답한 편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계사년에 그대 부친께서 화관(和館 왜관(倭館))에서 사명을 받들 때 저(김현문(金顯門)) 또한 명을 받고 초량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족하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서로 어울린 적이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문득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각 하늘 끝에서 그리워하는 회포가 끊이지 않았는데, 뜻밖에 지난번 반가운 얼굴을 연향하는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회포와 새로운 정이 봄 동산의 풀처럼 솟아났지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 그 서글픔을 이루 다 형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봄 추위가 아직 매서운데 그대 부친의 도체가 만복하신지요? 만나 인사할 길이 없어 지금까지 마음에 걸립니다. 이에 대신 안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9) 우삼동(雨森東) : 1668~1755. 일본의 유학자로 우삼방주(雨森芳洲), 우백양(雨伯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어와 조선어에 능통하여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오면 외교문서를 기초하거나 해독하는 실무자로 활약하며 통신사를 배행하기도 하였다. 소 요시노부(宗義誠)가 대마도주의 직임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에도막부[江戶幕府] 제6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가 사망했을 때, 경종(景宗)이 즉위했을 때 등 여러 차례 외교 임무를 띠고 조선을 드나들었다.

130) 우삼원장(雨森院長) : 우삼동(雨森東)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후에 전어관, 금도왜, 매물번(買物番)<sup>131)</sup> 등이 내일 구도주의 다례에 쓸 예단(禮單)을 수령해 가기를 청하므로, 수량에 맞추어 내어 주었다.

## 25일 임자, 맑음

구도주의 사자가 와서 행차하기를 청하였다.<sup>132)</sup> 이에 숙부와 부관이 【의장대, 전배(前陪), 후배(後陪)는 22일의 의식과 같았고, 비장청(裨將廳)은 처음 회차에 참석할 수 없었던 자와 서로 바꾸되 그대로 후배로 삼았다.】 도주의 집에 도착하였다. 【구도주가 거주하는 곳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를 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구도주가 병이 심하여 나오지 못하여, 서계(書契)와 예단(禮單) 【물건은 신도주(新島主)와 같다.】 을 봉행 등이 대신 수령하여 들어갔다. 상상관(上上官)의 앞에 약간의 다과를 진설하였고 다과 자리가 끝나자 관소에 나아갔다 그 뒤 구도주가 사자를 보내어 문후하므로, 화상을 주어 보내었다. 상상관으로부터 하관(下官)에 이르기까지 각각 건물 단자(乾物單字)를 올려 【구도주가 병이 있어 진무례(振舞禮)를 거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보냈다고 한다.】 호방 비장 유동휘(柳東輝)로 하여금 수량에 맞추어 봉상(奉上)하게 하였다.

상상관(上上官) 2원에 대한 연향(宴享)의 수용(需用)은 31종이고, 대은(代銀)은 11냥 6전 8푼 6리이다. 상관(上官) 25원에 대한 연향의 수용은 15종이고, 대은은 9냥 3전 2리 6호(戶)이다. 중관(中官) 25인에 대한 연향의 수용은 10종이고, 대은은 4냥 6전 8푼 1리 8호이다. 하관(下官) 13명에 대한 연향의 수용은 9종이고, 대은은 2냥 1전 7푼 8리 9호이다.

이른바 우삼동(雨森東)은 대마도의 문한(文翰)과 예절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예전에 재판차왜(裁判差倭)로 우리나라에 와서 창랑(滄浪) 홍도장(洪道長 홍세태(洪世泰))과

131) 매물번(買物番) : 물건을 취급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69쪽 주 123) 참조.

132) 구도주(舊島主)의……청하였다 : 전임 대마도 도주가 주관하는 다례(茶禮)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서로 창화(唱和)했던 자이다. 그의 집이 다니는 길의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숙부가 탄 가마를 기다리다가, 그 문 앞에 이르자 몸을 숙여 문후하였다. 이에 숙부께서 가마에서 내리려고 하니, 말하기를 “공사(公私)는 구별이 있고 일의 체모는 자별하니, 불가합니다.”라고 하므로 숙부께서 가마를 멈추고 잠시 소회를 풀고 헤어졌다. 내가 그 곁에서 그 체모와 행동거지를 살펴보니, 나이가 거의 칠순에 가까웠으나 용모가 쇠하지 않았고 두 눈동자가 형형하여 광채가 이목을 끌었는데, 맑고 고아한 모습이 주선(周旋)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드러났다. 만약 우리의 의관을 하고 우리의 도(道)를 추구한다면 문명(文明)의 선비가 될 것인데, 애석하다.

미시(未時)에 재판과 대청봉행이 만송원(萬松院) 【평의지(平義智)의 원당(院堂)이다.】의 다례(茶禮)에 대해 의논하러 와서, 다음 달 2일과 4일 가운데 일이 없는 날에 거행하기로 결정한 뒤 보냈다.

### 26일 계묘, 맑음

일이 없었다.

### 27일 갑진, 맑음

도주의 사자가 와서 문후하므로, 화상을 주었다.

### 28일 을사, 맑음

도주는 매 2년마다 한 차례 강호(江戶 에도)로 들어가 관백(關伯)을 알현했다가 그대로 강호에 머무르는데, 한 해가 마칠 때 썸 섬으로 돌아오고 섬에 돌아온 뒤에는 즉시 고환차왜(告還差倭)를 보내어 우리나라에 그 거취(去就)를 알리니, 이는 규례이다.

신도주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장차 강호로 들어가기 위해 행선(行船)을 습의(習儀)하므로 재판이 미리 도로의 남쪽 공사(公舍)에 상상관(上上官)의 자리를 설치하여 그 행차를 구경하기를 와서 청하였고, 상관, 중관, 하관의 자리 또한 관소 문밖에 펴서 설치

하였다. 나는 숙부 사징(士徵)과 함께 숙부를 배종하였고, 대청봉행 2인과 여러 전어관(傳語官)들 또한 와서 모였다.

얼마 후 도주가 나왔는데 앞뒤로 호행하는 자가 수백 인이었다. 도주 및 여러 봉행은 말을 탔고 그 나머지 도금도(都禁徒) 이하는 모두 도보로 행진하였다. 각각 독기(纛旗), 창, 총, 검, 활, 화살 따위를 잡았는데, 군대의 위의(威儀)가 매우 성대하였다. 그런데 도주는 관을 쓰지도 않고 단의(短衣) 착용한 것이 일반 왜인의 평상복과 차이가 없는 데다 발에 고훈(藁鞋 짚신) 【국속에 존귀한 자가 고훈을 신는다.】를 신었는데 마음속으로 몹시 웃겼다. 하지만 취할 만한 점도 있었다. 앞과 뒤에서 배행하는 자의 수효가 매우 많았지만 엄숙하고 조용하여 소란스럽지 않았고 빠르기와 진퇴가 가지런히 법도가 있어 질서정연하고 어지럽지 않았으니, 이것이 가상할 따름이다.

이날 아침에 내가 소통사(小通事) 백철동(白哲同)과 추올만(秋耆萬)으로 하여금 도도금도 등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렇듯 태수(太守)의 연례(演禮)가 귀하니, 진실로 장관입니다. 이렇게 태수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구경하도록 허락해 주시어 본국으로 돌아가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일제히 나오면 일에 불편한 점이 많겠으나 만약 존공(尊公)과 수행하는 소동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소동 정윤보(鄭潤寶)와 통사 추올만(秋耆萬)과 함께 나가서 선창에 도착하였다. 선창 앞과 왼쪽 산의 아래에 6척의 큰 배가 있었는데, 비단 창과 붉은 난간에 채색 비단으로 휘장을 쳤는데 영롱하고 알록달록하였다. 유소(流蘇)<sup>133)</sup>와 금빛 실이 그 사이에 섞여 드리워 사치를 극도로 부린 채 도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왜인 집사 수십 인과 두세 명의 종왜(從倭 심부름하는 왜인)가 각각 작은 배를 타고 분주하게 응접하며 이리저리 출입하는데, 나는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어수선함이 없었으니 사령(使令)에 민첩한 자라고 할 만하다. 한참 동안 두루 관람한 뒤에 관소로 나아갔다.

## 29일 병오, 맑음

133) 유소(流蘇) : 이삭 모양으로 만든 채색 깃털이나 실로 수레나 말, 휘장 등을 꾸미는 장식물이다.

우삼동(雨森東)의 큰아들은 이름이 현지윤(顯之允)이라는 사람인데, 일찍이 도도금도(都都禁徒)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서로 더불어 여러 번 만났다. 이곳에 도착한 뒤에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집사(執事)가 아닌 자라서 관소에 출입할 수 없었고, 또 그가 병에 걸려 와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표제(表弟)인 대청봉행 길전안우위문(吉田安右衛門)으로 하여금 문후하게 하고 아울러 흠모하는 뜻을 전하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제가 죽하와 삼가 화관(和館)에서 만난 것이 흡사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올 때 귀국에 도착하자마자 죽하와 문장을 토론하며 막혔던 회포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의 법이 엄하여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았으니 마음이 몹시 울적하였습니다. 지금 전하는 말을 받드니 죽하께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리하신지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안부를 여쭙 수 없으니 크게 탄식할 따름입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문후하므로, 화상을 주었다. 봉행 대포충좌위문(大浦忠左衛門)이 남초(南草) 15과(把)와 말린 고등어 20마리를 보내어 바쳤는데, 【부방(副房)도 같다.】 가지고 온 자들에게 약초와 환약을 체하(帖下)하여 보냈다.

## 2월 큰달

### 초1일 정미, 아침에 맑고 저녁에 흐림

축시(丑時)에 망하례(望賀禮)를 거행하였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속절(俗節)<sup>134)</sup>인데, 이역(異域)에 이렇게 와서 일행 제인(諸人)이 마음속으로 몹시 무료함을 느꼈다. 이에 약간의 송편을 만들어 위아래 인원에게 분급하고, 대청 앞의 뜰에 자리를 설치하여 나와 비장청이 풍악을 크게 놀여 그윽한 회포를 펴니, 구경하는 자들이 시장처럼 붐볐다.

### 초2일 무신, 아침에 흐렸다가 저녁에 비가 옴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만송원(萬松院)에 행차하기를 청하였다. 숙부와 부관이 의장대와 풍악을 갖추어 큰 길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몇 리를 가다가 길을 바꿔 북쪽 마을로 들어가 또 몇 리를 갔다. 산림과 천석(泉石)이 깊고도 그윽한데 동산(東山)의 아래에 하나의 한 채의 큰 장원(莊院)이 있었으니, 북층의 누대와 거대한 집이 푸른 숲 사이에 우뚝 솟았다.

동(銅)을 주조하여 날아오르는 물고기 형상의 용마루를 만들었는데, 형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것이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푸른 계곡 한 굽이가 담장 밑으로 휘감아 흐르는 것이 성곽에 해자가 있는 것과 같았는데 맑은 물이 잔잔하여 그윽한 흥취가 손에 잡힐 듯했다. 전어관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옛날에 의지(義智) 【평씨(平氏)의 시조라고 한다.】 와 의성(義成) 태수가 살던 집이었는데, 평의진(平義眞)에 이르러 감정소(勘定所) 【한 섬의 전곡(錢穀)을 전적으로 관리하니 우리나라의 탁지(度支)와 같다.】 와 거리가 다소 멀어 매번 일을 당할 때면 균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도주가 거쳐하는 곳으로 이주하였고, 단지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남겨 수직(守直)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옆에 만송원(萬松院)이 있는데, 문에 ‘종벽산(鍾碧山)’ 세 글자를 내걸었다. 상상관(上上官)이 문밖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리자 왜인 승려들이 종을 치고 영접하였다. 대청

134) 우리나라의 속절(俗節) : 음력 2월 초하루를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날로 기념하여 중화절(中和節)이라고 하는데, 이날 송편을 빚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봉행 두 사람이 앞을 인도하여 행보석(行步席)<sup>135)</sup>을 따라 원당의 앞에 이르니 봉행, 재판, 조두(組頭), 여러 왜인 집사 및 주지승과 장로승이 인접(引接)하여 당에 올랐다. 당에 녹색판(綠板)에 금색 글자로 ‘만송정금(萬松精舍)’이라고 쓴 편액이 있었고 밝은 등축이 빛나고 금색 벽이 휘황찬란하였다. 북쪽 벽의 아래에 감실(龕室) 하나가 있었는데 영롱하게 조각하여 황금으로 칠을 하였다. 평의지(平義智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 이하의 위판을 나열해 세우고 분을 바른 앞면에는 글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직명과 호칭인 듯했지만 자획이 가늘어 상고할 수 없었다.

약간의 폐물(幣物)을 준 뒤에 등축을 끄고 발을 내리고는 옆의 대청으로 옮겨 앉아 진무례(進舞禮)를 거행하였다. 탕병(湯餅), 소채(蔬菜), 당과(糖菓) 등속을 올리고 비린내 나는 고기와 매운 채소는 쓰지 않았다. 원당의 동쪽에 돌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다리 기둥과 다리 들보에 구멍을 뚫어 시렁으로 지탱하되 네모나고 둥근 구멍을 깎아 연결한 것이 그 묘함을 꼭진히 하였다. 다리를 경유하자 끝은길이 나왔는데 지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돌을 겹쳐 계단을 만들었으니, 바라보면 수십 장(丈)의 구름사다리 같았고, 돌로 된 등대(燈臺) 【우리나라의 장명등(長明燈)과 같다.】를 쌍으로 배치한 것이 수십 좌(座)였다. 등대의 밖으로 소나무와 삼나무를 곁에 심었는데, 우뚝하게 솟아 햇빛을 가리므로 찬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였다.

나와 여러 사람들이 힘차게 올라가 산문(山門)에 들어갔더니, 층층의 계단과 굽은 담장, 울창한 숲과 긴 대나무가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의 거처와 같았는데, 평씨(平氏) 제(諸) 도주의 묘가 모두 그 안에 있다고 하였다. 【그 장례(葬禮) 제도를 물었더니, 목곽(木櫃)에 담아 왜철쪽을 채워 석갑(石匣)에 넣고, 돌로 덮개를 만들어 그 위에 덮는데 위에서 석감(石龕)을 누른다고 한다.】 금도 등이 많은 사람이 잡되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나는 족장 여경씨(汝卿氏), 숙부 사징(士徵)과 함께 묘도의 앞에 서서 그 묘제(墓制)를 관찰하였다. 돌로 갑탑(龕塔)을 만든 것이 불가(佛家)의 사리탑과 같은데 매장한 위를 누르고 돌난간을 둘러고, 앞에 동으로 주조한 학(鶴) 1마리와 꽃 3송이를 세웠는데 여러 묘소가 모두 그러하였다. 학은 등축을 꽃는 도구이고 꽃은 향을 태우는 물건인데, 흩어져 서 있는 돌로 된 등대(燈臺)는 그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었

135) 행보석(行步席) :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마당에 까는 좁고 긴 돛자리이다.

다. 이는 대개 그 제작한 사람이 견고하여 불후하기를 바란 것이지만 진실로 몹시 괴이하였다.

또 기묘한 것이 있었으니, 길에 삼나무와 소나무를 심어 가지와 잎이 서리고 얽혀 담벽을 이루었다. 굵거나 곧은 것이 깎은 듯하여 마치 푸른 병풍을 세운 듯하였으니, 몹시 묘하다고 할 만하였다. 한참 동안 관람하다가 숙부를 모시고 관소로 나아갔다. 도착한 뒤에 큰비가 퍼붓듯 내리니 이 또한 다행이었다.

만송원(萬松院)은 평의지(平義智)이고,<sup>136)</sup> 광운원(光雲院)은 의성(義成)이며, 천룡원(天龍院)은 의진(義眞)이며, 영광원(靈光院)은 의륜(義倫)이며, 대연원(大楡院)은 의방(義方)이며, 대운원(大雲院)은 의성(義誠)이다. 방희(方熙)는 의성(義誠)의 아우로 물러나 쉬는 자이고, 의여(義如)는 의성(義誠)의 아들로 지금 도주인데 나이가 겨우 19세라고 한다. 이 자가 바로 평미일(平彌一)이다.

### 초3일 기유, 맑음

도주의 사자(使者)와 만송원의 승려가 와서 문후하므로, 각각 화상(花床)을 주어 보내었다.

### 초4일 경술, 맑음

전어관(傳語官) 등이 대청봉행의 뜻으로 와서 말하기를 “공(公)의 일행이 이렇게 객관(客官)에 머문 지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청컨대 근방의 사원(寺院)을 유람하여 울적한 회포를 펴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하지만 바람이 크게 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

136) 만송원(萬松院)은 평의지(平義智)이고 : ‘만송원’은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의 원당을 일컫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신위(神位)에 참배한 이날의 기록으로 볼 때, 일본에서 승려가 죽은 사람에게 지어주는 이름인 계명(戒名) 또는 법호(法號)를 가리키는 듯하다. 종의지의 전체 계명은 ‘숭호석옹만송원(崇虎石翁萬松院)’이다. 이하의 광운원(光雲院), 천룡원(天龍院) 등도 모두 역대 도주의 계명이다.

### 초5일 신해, 맑음

우삼동(雨森東)의 아들 현지윤(顯之允)이 사람을 보내 문후하고 편지까지 올렸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가 문득 이르렀으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족하께서 바닷길이 편안하시고 객관(客館)에서 묵고 계시니 삼가 매우 기쁩니다. 제가 족하를 만나 뵙지 못한 지가 지금 몇 해가 되었는데 피차간에 서로 그리워함이 하나의 궤도(軌道)에서 나온 것처럼 같습니다. 족하께서 지금 문위(問慰)하시는 행차에 계신 지를 제가 이미 들어 알고는, 가까운 시일에 허겁지겁 달려가고자 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와병하느라 문을 닫고 만남을 사절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국법에 얽매어 뜻대로 하지 못했으니 하늘은 어찌 이리도 좋은 인연을 아낀단 말입니까. 편지를 대함에 마음이 쏠려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절서에 따라 보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보내었다. 오후에 재판이 와서 신도주(新島主)의 중연(中宴)<sup>137)</sup>을 의논하여, 이달 12일로 결정하고 화상(花床) 내어 주었다. 도서대차왜(圖書大差倭) 삼촌채녀(杉村采女)가 초량에서 돌아와 정박했으므로 재판이 직접 집에서 온 우리 일행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해주었는데 우리 집의 편지를 볼 수 없어 마음이 매우 서운하였다. 해가 저문 뒤에 두 분 숙부 및 일행 가운데 5, 6인과 함께 선창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배회하다가 돌아왔다.

### 초6일 임자, 맑음

도도금도 고기칠좌위문(高崎七左衛門)은 일찍이 고환차왜(告還差倭)로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만났던 자이다. 해 뜰 무렵 통사(通事)로 하여금 말을 전해 문후하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법에 문밖 금도청(禁徒廳) 입번(入番)과 도도금도는 일이 없이

137) 중연(中宴) : 『증정교린지』에 공식적인 의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별연(別宴)’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增正交隣志 卷6 彼地宴享』

관소(館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깐 제가 있는 곳에 왕림해 주시어 오랫동안 막혔던 회포를 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와 소동 정윤보(鄭潤寶)가 금도청에 나가 앉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그런데 문득 대나무 울타리 밖으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앵무새나 제비가 우는 듯 가냘프고 청량하였다. 가서 보니 겨우 열 한두 살 정도인 왜인 여자아이 네댓 명이 한곳에 둘러앉아 서로 격구(擊毬)<sup>138</sup>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을 잡아서 땅에 던지고 그 기세를 인하여 가볍게 손을 드는데, 오른쪽에서 치고 왼쪽에서 때렸다가, 왼쪽에서 때리고 오른쪽에서 치며 간혹 한 손으로 위를 때리고 아래를 친다. 그 흥이 오르는 부분에서는 손놀림이 점점 경쾌하여 오르고 내림이 점점 급해졌다. 공이 지침(指尖)을 따라 솟구치고 도약하는 것이 마치 공중에 매달린 것 같아 보면 볼수록 더욱 묘한데, 곁에 앉은 아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니 노랫소리가 몹시 청아하면서 빨랐다. 그 가곡에 대해 물었더니 「격구곡(擊毬曲)」이라고 하였다. 격구가 그쳤기에 공을 취하여 살펴보니 솜으로 만들었고 곁에는 비단 끈과 그물을 썼는데 둥글둥글 거위 알만 큼 컸다. 전어관 등이 말하기를 “이곳의 어린아이들마다 힘써 배워 재미있는 놀이로 여깁니다.”라고 하니, 대개 그 나라의 풍속이었다.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문후하므로, 화상(花床)을 주었다.

### 초7일 계축,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가 음

내가 초량(草梁)에 있을 때에 약간의 약방문(藥方文)을 외워 왜관(倭館)의 왜인 5, 6인을 치료해 살린 적이 있었는데 경솔한 무리들이 서로 칭송하였다. 이번에 배행(陪行)하는 뜻이 미리 섬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이곳의 남녀노소가 날마다 문밖에 몰려들었으나 국법이 두려워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도도금도 평산향좌위문(平山鄉左衛門)에게 간절히 요청하였다. 평산향좌위문은 바로 계축년(1733, 영조9) 여름에 이정암(以厓菴)의 송사(送使)로 우리나라에 와서 나와 여러 차례 만났던 자이다. 전어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해 문후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아뢰 바가 있지만 말은 직임 때문에 국

138) 격구(擊毬) : 여기서는 말을 타고 하는 것이 아닌, 걷거나 뛰면서 하는 격구를 말한다.

법을 어기고 관소에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그 뜻은 나로 하여금 나와서 그를 만나도록 한 것인데 감히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어관 등이 또한 누누이 간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소동 정윤보(鄭潤寶)와 함께 금도청(禁徒廳)에 나아갔다.

평산향좌위문이 일어나 서서 공수(拱手)하고는 맞이하여 좌정(坐定)하게 하고, 인사 말을 나눈 뒤 말하기를 “저희 섬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공(公)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한번 뵙기를 생각하여 새벽부터 와서 모인 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들여보내려고 한다면 아마도 필시 어수선할 것이고 쫓아내려고 한다면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할 바인지라 어찌지 못하고 존공(尊公)을 찾아오게 하였으니,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합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즉시 병자들을 불러서 가까운 곳에 기다리게 하고는 전어관으로 하여금 그 병세를 물었더니, ‘저린 자[痿者]’, ‘절뚝거리는 자[蹩者]’, ‘마비된 자[麻木者]’, ‘꼬부라진 자[僵僂者]’, ‘습병으로 배가 부른 자[疾濕澎脹者]’, ‘울화로 숨이 가쁘거나 한기로 기침하는 자[火喘冷嗽者]’, ‘흉복이 당기고 아픈 자[胸腹牽痛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眩暈怔忡者]’, ‘부스럼으로 헐고 종기로 아픈 자[瘡瘍腫痛者]’,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가 저린 자[腰酸脚痺者]’ 등 한 가지 병세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증상에 따라 혹은 침을 놓거나 혹은 약물을 처방하여 근근이 책임을 면했지만, 아는 바가 부족하고 응대하는 것이 번거로워 거의 아무 효험도 없을까 하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의술(醫術)의 등급과 고하를 알지 못하고 언필칭 ‘양 의이신 존공[良醫尊公]’이라고 하니, 어찌 너무 우습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문득 헛된 명성을 얻어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또한 이러한 부류일 것이니, 하하 웃음이 났다.

### 초8일 갑인, 큰비가 밤새도록 퍼붓듯 내림

광풍이 크게 일어 선창(船艙)가에 정박한 일기도(壹岐島)와 대판(大板)의 왜상선(倭商船) 2척이 풍랑 때문에 서로 부딪혀 조각조각 부서져 적재한 잡물(雜物)이 모두 떠내려갔다. 하지만 우리 배는 정박한 곳이 극도로 안온하게 바람이 피웠으므로 조금도 훼손된 것이 없었으니 몹시 다행이었다. 비가 흠뻑 내리고 종일토록 개지 않았다. 봉행

삼촌채녀(杉村采女) 【평진장(平眞長)이다.】 가 상방과 부방에 신선한 도미를 각각 2마리씩 올렸다.

### 초9일 을묘, 잠깐 비 오다 잠깐 만에 갸

도주의 사자(使者)가 문안하므로 화상을 주어 보냈다.

### 초10일 병진, 흐림

숙부께서 약간의 예물을 우삼동(雨森東)에게 보내고, 나로 하여금 편지를 지어서 주도록 하였다. 편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하여 우리러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추운 봄 날씨에 족하의 체후가 매우 좋으시리라고 생각되니, 구구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불초한 몸으로 마침 사람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 외람되이 사신(使臣)의 직임을 맡고는 마음속으로 안절부절못하며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지난번 태수의 연향(宴享)에서 아드님께서 잘 주선해 주어 일이 어그러짐을 면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다행스러움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족하께서 담장 밖으로 나와 만나 주셨으니 돌보시는 뜻이 융성하심에 진실로 몹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왕명(王命)을 몸에 띠고 있으므로 삼가 회포를 펴지 못하고 갑자기 작별하였으니, 마치 멍한 듯하고 취한 듯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반가운 얼굴을 뵈고서 만나지 못했던 우의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저 스스로 간절할 따름입니다. 왼쪽에 기재된 보잘것없는 물품은 웃으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문후하므로 화상(花床)을 주었다.

### 11일 정사, 맑음

감정소(勘定所)의 오랑좌위문(五郎左衛門)이란 사람은 병을 앓는 형이 있는데, 대청봉행에게 요청하여 끊임없이 와서 치료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다 관소의 문밖에 사람과 말을 대기시켰으므로 어쩔 수 없이 소동 정윤보(鄭潤寶), 통사 추올만(秋迺萬), 사령 김올미(金迺未), 수배 원달(元達) 등과 함께 그 집에 갔다. 병세를 진찰한 뒤에 객위(客位)로 나오기를 청하였는데, 술과 음식을 성대히 차린 것이 매우 예로써 대접하였다.

그런데 그 집안의 친척들이 와서 병세를 물어보는 자가 무수히 많아 도리어 괴롭고 번거로웠다. 마지막에 나이가 30여 세 정도 되는 왜인 여인이 나와서 인사한 뒤 그 앓는 병을 말하였는데, 그 복식을 보니 긴 옷에 머리를 묶은 것이 청(淸)나라 여인과 대동소이하었고, 또 그 부끄러워하는 태도 및 행동거지의 자태가 우리나라 여인과 같았다. 다만 말하고 웃는 사이에 흑치가 노출될 때면 속으로 몹시 놀랐다. 많은 사람을 응대하느라 날이 저문 뒤에야 돌아왔다.

## 12일 무오, 맑음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행차하기를 청하기에 숙부와 부관이 【녹포(綠袍)와 오사모(烏紗帽) 차림이었다.】 의장대와 풍악을 갖추어 도주의 집으로 갔다. 연향하는 대청(大廳)에 칸막이벽과 창호(窓戶)를 모두 제거하여 툇 트여 널찍하였는데, 비단을 묶고 모직을 깔았으며 주위에 금병풍을 둘렀다. 당(堂) 동북쪽에 병풍을 곁혀 문을 만들었고 문에는 푸른 비단 휘장을 드리웠으니, 그 배치한 것이 이전에 보았던 것과 크게 달랐다. 전어관(傳語官)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오늘 도주가 특별히 능조(能組) 【능조는 잡희(雜戲)의 이름이다.】 139)를 마련하여 공의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려고 하신 것이니, 이는 실로 공경히 예우하는 뜻으로 이전에 있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축하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조금 휴식한 뒤에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기를 청하기에 숙부께서는 감면도복(藍錦道服)을 입고 금루동과건(金縷東坡巾)을 쓰고서 자리에 앉았다. 왜인 집사가 또 도주의

139) 능조는 잡희(雜戲)의 이름이다 : 『해행기』의 내의 유일한 두주(頭註)로, 본문 가운데 쌍행 소자로 된 주석이 아니다.

뜻으로 내청(內廳)에서 만나보기를 청하니, 전어관 등이 말하기를 “이는 더욱 존경하는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청봉행, 재판, 조두 등이 앞을 인도하여 내청에 이르러 【상관(上官) 이하는 외청에 머물렀다.】 도주와 만나보고 배례(盃禮)를 함께 행하였다. 【존객(尊客)을 대우하는 주례(酒禮)이다.】 예를 마치고 다시 외청에서 잡희 보기를 청하므로, 왜인 집사들과 함께 외청으로 나가 중앙에서 동향(東向)하여 앉자, 봉행 삼촌중(杉村仲)·평전장감(平田將監)·대포충좌위문(大浦忠左衛門) 등이 숙부를 모시고 앉고, 상관 이하는 차례대로 북향하여 좌정하였다. 그 뒤 채색 복장을 한 왜인 4인이 각각 악기를 꺼안고 푸른 비단 휘장을 헤치고 나와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음악 소리가 짧고 급한 것이 우리나라의 음악과 같지 않았다.

얼마 뒤에 왜인 2명이 접힌 상(床)을 들고 나와서 양봉(涼棚)<sup>140</sup>을 장식해 만들고는 들어갔다. 사모(紗帽)를 쓰고 금포(錦袍)를 걸친 1인이 휘장 속에서 나와 인사하고 양봉 가운데에 올라가 앉았고, 또 무각모(無角帽)를 쓰고 반란포(斑爛袍)를 걸친 2인이 손에 숙환선(繡紈扇)을 잡고서 양봉의 아래로 나와 앉아 큰소리로 말을 주고받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몸짓과 말이 중국 시장에서 하는 공연과 대략 비슷하였다.

또 동자 2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금구관(金龜冠)을 쓰고 한 사람은 백학관(白鶴冠)을 썼는데, 몸에는 녹금의(綠金衣)를 착용하였다. 이리저리 돌며 춤추고는 또한 그 곁에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모자를 쓴 자와 함께 들어갔다. 또 두 맹인(盲人)이 나와 방황하다가 피차가 서로 치고받아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맹인 1인이 매우 노하여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 때리려고 하자 다른 1명의 맹인이 다급해져 허둥지둥 도망하여 피하는 모습을 하니 몹시 포복절도하였다. 전어관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잡희의 이름은 「학구(鶴龜)」와 「백양(伯養)」입니다. 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두 맹인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들어와 토식(討食)하는데 서로 치고받다가 구타를 당하는 데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두 맹인이 들어간 뒤에, 또 두 왜인이 탑상(榻床)을 들고 나와 당 가운데에 두고는 비단 포대기로 덮고 위에는 작은 궤(几)를 두었는데, 궤의 위에는 아직 피지 않은 붉은

140) 양봉(涼棚) : 여름철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 뜰에 친 일종의 차양막이다.



연꽃 같은 것이 1과(顆)가 있었다. 비단 옷을 걸친 승려와 속인 2인이 그 곁에 나와 서서 부처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하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친 흰 얼굴의 귀신이 몸을 숨겼다가 몰래 나와서 탑상으로 뛰어올라 붉은 연꽃을 빼앗아 달아났다. 승려와 속인 2인이 비로소 알아채고는 발을 구르며 안절부절못하다가 간신히 쫓아가 뺏어 다시 궤의 위에 올려놓고는 손을 모아 염불(念佛)하였다.

또 감색(紺色) 두발을 한 금색 얼굴의 귀신이 몸에는 비단에 금실로 지은 잡색 비단 옷을 입었는데, 모양이 흉하고 험상궂었다. 큰 입을 벌리며 펄펄 날뛰며 갑작스레 나와 붉은 연꽃을 낚아채고 작은 궤를 밟아 부셔버리고는 날뛰며 춤을 추었다. 승려와 속인 2인이 감히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땅에 쓰러져 버렸다. 홀연히 붉은 얼굴에 금빛 눈동자를 한 신장(神將)이 나타났으니, 머리에는 쇠그릇[金籬]을 이고 몸에는 성의(星衣)를 걸쳤으며 손에는 쇠 채찍을 들었다. 탑상 옆으로 뛰어올라 그 귀신을 차서 거꾸러뜨리고서 황금 채찍을 들어 어깨와 등을 흠씬 두들기니, 그 귀신이 허둥지둥 붉은 연꽃을 꼭 껴안고는 탑상 아래에 웅크려 엎드렸다. 이에 붉은 얼굴에 금빛 눈동자를 한 신장이 눈을 부라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 귀신을 번쩍 들어 내동댕이쳐 다시 붉은 연꽃을 빼앗았다. 그 귀신은 그 틈을 이용하여 몸을 빼어 도망가는데, 승려와 속인 2인과 함께 천천히 들어갔다. 전어관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잡희의 이름은 사리(舍利)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붉은 연꽃 같은 것이 바로 사리입니다. 사람들이 승려에게 청하여 부처에게 공양하는데, 마귀가 사리를 빼앗으므로 부처가 신장을 보내어 사리를 다시 빼앗으니, 이는 곧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뜻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스승과 도제(徒弟) 2인이, 몸에는 반의(斑衣)를 걸치고 목에는 목걸이[纓絡]를 하였으며 손에는 염주(念珠)를 가졌는데, 서로 마주하고 경전을 염송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홍색 얼굴에 붉은 몸체를 하고 양털과 같은 감색 두발을 한 귀신이 백안(白眼)으로 눈을 비껴 뜨고 부라린 채 펄쩍 뛰어서 나와서는, 그 도제의 귀를 동으로 서로 끌고 다녔다. 고통으로 인한 신음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으니, 그 스승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손에 염주를 모으고 발을 동동 구르며 경전을 외움으로써 그 귀신을 잡아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또 그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 들어갔다. 전어관(傳語官)이 말하기를 “스승과 도제 2인은 바로 산복(山伏)<sup>141)</sup> 【우리나라의 화랑(花郎)이다.】 이고, 붉은 몸의 귀신은 바로 궤의 정령[蟹精]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산

복인 스승과 도제가 설법을 하여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해를 당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한 동자(童子)가 머리에 쇠그릇[金籬]을 이고 몸에는 흰 비단옷을 걸쳤으며 허리에 긴 칼을 차고서 당 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었다. 갑자기 몸에 붉은 비단을 걸치고 명주로 머리를 싸맨 채 표범 머리에 괴상한 눈을 한 자가 크게 고함치면서 뛰어나왔다. 큰 칼로 손짓하며 춤추다가 동자를 곧장 찌르려고 하였는데, 동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와 칼싸움을 하였다. 서로 휘두르고 찌름에 검광(劍光)이 번쩍번쩍하고 한기(寒氣)가 썩썩했는데, 한참 동안 격전(激戰)을 벌일 때에 갑자기 표범 머리에 괴상한 눈을 한 자가 칼을 버린 채 물러나 옆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동자는 칼을 빗겨 찬 채 그를 꾸짖고는 떠나갔다. 전어관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교변경(橋辨慶)」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용맹함만을 믿고 도처에서 사람을 죽이므로 동자가 검술을 배워 그의 흉악함을 꺾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이 잡희의 도구들은 모두 새로 만든 것인데, 들어간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귀신으로 분장한 사람은 모두 가면을 썼다.】 나는 배우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알 수 없었지만, 구경하는 여러 왜인들이 박수치고 왈라왈 웃으며 손발로 춤추고 구르는 것을 보니, 그들 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어관의 전하는 말이 그다지 명쾌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왜인 집사가 또 상상관이 내청(內廳)의 연향에 나오기를 청하니, 봉행 이하의 여러 왜인이 앞을 인도하여 들어갔는데, 상관에게는 각각 술과 음식을 올렸다. 대통사왜(大通事倭) 사랑병위(四郎兵衛)가 와서 말하기를 “봉행과 재판이 김 주부(金主簿)<sup>142</sup>가 들어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나와 소동 정윤보(鄭潤寶)가 사랑병위를 따라 들어갔다. 겹겹으로 된 용도(甬道)<sup>143</sup>가 깊숙하고 꼬불꼬불한데 각각 대포를 얹은 10대의 작은 수레를 그 안에 두었다. 나아가 내청에 도착하니 온갖 방실(房室)이 그윽하며 깊숙하였고, 고화(古畫), 옛 화로(火爐), 금은(金銀) 술그릇, 문방(文房)의 애호품들이 아주 가지

141) 산복(山伏) : 산야(山野)에 기거하며 수행하는 승려나 도사 등의 수행자를 가리킨다.

142) 김 주부(金主簿) : 이 글의 저자 자신인 김홍조(金弘祖)를 가리킨다.

143) 용도(甬道) : 양쪽에 담을 쌓아 만든 길을 말한다.

런하게 있었으며, 석탑(石塔)과 화훼(花卉) 등이 교묘함을 극진히 하였다.

봉행과 재판이 숙부와 소반을 마주하였는데, 【그 나라의 법도에 무릇 존객(尊客)을 접대할 때에 주인과 빈객이 서로 마주하면 절차가 많게 되어 빈객의 마음이 필시 편안하지 못할 것이라 배례(盃禮)를 함께 행한 뒤에는 주인은 들어가고 그 친속(親屬)으로 하여금 모시고 먹게 한다고 한다.】 차완(茶碗), 주탁(酒卓), 연죽(煙竹)의 부류가 모두 은으로 만들어졌고, 산해의 진미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니, 그 정중하게 접대함을 대개 알 수 있다. 나와 정윤보는 경치에 취하여 내청의 회랑 밖을 산보하였다.

도주가 또 3병의 술과 과려합(玻璃盒)을 보내었다. 술병에는 각각 글씨가 붙어 있었는데, 각각 ‘호도주(胡桃酒)’, ‘자소주(紫蘇酒)’, ‘밀소주(蜜燒酒)’였고, 과려합에는 각종의 밀진과(蜜煎果)가 담겨 있었다. 봉행과 조두가 나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술과 과자는 바로 저희 태수께서 먹는 것인데, 공(公) 또한 여기로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숙부를 모시고 앉자, 왜인 집사가 3병의 술을 각각 따르며 권하여 석 잔을 연이어 다 마셨는데 맛이 매우 향기롭고 독하였다. 내가 재판에게 말하기를 “우리 일행으로 외청에 있는 자들 또한 들어와 귀처(貴處)를 구경하고 싶어서 마야흐로 문밖에 있으니,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재판이 봉행과 소통하고는 즉시 여러 사람을 불러 두루 그 안을 관람하게 하니 또한 한 가지 통쾌한 일이었다.

관람을 마치고 여러 사람과 함께 모두 외청으로 나갔는데, 전어관 등이 와서 재판의 뜻으로 말하기를 “청컨대 귀국의 풍악과 원천희(元天禧)의 정재(呈才)를 구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이는 재판의 뜻이 아니라 위에서 명령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즉시 원달(元達) 등으로 하여금 성대히 풍악을 펼치고 또 재인 원천희로 하여금 청(廳) 위에서 각양의 재주와 기예를 베풀게 하니 구경하는 자가 시장처럼 많이 몰렸는데, 도주의 안식구[內眷]들은 염내(簾內)에 많이 모였다고 하였다.

우삼동(雨森東)이 그 차자(次子) 송포청장(松浦廳長)과 함께 내게 와 읊하고 말하기를 “존공께서 천리 창과를 무사히 건너 오셨으니, 매우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왜어(倭語)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말만 했는데 매우 분명하였다. 내가 일어나 감사함을 표시하고 함께 마주 앉았는데 우삼동이 말하기를 “제가 바로 우삼원장(雨森院長)입니다. 지난 계사년(1713 숙종39)에 존공의 숙부님과 귀국의 화관(和館)에서 교유하였는데,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간절히 서글프게 그리워하다가 뜻밖에 지금 연향(宴享) 자리에서 존공의 숙부께 인사드렸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의 불초자식 현지윤(顯之允)이 저번에 초량(草梁)에서 돌아와서는 족하께서 보살펴준 은혜를 크게 칭송하였는데, 근래 괴질에 걸려 집밖으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족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때에 달려가 사례하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대신 공경의 뜻을 펴게 되었는데, 그대의 얼굴을 뵈게 되어 이보다 다행스러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숙부님과 족하께서 교유한 우의가 있음을 듣고는 한번 뵈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매우 떨어져 있고 경계에 한계가 있음이 마치 바람난 말이나 소도 서로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기에<sup>144)</sup> 늘 개탄하였습니다. 지금 뜻밖에 태수의 당(堂)에서 얼굴을 뵈어 평소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피차간에 응대할 때 전어관이 내청에서 급히 나오며 말하기를 “두 사신(使臣)<sup>145)</sup>이 이제 나오시니 속히 삼취(三吹)를 하십시오.”라고 하므로 우삼동 부자와 작별하고 숙부를 모시고 관소로 갔다. 도로에서 구경하는 자가 몇 천백인지 모를 정도였다. 도주가 사자(使者)를 보내 문후하므로 화상을 주었다.

### 13일 기미, 맑음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재판과 대청봉행이 관소 밖으로 나가 노닐기를 청하였다. 【도주의 뜻이라고 하였다.】 숙부와 부관(副官) 및 일행 수십 인이 앞을 인도하는 왜인을 따라 선창(船艙)의 서쪽에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더니 돌산이 우뚝하고 수목이 울창한데 중간에 작은 불당(佛堂)이 있었다. 불당의 처마 아래에 ‘광청사(光淸寺)’ 세 글자가 걸려 있고 곁에 ‘조선의 원성 만교가 쓰다.[朝鮮原城晩橋書.]’

144) 바람난……같기에 :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 보기 어려움을 토로한 표현으로 쓴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 조에 “그대는 북해에 살고 과인은 남해에 사니, 이는 바람난 말이나 소도 서로 미치지 못하는 거리이다.[君處北海, 寡人處南海, 唯是風馬牛不相及也.]”라고 하였다.

145) 두 사신(使臣) : 문위행(問慰行)의 정관과 부관인 김현문(金顯門)과 박춘서(朴春瑞)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만교’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되, 이렇게 바다 밖 이역에 와서 ‘조선’ 두 글자를 보니 마음이 몹시 기뻐다. 불당 가운데 서벽(西壁) 내에 1위(位)의 미타불(彌陀佛)을 모셨으며 불당의 오른쪽 옆에 하나의 층각(層閣)이 있는데 나무를 베어 덮개를 하였고, 동(銅)을 주조하여 만든 꽃을 그 위에 더하였는데 우산을 펼친 듯 좌우로 뻗어 있었다.

나와 여러 사람이 숙부를 모시고 구름사다리[雲梯]를 따라 위로 가서 창해(滄海)를 굽어보니, 만리에 펼쳐진 바람과 물결이 한 번 바라봄에 끝이 없어, 심신이 맑고 통쾌하여 나그네의 심사가 모두 사그라졌다. 한 줄기 푸른 산이 아득한 가운데 멀리 있는데 바로 일기도(壹岐島)라고 하였다. 부중(府中)의 여염집이 땅에 즐비하게 몰려 있는데 땅은 좁고 사람이 많아 산골짜기 사이에 또한 빈 땅이 없었다. 작년 실화(失火)로 인해 수천 호(戶)가 연소(延燒)되었다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

‘응조(應潮)’라고 이름한 누각에는 팔경(八景)이 있으니, ‘일기도의 맑은 이내[岐島晴嵐]’, ‘백목의 돌아오는 돛배[白木歸帆]’, ‘입구의 가을 달[立龜秋月]’ 【누각의 건너편 언덕에 돌이 거북처럼 서 있으므로 이름한 것이다.】, ‘과호의 밤 조수[波戶夜潮]’ 【나란한 바위가 창파(滄波)에 있어 물의 문과 같으므로 이름한 것이다.】,<sup>146)</sup> ‘호기의 고기 잡는 등불[虎崎漁火]’ 【섬 이름이다.】, ‘팔번의 저녁 종[八幡晚鍾]’ 【팔번궁(八幡宮)이다.】, ‘후산의 저녁 눈[後山暮雪]’, ‘해안의 백구[海岸白鷗]’ 【사찰의 이름이다.】 이 그것이다.

도주가 삼중(杉重)과 제백(諸白)을 보내 주어 일행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관소로 나아갔다. 그 뒤에 재판이 와서 이정암(以甔菴)의 다례(茶禮)에 관해 의논하여, 이달 18일과 19일 양일 중에 일이 없는 날에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보냈다.

## 14일 경신, 맑음

이날 저녁에 날씨가 맑고 화창하였고 달빛이 낮처럼 밝았다. 숙부님과 부관이 대청의 앞으로 나가 자리를 잡고 크게 풍악을 펼치니, 비장청(裨將廳)에서부터 아래로 통사,

146) 나란한……것이다 : 저본에는 ‘等石爲滄如水之戶故名’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자세하지 않다.

사공(沙工), 사령(使令) 등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일어나 춤추며 상하가 다 같이 즐거워하는 뜻을 보였는데, 밤이 깊은 뒤에야 그만두었다.

### 15일 신유, 맑음

인시(寅時)에 망하례(望賀禮)를 거행하였다. 재판과 대청봉행이 봉행(奉行)의 뜻으로 와서 아뢰기를 “도주께서 귀국의 풍악과 정재(呈才)를 구경하고자 하니, 악기를 소지하도록 하여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청봉행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랫사람들이 술에 취한 뒤에 패려(悖戾)한 행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족하께서 와 주신다면 매우 좋겠습니다.”라고 하므로, 내가 최령 심(崔令暹), 선장 서후치(徐後穉), 소동 김삼걸(金三傑)·정윤보(鄭潤寶), 통사 추올만(秋允萬) 및 악공 등 5인과 함께 도주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 왜인들과 상견례를 마치자 내청(內廳)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였는데, 바로 그저께 중연(中宴)을 베풀 때에 상상관을 접대한 곳이었다. 문과 창문을 모두 제거하여 대나무 발을 두루 드리웠고 뜰아래에 긴 자리를 펼쳐 정재(呈才)를 선보일 땅으로 삼았는데, 꽃나무 아래에 별도로 한 자리를 마련하여 나를 이끌어 앉게 하였다. 재판(裁判)이 말을 전하여 이르기 “오늘 태수(太守)의 안식구[內眷]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청(廳)의 위에 오르도록 청할 수 없었으니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왜인 집사 등이 술과 음식을 올렸다.

풍악을 울리게 하는데 비단옷과 화장한 얼굴로 섬세한 주름 안에서 영롱히 있는 자가 무수히 많았는데 신구(新舊) 도주 또한 그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봉행 대포충좌위문(大浦忠左衛門)·삼촌중(杉村仲)·평전장감(平田將監) 등이 주립 밖에서 모시고 앉았다가 우리나라의 춤을 구경하기를 청하므로, 내가 소동 등으로 하여금 나가 춤추게 하였다. 또 악공 원달(元達)의 춤을 구경하기를 청하니, 이는 바로 이전에 원달이 통신사행의 행차에 따라갔으므로 왜인들이 보고 아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어나 춤을 추게 하니 원달이 도약하여 펄펄 뛰며 그 기괴함을 자세히 다 보이자 구경하는 자가 포복절도하였다. 또 원천희(元天禧)로 하여금 각종 기예를 부리게 하였다. 약간의 상을 준 뒤에 그만두었다.

우삼동(雨森東)의 차자 송포청장(松浦廳長)이 그 형 현지윤(顯之允)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기에 봤더니, 거기에 “소생(小生)은 바로 우삼원장(雨森院長)의 손자로 이름이 ‘귀윤(龜允)’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자체가 어려 보였다. 내가 전어관으로 하여금 물어 말하기를 “이것은 네가 쓴 것이냐?”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소생이 썼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여덟 살이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것이 분명하여 마음속으로 매우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다. 즉시 지필(紙筆)을 찾아 적기를 “8세의 어린아이가 강보(襁褓)를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능히 문자를 쓰니 어찌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호랑이가 개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삼원장의 호학(好學)을 이을 것임을 짐치지 않고도 알 만하니, 몹시 경하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송포청장이 감사해 마지않으며 말하기를 “오늘 죽하께서 돌보고 사랑하신 뜻을 돌아가 가형(家兄)께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날이 이미 저물어 송포청장과 작별하고 악공 등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고 앞을 인도하게 하여 느릿느릿 관소로 갔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대포층좌위문이 상방(上房)과 부방(副房) 각각 제중(提重) 【합찬(盒饌)이다.】 을 올리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16일 임술, 맑음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재판(裁判)이 해안사(海岸寺)에 노닐기를 청했다. 숙부와 부관 및 상관 이하 수십 인이 함께 그 절에 이르렀는데, 절이 광청사(光淸寺)의 오른쪽에 있고 관소(館所)와의 거리가 1리 정도였다. 산문(山門)이 우뚝하고 당우(堂宇)가 널찍하였는데 【동향(東向)이다.】 당의 중앙에 금불(金佛) 3좌를 모셨고 금벽(金碧)이 휘황찬란하였다.

그런데 불상의 후벽(後壁)에 층으로 된 탁자(卓子) 위로 뻥뻥하게 삼대처럼 선 물건이 있어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나무로 자그마한 비갈(碑碣)을 만들어 옷칠에 금박을 가하여 그 면(面)에 ‘아무개 신사, 아무개 신녀<sup>147</sup>의 신위[某信士某信女之位]’라고 적었다. 전어관에게 묻기를 “이것은 무슨 뜻이며, 또 어찌하여 이렇게 많습니까?”라고 하자, 말

하기를, “가까이 있는 인가(人家)의 부조(父祖) 영위(靈位)입니다. 매양 그 사망한 날이 되면 그 물건<sup>148)</sup>을 꺼내어 제사지냅니다.”라고 하기에, 듣고는 매우 우스웠다. 통사왜 판우위문(判右衛門)에게 묻기를 “그대 집안 조상의 영위 또한 이 가운데에 있습니까?”라고 하니,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기를 “만약 밤이 캄캄하고 등불이 어둡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과 바뀌기가 쉬울 듯합니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당(堂) 안 동북쪽에 명왕(冥王)의 위(位)가 있으며 당의 앞뜰에 관음당(觀音堂)이 있었으며, 그 당의 뒤에는 돌비석이 무수히 많았는데 혹은 돌난간이나 돌문을 한 것도 있었다. 물어보니 말하기를 “비석 아래의 석갑(石匣)이 모두 매장한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절의 서남쪽은 모두 산이고 다만 동북쪽이 터져서 문득 바다를 굽어보니, 절을 이룬 것은 아마 이 때문이리라. 수풀이 창창(蒼蒼)하여 사계절이 긴 봄과 같아, 하늘 거리는 녹음이 울창하고 그윽하였고, 무[蘿菘], 상추[高菘], 푸른 파[靑蔥]의 등속이 한 여름과 다름이 없었다. 이는 필시 지세가 동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이지만 햇빛과 바람의 쌀쌀함은 우리나라와 다름이 없어 매우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재판과 봉행이 우리나라의 춤을 구경하기를 청하므로 당(堂) 위에서 크게 풍악을 펴서 선장 서후치(徐後穉), 예방 비장 서후봉(徐後逢) 및 박동식(朴東植), 김업기(金業基) 등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였다. 춤을 마치자 또 악공 원달(元達)이 춤추기를 청하므로 일어나 춤추게 하니, 구경하는 자가 시장처럼 많이 몰렸는데, 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재판과 통사왜(通詞倭) 무팔(茂八)이 각각 제중(提重)을 올리므로, 일행의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었다. 왜선(倭船)이 우리나라에서 돌아와 집에서 온 일행의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우리 집의 편지는 볼 수 없어 매우 서글펐다. 해가 저문 뒤에 관소로 나아갔다. 이정암(以酌菴) 장로가 집사승(執事僧)으로 하여금 문후하게 하므로 다과를 주어 보냈다.

147) 아무개 신사 아무개 신녀 : 일본에서 불교식으로 장사 지낸 남자의 계명(戒名) 밑에 붙이는 칭호를 신사(信士)라고 하고, 여자의 계명 밑에 붙이는 칭호를 신녀(信女)라고 한다.

148) 물건 : 망자의 신위(神位)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하의 물건도 같다.



## 17일 계해, 맑음

일이 없었다.

## 18일 갑자,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비가 음

이정암(以厔菴)의 집사승(執事僧)이 와서 행차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정암은 작년에 화재를 당하여 지금 남은 것이 없으므로, 장로승이 서산사(西山寺)에 옮겼다고 하였다. 절이 관소 서쪽 담장 밖에 있는데 보장(步障)<sup>149</sup>을 펴서 설치하여 대청(大廳) 앞까지 통하게 하였다. 숙부와 부관이 가마를 타고 덮개를 뿜는데, 상관 이하는 도보로 배종하였다. 집사승 2인이 문을 나와 영접하니, 나아가 대청 위에 이르렀다.

정청(正廳) 【동향(東向)이다.】의 서벽(西壁)에 1칸의 장방(粧房)이 있는데 안에 5층의 탑(榻) 탁상(卓床)을 설치하여 금수(錦繡)를 입혔고, 탑 위에 ‘조선국왕전하만만세(朝鮮國王殿下萬萬歲)’ 【옷칠 바탕에 붉은 글씨이다.】라고 쓴 전패(殿牌)를 봉안하였다. 전패의 앞에는 은촉(銀燭)과 금로(金爐)가 늘여져 있는데 촛불은 환하고 향연(香煙)은 짙었다. 숙부와 부관이 전패의 아래에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고, 나와 족장 여경씨(汝卿氏), 숙부 사징(士徵), 함유덕(咸有德), 변정서(卞廷瑞)는 영외(楹外)<sup>150</sup>에서 사배례를 행하였으며, 비장(裨將)들 또한 이에 따라 예를 행했는데 중관 이하는 영외(楹外)의 밖에서 예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고 등축을 끄고 문을 닫았다.

숙부와 장로승 및 봉행 삼촌중(杉村仲)이 두 번 읊하고 앉아 진무례(振舞禮)를 거행하였다. 당우(堂宇)가 협소했으므로 정침의 오른쪽에 새로 양봉(涼棚)을 설치하여 상관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또한 매우 정결하였다. 다례(茶禮)를 마치고 숙부를 모시고 관소로 나아갔다. 그 뒤에 장로승이 집사승을 보내 문후하므로 다과(茶果)를 주었다.

149) 보장(步障) : 옛날에 귀인(貴人)이 출행(出行)할 때에 바람과 먼지를 가리기 위하여 길 좌우에 친 휘장을 말하는데, 진(晉)나라 때 부호(富豪)인 석숭(石崇)이 너무도 사치스러워서 50리 길이의 비단 보장을 만들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汰侈』

150) 영외(楹外) : 궁궐의 정전이나 편전 등에서 안쪽 기둥 바깥의 전면 공간을 이르는 말이다. 이 공간은 안쪽 기둥의 밖과 건물의 주립 안쪽에 위치한다.

## 19일 을축, 하루 종일 큰비가 내림

### 20일 병인

밤새도록 비가 내려 내리고 개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바람 불고 흠비가 내려 울적한 마음을 견디기 어려웠다.

### 21일 정묘, 흐림

봉행 삼촌채녀(杉村采女)가 전어관 사랑병위(四郎兵衛)와 중우위문(重右衛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해 문후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이번에 먼 사역(使役)을 수행한 나머지 평소 앓던 병이 갑자기 생겼는데, 저희 섬은 궁벽하고 비루하여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듣기로 족하께서는 월인(越人)<sup>151</sup>과 같은 의술을 가지시어 사람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사람과 말을 보내니, 허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몹시 괴로운 마음에 일을 핑계 대어 거절하려고 하는데 숙부의 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동 정윤보(鄭潤寶), 통사 추올만(秋丕萬), 사령 김을미(金聃未) 및 사랑병위, 중우위문과 함께 삼촌채녀의 집으로 나아갔다.

문과 담장이 높고 크며 당우(堂宇)가 크고 우람한 것이 또한 녹식(祿食)하는 자의 기상이 있었다. 집을 관리하는 집사 등이 인도하여 객청(客廳)에 도착한 뒤 좌정하였다. 그 다음 삼촌채녀와 그 아들과 사위 2인이 나와서 두 번 읊하고 앉았다. 전어관 및 따라온 금도(禁徒) 등이 고개를 숙이고 달려가는 것이 마치 노예와 같았다.

인사말을 나누는 뒤에 그 병세를 논하였는데 전어관이 전하는 말이 그다지 명쾌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가 글을 적어 보여주고 이어서 필담(筆談)을 하며 서로 대답을 주고받는데, 음양의 소장과 장부(臟腑)의 생극(生剋) 및 경전의 고사(故事)를 섞어 인용해가며 비유를 들어 설명했더니, 우연히 그 뜻에 들어맞아 한목소리로 칭찬하고 탄복하며 감사해 마지않았다. 이는 감여가(堪輿家)가 망녕되이 화복(禍福)의 설을 말하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 허탄한 말에 미혹되어 진심으로 떠받들며神明(神明)처럼

151) 월인(越人) : 명의(名醫) 편작(扁鵲)의 이름이다. 편작은 전국 시대(戰國時代) 정(鄭)나라 사람으로, 성은 진씨(秦氏)라고 한다.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매우 우습다.

삼촌채녀가 사랑병위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지금 보잘것없는 음식을 갖추었는데 주인과 빈객이 서로 마주하면 불편할 듯합니다.”라고 하고는 배례(盃禮)를 함께 거행한 뒤에 즉시 들어가고, 그 집안의 친속 및 전어관과 금도 등이 차례로 술을 권하고 구미(九味)를 올린 뒤에야 그쳤다. 남녀노소 수십 인이 청(廳) 밖에 기다렸다가 일제히 병세를 묻느라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 진실로 난감하니 또한 하나의 고된 상황이었다. 해가 저문 뒤에 삼촌채녀와 작별하고 관소로 돌아왔다.

## 22일 무진, 맑음

이정암(以酌菴) 장로승(長老僧)이 집사승 6인과 약당(若堂) 【가까이 거느리는 부류이다.】 2인과 와서 문후하고 아울러 사의(謝意)를 표하는 뜻을 전하였다. 가마를 타고 붉은 양산을 썼는데 종자(從者)가 매우 많았다. 이는 그 국속(國俗)이지만 몹시 괴이하고 놀라웠다.<sup>152)</sup> 재판과 대청봉행 등이 또한 함께 왔으므로 한결같이 음식을 대접하고 보냈다.

## 23일 기사, 잠깐 흐리다가 잠깐 만에 맑아짐

도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문후하였고, 이정암 장로가 집사승(執事僧) 2인으로 하여금 와서 문후하게 하고 채전(采箋)을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빈관(賓館)에 나아와 성대한 음식을 잘 받았으니, 정성스레 넉넉히 대접해 주시는지라 감동되어 기쁜 마음이 참으로 깊고 감사하는 충정이 끝이 없습니다. 인하여 거친 율시(律詩) 한 수를 읊어 아울러 두 분 사절(使節)께 올리니, 한 번 웃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두 나라 좋은 이웃으로 지냈는데  
 다행히도 부절 잡은 사신을 만났구나

終古兩邦通善隣  
 幸逢持節使槎臻

152) 이는……놀라웠다 : 승려가 행세하지 못하는 조선과 다름을 의아하게 여긴 것이다.

험난한 일 천 리 푸른 파도를 건너며	嶮超滄波一千里
몇 만 년 동안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했었나	盟誓山海幾萬春
고취를 울리는 관소에서 예법을 우르러고	鼓吹館中瞻禮典
연향 자리 쟁반 속에 정갈한 진미를 나열했지	燕筵盤裏列清珍
담소할 때 귀하게도 이곳 말 아셨으니	交談貴解此方語
진정을 다 기울임에 친함이 더욱 친해졌다오	傾盡真情親更親

끝에는 ‘여산광훈(驢山光瑄)’이라고 적었다. 화과(花果)를 주어 그 간곡한 뜻에 사례 하여 보냈다.

### 24일 경오, 계속 비가 오다가 쾌청해짐

일행의 여러 사람들과 선창에 나가 한참 동안 배회하다가 흥을 풀고 돌아왔다.

### 25일 신미, 맑음

숙부와 부관 및 일행 여러 사람들이 선창에 나갔는데 나 또한 배종하였다. 원달(元達) 등으로 하여금 크게 풍악을 펴게 하니, 구경하는 자가 시장처럼 몰려들었다. 선창의 도도금도가 원천희(元天禧)의 정재(呈才)를 구경하기를 청하였으나 땅에 돌부리가 많아 행할 수 없었으므로 대략 행하고 그만두었다.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 26일 임신, 잠깐 비오다 잠깐 만에 맑아짐

우삼동(雨森東)이 그 손자 귀윤(龜允)과 함께 와서 숙부님을 만났다. 인사말을 마치고 귀윤이 품에서 그 부친 현지윤(顯之允)의 편지를 꺼내어 나에게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를 건너오신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즉시 달려가 뵈었어야 했는데 질병과 금기

(禁忌)가 아울러 있어 저에게 괴상한 핑계를 만들었으니, 서글픈 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못난 아이가 저번에 공의 당(堂)에서 한두 글자를 썼는데 뜻밖에 지나치게 장려하며 사랑해 주시고 매우 외람되게도 후한 선물까지 주셨으니, 자식을 사랑하는 정에 감사한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군(家君 우삼동(雨森東))께서 관소에 나가면서 다시 데리고 가시는데, 어린 마음이 못나고 거칠어 엄숙한 자리에서 반드시 긴장하지 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끌어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에 자금단(紫金丹), 옥추단(玉樞丹), 박하전(薄荷煎) 및 사청환(瀉淸丸)의 제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비록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만 진가(眞假)를 알지 못하므로 감히 밝게 가르쳐 주시어 어두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청환은 가장 모르겠으니, 그 주된 치료와 포제법(炮製法)을 상세히 다 적어 주시기를 우러러 간망합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나머지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였으니 바라건대 허물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바야흐로 봄비가 내리는데 더욱 보증하십시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우삼동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략 문자를 아니, 이 아이가 써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소동(小童)으로 하여금 지필(紙筆)을 꺼내어 주게 하니, 귀윤이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소매를 걷고 붓을 잡아 큰 글씨 28자로 다음의 시<sup>153)</sup>를 썼다.

갈대꽃 핀 깊은 연못에서 조용히 낚시줄 드리우니	蘆花深澤靜垂綸
달 뜬 밤 안개 낀 아침 몇 십년 세월인가	月夕煙朝幾十春
스스로 말하노니 차가운 물가 외론 배에서	自說孤舟寒水畔
홀로 깬 사람 만나 본 적 없다고	不曾逢着獨醒人

28자인데, 전날 도주의 집에서 내가 봤던 가는 글자와 크게 달랐다. 그 배치와 자획이 바르고 분명하고 허다한 글자를 기억해 내어 손이 가는대로 쓰되 조금도 잘못되고 빠뜨리지 않았으니, 진실로 매우 기특하고 묘했다. 상방(上房)과 부방(副房)에서 지필묵

153) 다음의 시 : 두목(杜牧)의 시 「어부에게 주다[贈漁父]」이다.

(紙筆墨)을 상으로 주고 나 또한 과자를 많이 주었다. 그리고 그 부친 현지윤에게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냈다.

오늘 그대 부친께서 외람되이 방문하신 것은 진실로 뜻밖인데 돌보고 사랑하는 우의가 특히 보통이 아닌지라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또 아드님 귀윤이 와서 편지를 전해 주어 이를 통해 족하께서 조리하는 체후가 아직까지 낫지 않으심을 알았으니, 몹시 근심스럽습니다.

지난번 태수(太守)의 당(堂)에서 아드님을 보고는 기특하고 사랑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여 짧은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지나치게 칭찬해 주시니 너무나 부끄럽고 무안하여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귀윤을 보니 그대의 얼굴을 대하는 듯한데, 사람들이 뻑뻑하게 있는 넓은 자리에서 소매를 걷고 붓을 휘둘러 큰 글씨로 28자를 특별히 썼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배치와 자획이 정연히 법도가 있어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니, 얼마나 기이하며 얼마나 장합니까. 족하께서 훌륭한 자식을 두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보여 주신 네 가지 환제(丸劑)에 관한 법식은 마침 상황이 어수선하여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없었으니, 천천히 기록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 27일 계유,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비가 음

우삼동(雨森東)의 아들 송포청장(松浦廳長) 및 평산병장(平山兵藏) 등이 도주의 명으로 와서 초목(草木)과 금수(禽獸)에 대해 강론하였다. 작년 여름에 일대관(一代官) 월상우위문(越常右衛門)이 전서관(典書官)을 겸대(兼帶)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초목과 금수의 이름을 배우기를 청하여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상우위문이 왜관(倭館)에서 병들어 죽었으므로 그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송포청장 등이 와서 완성하지 못한 것을 질정한 것이다.

### 28일 갑술, 맑음

봉행 삼촌중(杉村仲)과 왜인 집사들이 와서 신도주(新島主)의 회답 서계(回答書契)와 별폭 및 구구도주(舊舊島主) 평의성(平義誠), 구도주 평방희(平方熙), 평미일(平彌一 소요시유키(宗義如))의 아명 도서(兒名圖書)를 수량에 맞추어 봉납(捧納)하였다. 그 뒤 화상(花床)을 대접하여 보냈다.

오후에 근습(近習) 【도주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다.】 영목시지진(鈴木市之進)이 예단 단자(禮單單子)를 가지고 왔으므로, 해당 색(色) 등으로 하여금 수량에 맞추어 봉상(捧上)하여 일행의 여러 사람들에게 분급하였다.

### 서계(書契)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여(平義如)가 조선국 예조(禮曹) 대신(大人) 합하(閣下)께 삼가 답합니다. 사신(使臣)께서 막 오시어 화첩(華帖 서계(書契))을 받들어 읽고는 이를 통해 귀국(貴國)이 편안하고 좋으심을 알았으니, 위로되고 안심됨이 평상시보다 더합니다. 저는 지난번 균명(鈞命)을 받들어 가업을 잇고 이웃나라의 우호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지난해에 처음 주(州 에도[江戶])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멀리 상관(象官)<sup>154</sup>을 번거롭게 하고 외람되어 성대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많은 의례(儀禮)와 진기한 물품은 더욱 두터운 뜻에서 나왔기에 몹시 감사한 마음이 드니, 사례하는 마음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또 지난가을에 사자(使者)를 보내 요청한 새 인장(印章)을 주조해 보내 주셨는데, 감사히 수령하였습니다. 즉시 동무(東武)<sup>155</sup>에 아뢰고 이어서 전임 두 태수(太守)의 도서(圖書)와 아명 도서(兒名圖書) 총 3과(顆)를 다시 돌려 드립니다. 별도로 보잘것없는 물건을 기록하여 회답하는 정성을 표하니, 지휘하여 거두어 두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모두 살펴 주시기를 빕니다. 삼가 줄입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향보(享保) 19년 갑인 2월 모일 대마 태수(對馬太守) 습유 평의여(平義如)

### 별폭(別幅)

물목(物目)은 칩금소병풍(貼金小屏風) 3쌍, 수정갓끈(水晶笠緒) 15결(結), 황련(黃蓮)

154) 상관(象官) : 역관(譯官)을 가리킨다. 41쪽 주 68) 참조.

155) 동무(東武) : 에도[江戶]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15근, 수랍중청명(粹籟中淸皿) 30개, 수랍중명완(粹籟中茗碗) 30개, 채화괘연(彩畫掛硯) 1비(備), 채화화전갑(彩畫花箋匣) 2개, 채화문갑(彩畫文匣) 2개, 채화서가(彩畫書架) 2각, 채화의향(彩畫衣桁) 2각, 채화유부대원분(彩畫有趺大圓盆)<sup>156)</sup> 10매, 주간연기(朱竿煙器) 50약(握),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이다.

상관 25원은 단목(丹木) 4125근, 소연죽(小煙竹) 3750개, 중갑초(中匣草) 100개, 문지(紋紙) 50축(軸)이고, 중관 25인은 단목 425근, 소연죽 750개, 문지 43축 75장이고, 하관 13명은 단목 143근, 소연죽 273개, 문지 13축이다.

## 29일 을해, 맑음

도주의 외조부 통구손좌위문(樋口孫左衛門)이라는 자가 병이 있어 끊임없이 살피 주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에 소동 정윤보(鄭潤寶), 통사 추올만(秋丕萬), 사령 김올미(金丕未), 통사왜 사랑병위무팔(四郎兵衛茂八)과 함께 통구손좌위문의 집에 이르렀다. 당우(堂宇)가 크고 널찍하며 사치하고 화려한 것이 도주의 집과 마찬가지로었는데, 객청(客廳)의 남쪽 벽 붉은 주렴 안에 비단옷과 화장한 여인 및 연로한 백발노인들이 무수히 모여 있었다. 내가 사랑병위무팔에게 물기를 “이는 객실(客室)인데 어찌 그리도 여인이 많습니까?”라고 하니, 말하기를 “주렴의 안이 이 집의 내실(內室)과 서로 통해 있는데, 구 도주의 부인 및 신도주의 모친이 마침 이곳에 오시어, 귀국의 의관(衣冠)을 구경하고자 하여 여러 부녀들과 모여 앉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조금 뒤에 통구손좌위문이 나와 좌정(坐定)하여 병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마치자 사랑병위무팔로 하여금 말을 전하기를 “조출한 음식을 조금 차렸지만 우리나라는 주례(酒醴)가 엄격하여 불편합니다. 저는 재판송사(裁判送使)로 귀국에 나간 적이 있으므로 귀국의 법을 조금 이해하니, 귀국의 예(禮)로써 주례를 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통구손좌위문이 그 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술과 안주를 올리게 하였는데 음식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음식과 매우 유사했다. 통구손좌위문이 정성스럽게 술을 권하며 말하기

156) 채화유부대원분(彩畫有趺大圓盆) : 원문은 ‘彩畫有趺大圓盆’이다. 문맥에 의거하여 ‘趺’을 ‘趺’로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를 “저는 이전에 봉행(奉行)의 반열을 지냈는데, 지금은 늙고 병들어 물러나 쉬는지라  
 말은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숙부께 나아가 인사드릴 수 없어 바야흐로 매  
 우 서글퍼 하다가, 뜻밖에 지금 그대의 얼굴을 뵈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있겠습니  
 까. 오늘은 날씨가 청량하고 햇별이 화창하니, 회포를 열고 마음껏 술을 드시어, 먼 곳  
 의 손님을 후대하는 즐거움을 삼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매우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하지만 주량이 적다고 사양하여 몇 차례 술잔을 돌리고 그만두었다.

두세 사람의 병자를 진찰한 뒤에 통구손좌위문과 작별하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도주  
 를 만나 말을 돌려 피하였다. 전어관에게 물어보자 말하기를 “도주가 떠날 시기가 가  
 까이 왔기 때문에 만송원(萬松院)의 묘소에 가서 참배했다가 지금 통구손좌위문의 집  
 으로 향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길옆 인가의 담장 안으로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홍색과 백색이 뒤섞여 피었는데, 미풍(微風)이 한 번 불자 향기가 코를 찌르니,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고삐를 잡고 천천히 가며 좌우를 구경하면서 느긋이 돌  
 아왔다.

### 30일 병자, 비가 음

비선(飛船) 1척이 초량(草梁)으로부터 들어와, 집으로 보내는 일행의 편지를 전해주었  
 다. 하지만 우리 집의 편지는 볼 수 없어 마음이 몹시 서글펐다. 여러 차례의 배편에  
 매양 이와 같으니, 매우 이상하다.

## 3월 작은달

### 초1일 정축, 맑음

인시(寅時)에 망하례(望賀禮)를 거행하였다. 내가 초량(草梁)에 있을 때에 왜인 도촌리 좌위문(嶋村理左衛門)이라는 자가 중금도(中禁徒)로 왜관(倭館)에서 나와 빈번하게 와서 만났는데, 사람됨이 단정하고 선량하였으므로 음식물이 생기기만 하면 반드시 주었다. 그 왜인이 임기가 차서 섬으로 돌아갔다가 관소(館所)의 문밖에 와서 문후하므로, 내가 금도청(禁徒廳)에 말을 전하여 그를 들여보내게 하였다. 도촌리좌위문이 종종걸음으로 들어와 꿇어앉아 절하고, 통사왜(通詞倭)로 하여금 전일의 감격스러웠던 뜻을 전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존공(尊公)이 배에 오르던 날에 작별을 고할 길이 없어 마음이 몹시 슬프고 서운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사할 수 있었으니, 더욱 뜻밖이라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어찌 이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손을 들어 사례를 표하는데 간곡해 마지않았다. 저 사람이 비록 우리의 무리가 아니지만 그 마음은 가상하였다. 약간의 술과 과일을 주어 보냈다.

### 초2일 무인, 맑음

구구도주(舊舊島主)인 평의방(平義方)<sup>157</sup>의 아들 촌강좌경(村崗左京)이 질병이 있었는데, 시임(時任) 도주와 당종(堂從) 간이다. 대청봉행(大廳奉行) 등으로 하여금 가서 간절하게 와 주도록 청하므로, 나와 소동 정윤보(鄭潤寶), 통사 김험찰(金險札), 사령 김올미(金聃未) 및 전어관 중 우의문(重右衛門)과 광송무팔(廣松茂八)이 모두 그 집으로 나아갔는데, 집이 도주 집 뒷산의 아래에 있었다.

촌강좌경은 나이가 겨우 18세인데 두 눈이 모두 멀어 예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도주가 도도금도(都都禁徒) 한 사람을 보내어 곁에 서서 그 접견하는 예를 대신 행하게 하였다. 그 병이 생긴 원인을 물어보니 말하기를 “어렸을 때에 감창(酣脹)에 심하

157) 구구도주(舊舊島主)인 평의방(平義方) : 『해행기』에서 구구도주는 제6대 도주인 소 요시노부(宗義誠, 1692~1730)이다. 소 요시미치(宗義方, 1684~1714)는 제5대 도주로 착오가 있는 듯하다.

게 걸려 두 눈이 어두워졌는데, 가루약을 잘못 넣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가루약을 점안(點眼)하는 문제가 대개 이와 같다. 내가 답하기를 “안구가 돌출하였고 흰 꺼풀이 이미 두껍게 되었으니 비록 월인(越人)<sup>158</sup>이 다시 살아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말하기를 “맹인인 제가 다시 볼 수 없음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격막(橫膈膜)이 막히고 배가 부풀며 설사하는 증세가 지금 고질병이 되어 원기(元氣)가 점점 고갈됩니다. 바라건대 죽하께서는 이런 여러 증상들을 제거하여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은덕을 어찌 잊겠습니까.”라고 하니, 그 말이 진실로 애처로웠다. 이에 간(肝)을 억누르고 비장(脾臟)을 북돋는 약제(藥劑)를 글로 적어 주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촌강좌경이 그 왜인 집사로 하여금 즉시 술과 안주를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저는 병들어 버려진 사람으로 앉아서 존객(尊客)을 대접할 수는 없으므로 저희 도주께서 특별히 도도금도를 보내어 그 예(禮)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몹시 서글프고 허전합니다. 바라건대 죽하께서는 허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사람을 붙잡고 들어가는데 도도금도가 또 그 곁에 서서 두 번의 읍례(揖禮)를 대신 행하였다. 도도금도 및 그 집안 친속(親屬) 6, 7인이 서로 술을 권하는데 일곱 가지 음식을 올리고 나서야 그쳤다.

남녀노소가 일제히 병세에 대해 질문하는데 이보다 괴로울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만두고 자 해도 그만둘 수 없다<sup>159</sup>는 것이다. 문답하는 사이에 화장하고 비단옷을 걸친 여인 수십 인이 창문 구멍을 찢어서 얼굴의 반을 드러내고 뺨히 바라보니, 몹시 해괴한 일이었다. 중우위문(重右衛門)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여인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라고 하니, 말하기를 “이는 모두 촌강좌경이 부리는 여자입니다. 관(官)에서 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평생토록 시집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날이 저문 뒤에 여러 사람들과 관소로 돌아왔다. 어두워지고 나서 도주가 강호(江戶 에도)에 들어가기 위하여 배에 올라 선창 동쪽에서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도

158) 월인(越人) : 편작(扁鵲)을 말한다. 96쪽 주 151) 참조.

159) 그만두고자……없다 : 안연(顏淵)이 스승 공자의 학문에 대해 감탄하며 한 말로 여기서는 단장취의한 것이다. 『논어』 「자한(子罕)」에 “공부를 그만두고자 하나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니, 내 앞에 우뚝 선 듯하였다.[欲罷不能, 既競吾才, 如有所立卓爾.]”라고 하였다.

주의 사자(使者)가 와서 문후하므로 화상(花床)을 주었다.

### 초3일 기묘, 맑음

이날은 바로 삼월삼짇날이자 또 청명절(淸明節)이다. 나와 두 분 숙부가 청(廳)의 앞에 자리를 설치하고 크게 풍악을 펴서 일행의 여러 사람들과 상하가 함께 즐겼다. 도주가 쑥떡[艾餅]과 제백(諸白)을 보내 주기에 비장청, 호방소(戶房所), 통사, 사령, 공인(工人), 사공(沙工), 머슴들, 전어관, 매물번(買物番)<sup>160)</sup> 등에게 나누어 주었고, 숙부께서는 제중(提重)과 제백을 올렸으며, 또 나와 두 분 숙부 및 서너 사람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보내 주었다. 조용히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여 김비 업기(金裨業基)로 하여금 통소에 맞춰 노래하게 하였다. 한참 동안 즐겁게 잔치하다가 그만두었다.

재판과 대청봉행이 와서 별하정(別下程), 상선연(上船宴) 및 승선(乘船) 일자를 의논하였는데, 별하정은 내일 거행하고, 상선연은 이달 16일에, 승선은 이달 24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냈다.

### 초4일 경진, 맑음

목부(目付) 대포여일위문(大浦與一衛門)이 별하정 단자(別下程單子)를 가지고 왔으므로, 호방 비장 유동휘(柳東輝)가 봉상(捧上)하여 분급하였다.

상방(上房)과 부방(副房)은 각각 삼중(杉重) 1좌, 방어 2마리, 사슴 다리[鹿脚] 2개, 청주(淸酒) 1동이이다. 상관 25인은 찰밥[粘飯] 1통(桶), 방어 2마리, 청주 1통이다. 중관 25인은과 하관 13명은 위와 같다.

이름이 춘일현의(春日玄意)인 나이 어린 왜인이 전어관 중우위문(重右衛門)과 함께 와서 인사하고 말하기를 “저의 조부 미전감우위문(米田勘右衛門)과 부친 감삼랑(勘三郎)은 모두 침술(鍼術)로 섬에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찍 돌아가셨으

160) 매물번(買物番) : 물건을 취급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69쪽 주 123) 참조.

므로 제가 어려 가업(家業)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섬은 좁고 비루하여 사사(師事)할 길이 없어 늘 한탄하고 울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족하께서는 의서(醫書)를 넉넉히 보시어 죽은 이를 일으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족하께서는 어리석은 저를 가르쳐 성취하게 하시어 부형(父兄)의 가업을 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은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놀랐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는 필시 공이 풍문을 잘못 들은 것이네.”라고 하니, 춘일현의가 말하기를 “이번에 족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뒤에 그저 명성만 떠들썩할 뿐만이 아니라 고질병과 괴질에 걸린 자가 소생할 수 있었던 경우 또한 많았습니다. 진실로 족하의 말씀대로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바라건대 족하께서는 지나치게 겸손해 하지 마시고 일일이 밝게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우위문이 옆에서 간절히 권유하며 말하기를 “말을 전하기가 비록 괴로울 것이지만, 끝까지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 사람이 필시 무안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얼굴을 봐서라도 밝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익힌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춘일현의가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었는데, 바로 침구(鍼灸)에 관한 책이었다. 곳곳에 부표(付標)를 하였는데 부표마다 물어보면 내가 그 문리(文理)를 풀어 분석하여 깨우쳐 주었다. 그 왜인이 마음 가득 기뻐하며 말하기를 “지금 존공의 말을 들으니 가슴속이 시원합니다. 이미 밝은 가르침을 받들었으니, 지금을 시작으로 날마다 와서 뵈겠습니다. 바라건대 괴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머리 숙여 감사함을 표하고 돌아갔다. 저 사람이 성심으로 학문에 나아가 그 부형의 가업을 이으려고 하니 비록 매우 가상하다. 하지만 나는 실상이 없으면서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한 격<sup>161)</sup>이라 장차 남의 자식을 해친다는 꾸지람을 면치 못할 것 같다.<sup>162)</sup>

161) 남의……격 : 충분한 역량이 없으면서 스승 노릇하는 세태를 경계하는 말이다.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사람들의 병통은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함에 있다.[人之患, 在好爲人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62) 남의……같다 :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여 남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까를 경계하는 말이다. 『논어』 「선진(先進)」에, 자로(子路)가 자고(子羔)를 비읍(費邑)의 읍재(邑宰)로 삼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 초5일 신사. 맑음.

나이 어린 왜인 한 명이 전어관 청석위문(淸石衛門)과 함께 와서 질병에 관해 물어보았다. 또 말하기를 “저의 이름은 아비유구오랑(阿比留久五郎)이고 호(號)는 봉명(鵬溟)인데, 바로 우삼원장(雨森院長)의 문인입니다. 스승 우삼원장을 통해 명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인사를 드리고 외람되이 얼굴을 뵈 수 있었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행동거지가 공손하고 삼가며 언사(言辭)가 장중하고 고아한 것이 다소 사문(斯文)의 풍도가 있었다. 함께 필담을 나누다가 한참이 지나 그만두었다.

춘일현의(春日玄意)가 내알(來謁)하여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며 말하기를 “이는 귀국(貴國)의 침의(鍼醫) 이수보(李秀甫)가 돌아가신 부친(父親 감삼랑(勘三郎))에게 선사한 책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건네받아 보니 이수보가 혈법(穴法)을 전수하며 감삼랑을 권면(勸勉)하는 내용이었는데, 춘일현의의 뜻은 나로 하여금 또한 이수보가 그 아버지에게 선사한 것처럼 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전어관 등이 춘일현의의 뜻을 알고 나에게 권하기에 내가 붓 가는 대로 적기를 “대마도 고을 사람 미전감좌위문(米田勘右衛門)과 그 아들 감삼랑은 모두 침술로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린 자이다. 그 자손 춘일현의가 빈관(賓館)으로 나를 방문하여 말하기를 ‘저희 조부와 저의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제가 어려 그 가업을 전수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구침(九鍼)<sup>163</sup>의 법을 전수 받아 그 가업을 잇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춘일현의를 살펴보니, 청수(淸秀)하고 단정한 데다 또 학문을 구하는 정성이 가상했으므로, 나의 식견이 얕고 재주가 졸렬함을 헤아리지 않고서 약간의 혈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에 어찌 그대의 스승이 되겠는가. 또한 하나의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뜻일 따름이다. 듣건대 귀방(貴邦)의 축전(筑前)과 대판(大板) 같은 고을에 현자(賢者)

“남의 자식을 헤치는구나.[賊夫人之子.]”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63) 구침(九鍼) : 9종류의 침인 참침(鑢針), 원침(員針), 시침(鍔針), 봉침(鋒針), 피침(鈹針), 원리침(員利針), 호침(毫針), 장침(長針), 대침(大針)이다. 자세한 내용은 『황제내경영추(黃帝內經靈樞)』 「구침론(九鍼論)」에 나온다.

가 많이 있다고 하니, 책 상자를 지고 가는 수고로움을 꺼리지 말아 현기(玄機)를 가려 취해 고명(高明)한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춘일현의는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왜인이 입에 가득 감사함을 표하며 말하기를 “뜻밖에 이수보의 옛일이 오늘날 다시 있게 되었으니, 저의 부자(父子)가 귀국과 인연이 있다고 할 만합니다. 마땅히 이수보의 책과 함께 10대를 이어 보관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라고 하니, 진실로 우습다.

### 초6일 임오, 비가 음

가초량(加尙梁) 격군 양선건(梁善巾)이 수십 일 전에 열병을 심하게 앓아 병세가 위중하였다. 그러므로 관소 밖의 인가(人家)로 내어서 머물게 한 뒤 다양하게 치료하였다. 하지만 병세가 더해지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아 마침내 어젯밤에 죽었다고 하니, 듣고는 몹시 참혹한 마음이 들었다. 약간의 염구(殮具)를 지급해 주고 비선(飛船)을 통해 내어 보내기로 대청봉행처에서 결정하였다.

### 초7일 계축, 맑음

오늘은 나의 백부 지추공(知樞公)<sup>164</sup>의 생신이다. 작년 이날은 백부의 회갑(回甲)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러 사촌들이 작은 잔치를 베풀어 축수(祝壽)를 올렸다. 하지만 나는 초량(草梁)의 임소에서 종숙부(從叔父)를 모셨으므로 온 집안이 단란하게 모일 수 없어 서운한 심정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천 리 창과의 밖 섬 지역에 와서 또 이날을 맞이하니, 서글프고 울적한 마음에 더욱 어찌할 수 없다. 작은 술자리를 열어 숙부의 마음을 삼가 위로하려고 했으나 격군에게 일이 생겨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더욱 더 슬펐다.

### 초8일 갑신, 맑음

164) 백부 지추공(知樞公) : 김지남(金指南)의 장남인 김경문(金慶門)을 가리킨다.

승선(乘船)할 날짜가 멀지 않아 선장 서후치(徐後穰)와 선창금도(船滄禁徒) 및 각 방면의 왜인 장인 등으로 하여금 배 안의 짐물(什物)을 살펴보게 하고, 이번 15일과 16일 양일 가운데 일이 없는 날에 연훈(煙熏)하기로 대청봉행처에서 결정하였다.

### 초9일 을유,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왜선(倭船)이 돌아와 정박하였는데, 지난 1월 29일에 쓴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바로 볼 수 있었다. 집안사람의 안부가 별탈이 없고 백부의 체후가 한결같이 편안하다고 하니, 몹시 기쁘고 다행스러웠다.

### 초10일 병술, 종일토록 흐리고 비가 음

우삼동(雨森東)의 문인 봉명(鵬溟)과 춘일현의(春日玄意)가 와서 함께 필담을 나누다가 해가 저문 뒤에야 돌아갔다. 정감이 있다고 할 만한데, 또한 울적한 회포를 풀기에 충분하였다.

### 11일 정해, 잠깐 비가 오고 잠깐 만에 맑아졌다가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

### 12일 무자, 비가 음

구도주의 근습(近習) 내야시랑좌위문(內野市郎左衛門)과 기도우의문(幾度又右衛門)이 구도 주의 회답 서계(回答書契)와 별폭(別幅), 예단 단자(禮單單子)<sup>165</sup>를 가지고 왔으므로 수량에 맞추어 봉상하고, 호방(戶房) 감관으로 하여금 일행의 인원에게 분급하게 하였다.

---

165) 예단 단자(禮單單子) : 대본에는 ‘禮單單字’로 되어 있는데, 문맥 및 일반적인 용례에 의거하여 ‘字’를 ‘子’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서계(書契)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민부대보(民部大輔) 평방희(平方熙)가 조선국 예조(禮曹) 대인(大人) 합하(閣下)께 삼가 답합니다. 멀리서 서신(書信)을 받들어 우렁차게 재삼 반복해 읽고는 이에 체후가 좋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기쁘고 시원스런 마음을 이루다 형언하겠습니까. 저는 일을 사직하여 한직에 나아가고, 집안의 조카가 명을 받들어 가업을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외람되어 경하와 위로를 받고 또 후한 예물까지 수령하였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실로 깊습니다. 아래의 별폭은 비록 박하더라도 저의 정성을 거칠게나마 편 것이니, 헤아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향보(享保) 19년 갑인 2월 일에 대마주 민부대보 평방희

### 별폭(別幅)

물품의 목록은 첩금소병풍(貼金小屏風) 3쌍, 수정갓끈(水晶笠緒) 15결(結), 황련(黃蓮) 15근, 수랍중청명(粹蠟中淸皿) 30개, 수랍중명완(粹蠟中茗碗) 30개, 채화괘연(彩畫掛硯) 1비(備), 채화화전갑(彩畫華箋匣) 2개, 채화문갑(彩畫文匣) 2개, 채화서가(彩畫書架) 2각, 채화의향(彩畫衣桁) 2각, 채화유부대원분(彩畫有趺大圓盆)<sup>166)</sup> 10매, 주간연기(朱竿煙器) 50약(握), 적동루오관반(赤銅累五盥盤)이다.

상관 25원은 단목(丹木) 1000근, 소갑초(中匣草) 375개이고, 중관 25인은 단목 450근, 소갑초 250개이고, 하관 13인은 단목 46근, 소갑초 170개이다.

### 13일 기축, 낮에 비가 오고 저녁에 맑음

일이 없었다.

### 14일 경인, 아침에 비가 오고 저녁에 맑음

166) 채화유부대원분(彩畫有趺大圓盆) : 대본에는 ‘彩畫有趺大圓盆’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 및 일반적인 용례에 의거하여 ‘趺’를 ‘跽’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장우(瘴雨)가 흥건하도록 내리고 연일(連日) 개지 않으니 나그네의 회포가 근심스럽고 울적하였다. 소동 정윤보(鄭潤寶)와 금도청(禁徒廳)으로 나가 도도금도 평산향좌위문(平山鄉左衛門)과 한참 동안 한담(閑談)을 나누고 돌아왔다.

### 15일<sup>167)</sup> 신묘, 맑음

인시(寅時)에 망하례(望賀禮)를 거행하였다. 선장 서후치(徐後穉)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사공과 격군 및 금도, 왜인 장인 등을 거느리고 배 안을 수리하여 물이 새는 문체가 없도록 하고 이어 훈연(燠煙)을 하였다.

춘일현의(春日玄意)가 또 와서 혈법(穴法)을 강론(講論)하였는데 글로 적어 나에게 보이기를 “우리나라의 부인이 나이 20이 지나면 배 안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10에 8, 9는 됩니다. ‘토용팔전(土用八專)’<sup>168)</sup>의 시기에 이르면 그 병이 더욱 심해져 난감합니다. 귀국의 부인들 또한 이러한 질환이 있습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춘일현의에게 묻기를 “글 가운데 ‘토용팔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라고 하자, 말하기를 “병을 앓는 부인이 매양 네 중월(仲月)이 되면 초하루에서 19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혹은 일찌감치 혹은 늦도록 3, 4일이나 혹 5, 6일 간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 나아지고, 19일이 지나면 아프지 않다가 또 중월이 되면 그 통증이 전과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진실로 괴이한 일이지만 이른바 토용팔전은 끝내 잘 모르겠네.”라고 하자, 말하기를 “이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래하는 방언(方言)인데, 저 또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몹시 괴이하였다.

### 16일 임진, 맑음

도주가 묘시(卯時)에 배를 출발시켜 강호(江戶 에도)로 들어갔다. 재판 육랑좌위문(六

167) 15일 : 대본에는 ‘十五’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의거하여 ‘五’ 뒤에 ‘日’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168) 토용팔전(土用八專) : ‘토용’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전의 약 18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1년에 4회의 토용이 있는데, 보통은 입추 전의 여름철의 토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팔전’에 관한 한 주장으로, 날의 60 간지 중 49번째인 임자(壬子)와 60번째인 계해(癸亥) 사이의 12일 중 계축(癸丑), 병진(丙辰), 무오(戊午), 임술(壬戌)의 나흘을 제외한 나머지 8일을 가리킨다고 한다.

郎左衛門)과 도주의 예방왜(禮房倭) 대석반오(大石伴五)가 상선연(上船宴)의 건물 단자(乾物單子)<sup>169</sup>를 가지고 왔으므로, 【도주가 배에 올랐기 때문에 거행할 수 없었다.】 호방 비장(戶房裨將) 유동휘(柳東輝)로 하여금 수량에 맞추어 봉사하게 하였다.

상상관(上上官) 2원에 대한 연향(宴享)의 수용(需用)은 31종이고, 대은(代銀)은 11냥 6전 8푼 6리이다. 상관(上官) 25원에 대한 연향의 수용은 15종이고, 대은은 9냥 3전 2리 6호(戶)이다. 중관(中官) 25인에 대한 연향의 수용은 10종이고, 대은은 4냥 6전 8푼 1리 8호이다. 하관(下官) 13명에 대한 연향의 수용은 9종이고, 대은은 2냥 1전 7푼 8리 9호이다.

### 17일 기사, 맑음

신구 도주의 예단(禮單)과 잡물을 호방 비장 유동휘로 하여금 상관, 중관, 하관에게 분급하게 하였다. 유군 동휘(柳君東輝)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공근(恭謹)하며 또 글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배에 오르고 난 뒤에 호방의 감관에 차정(差定)한 것이다. 감관의 직임은 일행의 양료(糧料)와 재백(財帛)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그 출입을 기록하니, 이는 대개 긴장되고 고된 직임이라 글과 셈에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고, 공평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또한 맡길 수도 없는 것이다.

유군이 일을 맡은 뒤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그 직분을 실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분명하게 털끝만큼의 일에도 전혀 소홀함이 없었다. 매번 오일공(五日供)을 수봉(收捧)할 때에 왜인들이 만약 틀린 것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분명하게 계산해 기입하여 조목조목 깨우쳐 가르쳤지 끝내 이익을 보려고 숨기려 하지 않았으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일행이 그를 훌륭하게 여기고 왜인들도 모두 심복(心服)하여 그 엄결(廉潔)함을 다 칭찬하여 명성이 자자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유군은 평소 빈궁하여 집에 있을 때에 재산이 없어 자주 굶었으나 담담하게 태연자

169) 건물 단자(乾物單子) : 대본에는 ‘乾物單字’로 되어 있는데, 문맥 및 일반적인 용례에 의거하여 ‘字’를 ‘子’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약하며, 굽주림과 추위 때문에 그 지조를 바꾸지 않았으니 옛날 군자의 풍도가 있다고 하니, 공경스럽고 흠양할 만하다. 저번에 막료(幕僚)를 나누어 정했다가, 이후에 서후치(徐後稷)의 말로 인해 숙부께서 그제야 유군의 채주와 행실을 알았는데, 달리 변통할 일이 없어서 병정(并定)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무릇 실제로 분아(分兒)받은 물건이 원래 정한 것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면, 홀로 수고하느라 불만스러운 기색이 필시 있었을 듯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지낸 지가 지금 몇 달이 되었으나 한 번도 불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옛날 군자의 풍도가 있다고 한 것이 과연 속이는 말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몹시 애처로워 변군옥(卞君玉), 방덕조(方德祖) 등 제군(諸君)과 함께 약간의 물건을 내어 모았는데, 일행의 여러 사람들이 듣고서 물걸에 휩쓸리듯 서로 도우려는 자가 또한 많았으니, 유군에게 심덕(心德)이 있음을 또한 이에 의거하여 알 만하였다. 모아서 한 가지 물품으로 만들어 주면서 고하기를 “지금 이 사소한 물건은 실로 그대의 청빈함을 사랑하여 성심으로 곤궁함을 도와주는 것이니, 어찌 세속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에 비하겠는가. 바라건대 물리쳐 사양하여 우리 여러 사람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게.”라고 하자, 유군이 근심스런 기색을 보이며 말하기를 “지금의 세상에 누군들 이익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것은 무슨 명목이 있어서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겉으로 얼굴색을 바꾸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일찌감치 그대가 이렇게 나올지 알았지만, 여러 사람의 말이라면 그대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네. 그런데 어찌 그리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더럽힐 듯이 여기는가. 만약 끝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성심(誠心)이 걸치레로 꾸민 것으로 귀결되어 도리어 무안해질 것이네.”라고 하자, 유군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유군은 빈천에 처해서 빈천에 맞게 처신하는<sup>170)</sup> 자에 가까울 것이다.

170) 빈천에……처신하는 : 『중용』의 말을 끌어와 유동휘가 분수를 잘 지키며 처신하는 덕성을 칭찬한 것이다. 『중용장구』 제14장에 “군자는 현재의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에 맞게 행하며,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에 맞게 행하며……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君子無入而不自得焉.]”라고 하였다.

## 18일 갑오, 맑음

병방(兵房)과 선장(船將), 호방(戶房), 두 예방(禮房), 서계리(書契吏), 소동, 통사, 사령, 사공 및 창인(唱人), 공인, 도척(刀尺) 오일고자(五日庫子), 주자(廚子) 등에게 약간의 잡물을 체하(帖下)<sup>171)</sup>하였다.

## 19일 을미,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비가 음

별폭, 예물 단자, 잡물을 도도금도 평산향좌위문(平山鄉左衛門)과 함께 봉하여 왔다. 봉행 삼촌중(杉村仲)이 그 아우에게 질병이 있어 청하므로, 나와 소동 정윤보(鄭潤寶), 통사 최세우(崔世佑), 사령 김을미(金聿未), 수배 원달(元達), 통사왜 중우위문(重右衛門)이 삼촌중의 집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전에 갔었던 삼촌채녀(杉村采女)의 집이었다. 물어보니 삼촌중은 바로 삼촌채녀의 아들인데, 도주의 집에 마침 긴급한 일이 있으므로 삼촌중의 부자(父子)가 모두 거기에 가고 그 아우로 하여금 접대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

그와 함께 병세에 관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술과 음식을 성대의 갖추어 올렸는데, 병이 있는 남녀들이 차례로 와서 간절히 호소하므로 근근이 응접하느라 진실로 괴로웠다. 홀연히 광풍이 크게 일고 폭우가 퍼붓듯 쏟아졌는데 날이 점점 저무는지라 가마를 타고서 비를 무릅쓰고 돌아왔다. 통구손좌위문(樋口孫左衛門)이 편지를 보내 문후하고 약간의 토산물을 아울러 부쳤는데,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에 외람되이 방문해 주시고 이어 편지까지 보내 주셨으니 지극히 감사하고 위로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건대 객지에 계시는 체후가 어떠하신지요? 간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약방(藥方)은 마땅히 가르침을 따라 지어서 복용할 것이니, 몹시 다행스럽습니다. 그대 숙부님의 체후가 만복하시리라 생각되니, 대신하여 저의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171) 체하(帖下) : 이두 문자(吏讀文字)로 하급 이례(下級吏隸)에게 전곡(錢穀)을 지급할 때 그 물품 지령서(物品指命書)에 체자(帖字)의 목인(木印)을 찍어 내려 보내는 것인데, 이에 의해 현물(現物)을 지급받게 된다.

부족하나마 돌아가는 짐에 함께하도록 했으니 웃으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 20일 병신, 맑음

매월 20이 지나면 조수(潮水)가 차츰 물러나므로, 미리 배를 출발시켜 동산(東山) 아래 물이 깊은 곳에 옮겨 정박하여 24일의 행선(行船)에 편리하게 하였다.

춘일현의(春日玄意)가 와서 함께 인사말을 나눈 뒤에 말하기를 “제가 근래 감기에 걸려 문후를 올리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존공(尊公)의 체후가 한결같이 편안하였는지요? 저는 다행히 식형(識荊)<sup>172)</sup>의 은혜를 받은 이래로 과분하게 사랑을 받았고 또 비결까지 전수 받았으니, 감격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듣건대 배에 오르는 길일을 잡으시어 출발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므로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와서 인사를 고합니다. 이로부터 남과 북으로 막히고 떨어져 경계에 제한이 있게 되면 어느 날에 다시 존공의 얼굴을 뵈어 이렇게 다하지 못한 정성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그대의 나라에 와서 사방에 친한 이가 없어 나그네의 회포를 견디기 어려워하다 다행히 그대가 날마다 방문해 줌에 정의(情意)가 매우 친밀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이로 인해 기쁘고 위로되었네. 더구나 공(公)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약간의 혈법(穴法)을 역견(臆見)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바야흐로 매우 무안한데 지금 비결(秘訣)이라고 일컬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자, 말하기를 “저는 유년 시절에 가르침을 잃고 늦게야 학문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사(師事)할 길이 없어 한갓 돌아가신 부친 책만 가진 채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여 늘 근심하고 울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죽하게서 저희 땅에 방문하시어, 저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특별히 밝은 가르침을 내려 주시어 저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은 이후로 속이 확 풀려 깨끗하고 통쾌해졌으니, 이는 마치 덮인 것을 벗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정도

172) 식형(識荊) : 한 형주(韓荊州)를 안다는 말로, 교유하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겸사로 쓰는 표현이다. 당(唐)나라 한조종(韓朝宗)이 형주 장사(荊州長史)로 명망이 높아서 한 형주로 일컬어졌는데, 이백(李白)의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태어나서 만호후에 봉해지기보다는 단지 한번 한 형주를 알기를 원한다. [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古文眞寶後集 卷2』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친의 유업(遺業)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족하의 은혜를 감히 잊겠습니까.”라고 하며 서글퍼하기를 마지않았다. 내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공의 두터운 우의(友誼)에 참으로 몹시 감사한 마음을 전하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 서로 만나지 않으랴.[人生何處不相逢?]'라고 하였으니, 장래에 다시 공과 서로 기쁘게 만나기를 오늘처럼 할지 어찌 알겠는가. 바라건대 부지런히 힘쓰고 그치지 말아 기어코 성취하도록 하시게.”라고 하였다. 이에 춘일현의가 공수(拱手)하여 감사함을 표하며 말하기를 “삼가 마땅히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소 안으로 출입하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또 저의 병이 이와 같기에 다시 올 수 없으니, 이제 이별을 고합니다. 바라건대 보중하시고 이른 시기에 무사히 바다를 건너시기를 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떠나니, 나 또한 서운하였다.

### 21일 정유,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가 음

복물(卜物)을 묶고 쫘다. 유시(酉時)에 왜선(倭船)이 초량(草梁)으로부터 와서 집에서 보낸 일행의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우리 집의 편지는 보이지 않아 마음이 몹시 서글웠다. 하지만 동래(東萊)의 여러 기생들이 정겨운 편지를 각각 보냈으니 가상하다.

날이 저문 뒤에 대청봉행 길전안석위문(吉田安石衛門)이 와서 풍악을 청하므로, 숙부와 부관이 청(廳)의 앞에 나가 풍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박동식(朴東植)과 김업기(金業基)로 하여금 대무(對舞)하게 한 뒤에 그만두었다.

### 22일 무술, 크게 바람 불고 비가 음

이정암(李廷菴) 장로승이 집사를 보내어 문후하므로 다과를 주어 보냈다.

### 23일 기해, 아침에 맑고 저녁에 흐림

우삼동(雨森東)이 와서 숙부께 이별을 고하며 말하기를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다가 공

의 얼굴을 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엄한지라 아침저녁으로 인사드리지 못하여 마음에 늘 서글프고 그리웠습니다. 지금 돌아가실 때이므로 형세상 만류하지 못하니 이 마음의 서운함을 어찌 이루 다 형언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아래의 절구 1수를 적어 올렸다.

꽃잎 흩날려 어지럽고 버드나무 실과 같은데	飛花歷亂柳如絲
그야말로 강가에서 이별할 때이네	正是江頭分手時
늙은 나이에도 오히려 씩씩한 말로	臨老猶將強壯語
훗날 닭과 기장밥으로 <sup>173)</sup> 만나길 웃으며 기약하네	他年鷄黍笑爲期

또 나를 향해 읊하며 말하기를 “제가 족하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이내 이별하여 지금까지 그림고 서글픕니다. 하지만 공사(公私)에 구분이 멀리까지 전송하지 못하니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익로(鷓鴣路)<sup>174)</sup>가 편안하여 창파(滄波)를 평탄히 지나십시오. 이것이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말로 답하였다. 술이 몇 순배(巡杯) 돌아 일어나 공수(拱手)하며 “몸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떠나가니, 정이 있는 선비라고 할 만하였다.

모든 공무(公務)가 문제없이 마무리되어 내일 배에 오르는데, 다른 할 일이 없어 상하가 편안하고 한가하였다. 이에 숙부와 부관 및 일행 여러 사람들이 관소의 문에서 자리를 만들어 크게 풍악을 놀여, 원달(元達)과 원천희(天禧呈)로 하여금 각종의 재예(才藝)를 선보이게 하니, 대청봉행과 도도금도 등이 모두 와서 모이고 구경하는 남녀가 그 몇 천백인지 모를 정도였다. 날이 저문 뒤에야 그만두었다.

173) 닭과 기장밥으로 : 닭 잡고 기장밥 지어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다시 만날 약속을 매개하는 말로 쓴 것이다. 『논어』 「미자(微子)」에, 하조장인(荷篠丈人)이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를 만류하여 목계 하면서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대접하였다.[殺鷄爲黍而食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또한 후한(後漢) 범식(范式)이 장소(張劭)와 헤어질 때, 2년 아무 날에 장소의 시골집에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그날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놓고는[殺雞作黍] 기다리자 과연 범식이 찾아왔다고 하는 고사도 보인다. 『後漢書 獨行列傳 范式』

174) 익로(鷓鴣路) : 선로(船路)와 같은 말이다. 익조(鷓鴣)는 물새의 일종으로 백로와 비슷하며 몸집이 크고 날개는 흰데, 바람을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다고 한다. 이에 그 모양을 뱃머리에 조각하거나 그리게 되었는데, 이후 뱃길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 24일 경자, 맑음

신구 도주(新舊島主)의 사자(使者) 및 대청봉행 안우위문(安右衛門) 등이 술을 가지고 와서 전별하였고, 여러 봉행(奉行)들이 사람을 보내어 문후하고 몸조심하라는 뜻을 전달하므로 사의(謝意)에 답하여 보내었다.

오시(午時)에 삼취(三吹)를 행한 뒤 숙부님과 부관이 의장대를 갖추어 관문 밖으로 나가니, 별대관(別代官) 입화좌평치(立花左平治)·장유등우위문(長留藤右衛門)·교변우병위(橋邊又兵衛)·진화기덕우위문(津和崎德右衛門) 등이 길옆에 나열해 서서 몸을 굽혀 송별하였다. 숙부가 가마에 내려 답례로 읊하고 도도금도 이하 여러 왜인과 작별한 뒤 그대로 가마에 올라 선창에 도착했다. 배에 올라 좌기(坐起)하고 삼취를 마친 뒤 거정포(擧碇砲)를 쏘고 배를 출발시켰는데, 구전(久田)의 대풍소(待風所)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관소와의 거리는 몇 리였고, 10여 시골집이 산기슭의 아래에 흩어져 있었는데 돌밭과 초가집이 자못 그윽한 풍치가 있었다. 곁에 몹시 거대한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도주가 배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금도는 원태랑좌위문(原太郎左衛門)과 내덕장좌위문(來德長左衛門), 사공왜는 판삼랑뢰병위(判三郎瀨兵衛), 전어관은 길송청석위문(吉松清石衛門)이었다.

## 25일 신축, 아침에 맑고 저녁에 흐림

오늘은 나의 선비(先妣)의 기일이라 추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였다. 하지만 마야호로 숙부님을 모시고 있고 또 뱃길은 육지와 달라서 바라보고 곡하는 일 또한 폐하고 빠뜨렸으므로 비통한 심정을 더욱 견디기 어려웠는데, 집에 있는 형제들의 애통함 또한 필시 마찬가지로 생각의 들었다. 한밤중에 방황하여 잠들지 못했다.

오후에 숙부님과 우리 일행 가운데 6, 7인, 재판, 전어관이 각각 작은 배를 타고 언덕 넘어 연명사(延命寺)를 구경하며 노닐다가 한참 뒤에야 돌아왔는데 모시며 수행한 사람들이 좋은 경치가 많았다고 하였다. 북풍(北風)이 연일 그치지 않았으므로 배를 출

발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 26일 임인, 하루 종일 바람 불고 비가 내림

그대로 유숙하였다.

### 27일 계묘,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가 옴

풍세가 조금 좋아졌으므로 미시(未時)에 예선(曳船)을 사용하여 곧바로 해구(海口)로 나갔더니 바람이 동풍(東風)으로 바뀌고 가랑비가 자욱이 내리므로 전진할 수 없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구전(久田)으로 되돌아가니 마음이 몹시 울적하고 걱정스러웠다.

### 28일 갑진, 맑음

동풍이 종일토록 그치지 않아 배를 출발시킬 수 없었다.

### 29일 을사, 맑음

풍세가 순조롭지 못하여 출항할 수 없으니 매우 울적하였다. 전어관(傳語官) 청우위문(淸右衛門)으로 하여금 재판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지난날 집안의 숙부께서 노닐며 구경할 때 저는 일이 있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순풍을 기다리며 오래 지체되어 답답하고 울적하여 건디기 어려우니, 제가 물에 내려 한 번 그윽한 회포를 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라고 하니, 말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하고 즉시 1척의 쾌선(快船)을 보내 주었다.

두 분 숙부 및 비장 유동휘(柳東輝), 변군 정서(卞君廷瑞), 소동 정윤보(鄭潤寶), 통사 김험찰(金險札)·추울만(秋耄萬), 오일고자(五日庫子) 박송제(朴松齊), 악공 2인, 전어관 청우위문·판우위문(判右衛門)이 모두 건너편 언덕에 이르렀는데, 광활하고 땅은 기름졌으며, 또 샘솟는 물이 있었다. 만약 개간하여 파종하면 천 종(種)의 곡식을 거둘 수 있

졌는데 단지 약간의 보리밭이 있고 논은 없으니 애석하였다. 푸른 시내 한 굽이가 남쪽에서 횡으로 흐르는데 옥빛 물은 출렁이고 하얀 돌은 빛났다.

나와 여러 사람들이 방초(芳草) 위에 앉아 조금 쉬다가 시내를 따라 몇 리를 걸어가니, 수풀과 천석(泉石)이 더욱 맑고 빼어났는데 산골짜기의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작은 집 하나가 있었다. 나와 우리 일행 및 통사, 여러 금도왜(禁徒倭)가 느긋한 걸음으로 그 문에 이르니, 주인이 나와 맞이하여 꽃과 나무 아래에 들어와 앉게 하였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 말씨와 행동거지가 공근(恭謹)하고 단아한 것이 자못 은자(隱者)의 기상이 있었다. 내가 청우위문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우리들이 그대 나라에 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계속하여 풍세가 순조롭지 않아 머무르고 있는 지가 여러 날이 되었기에 울적한 마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에 물에 내려 흥을 풀며 경치를 즐기며 구경하다가 우연히 그대의 집에 이르러 당신을 뵈 수 있었으니, 몹시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답하기를 “제 이름은 정수등십랑(井手藤十郎)입니다. 어려서부터 부중(府中)에 살다가 불행히도 재작년 저희 섬이 참혹하게 화재를 당했을 때에 가산(家産)을 다 태웠는데 이곳의 풍경을 사랑하여 집을 지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문득 귀인께서 외람되어 저의 땅에 와 주셨으니, 이보다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산집이라 물자가 없어 후하게 대접할 수 없으니 부끄럽고 무안합니다.”라고 하며 정성스레 차를 권하니 그 뜻이 가상하였다. 한참 동안 문답을 나누었는데 또한 지취(志趣)가 있음을 깨달았다.

해가 이미 서쪽에 기울었으므로 정수등십랑과 이별하였는데, 와서 말하기를 “연명사(延命寺)가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여러 사람들과 다리를 통해 시내를 건너고 다시 수백 보를 갔다. 절이 산 중턱 가운데에 있었는데 햇수가 오래되고 황폐하여 별달리 볼 만한 것이 없었다. 승려의 이름은 철원(鐵員)이라고 하였다. 갈 때에는 탔던 왜선이 산 아래에서 머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에서 내렸던 여러 사람들과 느긋하게 돌아왔다.

## 4월 큰달

### 초1일 병오, 맑음

남풍(南風)이 극히 순조로워 묘시(卯時)에 거정포(擧碇砲)를 쏘고 삼취(三吹)를 행한 뒤에 재판기복선(裁判騎卜船) 및 호행금도선(護行禁徒船)과 함께 곧바로 해구(海口)를 나가며 쌍돛을 일으켜 세웠다. 바람은 순조롭고 물결은 편안한 것이 자못 육지와 같아 마치 화살처럼 경쾌하게 나아가는데, 배 가운데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담소를 나누며 저마다 스스로 즐거워하며 칭송(稱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뇌호내(瀨戶內)와 서박포(西泊浦) 등을 지나 풍기(豐岐)에 이르자 서풍(西風)이 크게 불어 배를 제어할 수 없었다. 미시(未時)에 풍포(豐浦)에 들어가 정박하니, 풍기와 의 거리가 10리 정도이다. 산의 형세가 휘감아 돌아 극도로 안온하니, 참으로 배를 간직해 둘 만한 곳이었다. 숙부께서 일행 가운데 수십 인을 이끌고 물에 내려 재판왜(裁判倭)와 함께 산보하며 흥을 푸셨다. 가다가 산의 뒤에 이르렀더니, 100명에 가까운 거주민이 산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물 옆에 보리를 심은 것이 자못 순수하고 예스러운 풍치가 있었는데, 부유한 집이 많다고 한다. 또 수백 보를 걸어가자 죽림원(竹林院)이 나왔는데, 대개 하나의 작은 암자였다. 비록 그다지 넓지는 않았으나 기이한 꽃과 특이한 풀, 푸른 소나무와 비췌빛 대나무가 매우 사랑할 만했다. 주지승과 한참 동안 한담을 나누다가 날이 어두워지고서야 돌아오니, 옛사람이 이른바 ‘반날의 한가로움을 얻었다.’<sup>175)</sup>라고 한 말이다. 이날 230리를 갔다. 【이날 묘시(卯時)에 망하례(望賀禮)를 행할 때 재판이 도주의 명으로 상방(上房)과 부방(副房)에 삼중(杉重)과 제백(諸白)을 보내어 올렸다.】

### 초2일 정미, 크게 바람 불고 비가 오다가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그침

175) 반날의……얻었다 : 당(唐)나라 이섭(李涉)의 시 「학림사 승사에 적다(題鶴林寺僧舍)」에 “죽원을 지나다가 스님 만나 담소하니, 덧없는 인생 반날의 한가로움을 얻었구나.[因過竹院逢僧話, 偷得浮生半日閑.]”라고 한 말이 보인다. 『全唐詩 卷477』

### 초3일 무신, 맑음

묘시(卯時)에 배를 출발시켰다. 항구를 나가는 데에 예선(曳船)을 많이 사용하여 풍기(豊崎)까지 끌고 갔다. 이는 대마도의 가장 험한 곳인데 암초가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노한 파도와 층층의 물결이 말처럼 우뚝 서서 포효하며 서로 치고받으니, 마음이 몹시 위태롭고 두려웠다. 이에 어지러워 쓰러지는 자가 또한 많았지만 겨우겨우 잘 지나갔으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었다.

그런데 긴장한 아이 수십 인이 각각 화선(畫船)을 타고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돌격하고 출몰하기를 마치 평지를 밟듯이 하는데, 매우 사납고 용맹하여 행동거지가 특별하였다. 같은 배에 탄 왜인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모두 일기도(壹岐島)의 어부로 고래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데, 이곳에 큰 고래가 많기 때문에 늘 왕래합니다. 일기도는 여기서부터 480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척의 거리처럼 보고 아침저녁으로 드나듭니다.”라고 하였다.

풍세가 순조롭지 못했으므로 오시(午時)에 좌수내포(佐須奈浦)에 도착해 정박했다가 물에 내려 관소에 나아갔는데, 낮이 아직 많이 한창이라 자못 답청(踏青)<sup>176</sup>의 흥취가 있었다. 숙부와 일행 여러 사람들 및 전어관, 금도왜 등이 느긋이 거닐고 천천히 걷다가 산길을 따라 수백 수십 보를 깊이 들어갔더니 큰 나무와 무성한 대나무가 울울창창하였는데, 가운데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다. ‘복수산 관음사(福壽山觀音寺)’라고 쓴 편액이 걸렸는데 정곡(貞谷) 이수장(李壽長)<sup>177</sup>의 글씨였다. 승려 지관이 차(茶)와 야채를 내어서 대접하였다. 함께 한담을 나누다가 한참이 지나 돌아왔다. 이날 50리를 갔다.

### 초4일 기유, 맑음

176) 답청(踏青) :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고 거닌다는 뜻으로, 보통 청명절(淸明節)에 야외에 나가서 산책하며 노니는 것을 말한다.

177) 정곡(貞谷) 이수장(李壽長) : 1661~1733. 본관은 천안(天安), 자는 인수(仁叟)로 ‘정곡’은 그의 호이다. 숙종 때에 사자관(寫字官)이 되어 어제시(御製詩) 8장(章)을 쓰고 또 금니(金泥)로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법첩(法帖)을 임서(臨書)하여 숙종으로부터 절찬을 받았으며, 1709년(숙종35)에 온 청나라 사신 연갱요(年羹堯)로부터 동방 제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1711년 통신사의 사자관으로 일본에 가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다.

풍세가 순조롭지 않아 그대로 유숙하였다.

### 초5일 경술, 비가 음

배를 출발시키지 못했다.

### 초6일 신해, 맑음

풍세가 순조롭지 못하여 그대로 머물렀다.

### 초7일 임자, 맑음

재판이 전어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오늘 풍세가 조금 좋으므로 배를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진시(辰時)에 삼취(三吹)를 행한 뒤 재판기복선(裁判騎卜船) 및 지로선(指路船)과 함께 포를 쏘고 돛을 들어 곧바로 해구(海口)를 나갔다.

대마도를 100리쯤 벗어나자 바람이 점점 그치더니 북풍(北風)으로 바뀌었다. 이에 노질을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재판이 급히 지로선을 불러 말을 전하며 이르기를 “날이 이미 오시가 지났고 풍세가 이와 같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바닷길은 육로와 다른데 300여 리 남은 앞길에서 만약 바다 가운데에서 날이 저물기라도 한다면 몹시 낭패가 될 것이니, 우선 저희 섬으로 돌아가 다시 순풍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배 안의 사람들이 논의가 분분하여, 혹은 북으로 가자고 하고 혹은 남으로 가자고 하는 여러 말들로 하나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그런데 선장 서후치(徐後穉) 및 도사공 최수명(崔守命)이 모두 말하기를 “날이 저물어 바람이 잦아 들었고 안개가 사방을 싸고 있는데 종일토록 노질을 한다면 물마루에는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마루에서 부산(釜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깊은 밤을 얼마나 거쳐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과 구름입니다. 재판의 말이 실로 만전지책(萬全之策)입니다.”라고 하니, 말이 매우 타당하였다. 이에 그 두 사람의 말을 따라 재

판선(裁判船)과 함께 즉시 뱃머리를 돌려 간신히 노질을 하여 다시 좌수내포(佐須奈浦)에 들어갔는데, 날이 이미 캄캄하였다.

### 초8일 계축, 비가 음

배를 출발시키지 못했다.

### 초9일 갑인, 맑음

서북풍(西北風)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아 배를 출발시키지 못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니, 진실로 근심스럽고 울적하였다.

### 11일 병진, 맑음

바람이 잦아들어 물결이 잔잔하고 날씨가 온화하여 여러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또 순풍(順風)까지 얻었다. 이에 묘시(卯時)에 삼취(三吹)를 행한 뒤 재판기복선(裁判騎卜船) 및 지로비선(指路飛船)과 함께 거정포(擧碇砲)를 쏘고 일제히 돛을 올려 물결을 따라 나아갔다. 그런데 물마루를 지나자마자 광풍이 크게 일어 천지를 뒤흔드니, 노한 파도와 놀란 물결이 우뚝 선 채로 치고 박는 듯하였다. 우리 배와 왜선이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앞뒤로 오르내리고 좌우로 돌다가 크고 작은 목판(木板)에서 편편(片片)이 소리가 생겼는데, 뒤의 돛의 궁죽(弓竹)이 두 쪽으로 꺾이어 한배에 탄 사람들이 허둥대지 않는 이가 없어, 어지러워 쓰러지는 자가 반을 넘었다. 하지만 삼가 나라의 은혜에 힘입어 뒤집어지는 사고를 면할 수 있었는데, 바람과 구름의 변화는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맹렬하여 배를 제어할 수 없어 떠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표류하다가 신시(申時)에 가덕진(加德鎭) 선창에 정박하게 되었다. 일행이 무사하였으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었다. 재판의 복선(卜船)은 표류하여 옥포(玉浦)로 향했다고 한다. 물에 내린 뒤에 진수(鎭帥) 배공 태기(裴公泰琪)가 즉시 와서 인사하는데,

매우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다가 밤이 깊은 뒤에야 돌아가니, 진실로 감사할 따름이었다. 악공으로 하여금 크게 풍악을 펴게 하고 또 비장청(裨將廳) 및 본진 장교들로 하여금 차례로 일어나 춤추게 하여 무사히 도착한 기쁨을 경하하였다. 그대로 대변청(待變廳)에서 유숙하였다. 이날 500여 리를 갔다.

### 13일 무오, 맑음

풍세가 조금 좋아졌으므로 진시(辰時)에 삼취(三吹)를 행한 뒤 닻을 올리고 수십 보 거리를 갔으나 조수(潮水)가 이미 물러나 배를 뺄 수가 없었다. 이에 예선(曳船)을 써 보았지만 또한 어쩔 수 없었다.

신시(申時)에 저녁의 조수를 이용하여 재판선(裁判船), 지로왜소선(指路倭小船) 및 우리나라 수호선(守護船)과 함께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몰운대(沒雲臺)에 거의 이르렀을 때 바람이 크게 일어나 배를 제어할 수 없어 거의 암초에 부딪힐 뻔했다. 일이 몹시 위급하여 창황하게 돛을 내리고 겨우겨우 뱃머리를 돌려 다행히도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정박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물러가 장림포(長林浦) 앞바다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재판선은 이미 관소로 향했다.

바람은 더욱 급해지고 날은 이미 어두워져 사방이 아득한지라 여러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에, 지로왜소선(指路倭小船) 및 우리나라 수호선이 뒤따라 와서 말을 전하기를 “수호선의 선장 안골 만호(安骨萬戶) 최우석(戶崔雨碩)이 다대진(多大鎭)에 위급한 뜻을 전통(傳通)했더니, 해당 색리들이 진의 첨사(僉使)사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핑계 대고는 저지하여 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아전의 습속이 해괴하여 진실로 몹시 가증스러웠다. 하지만 최공(崔公)은 이 풍랑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밤새도록 잠자지 않았으니, 왕사(王事)에 부지런히 일하고 남을 위해 도모해 주는 것이 정성스러운 자<sup>178</sup>)라고 할 만하다.

178) 남을……자 : 안골 만호(安骨萬戶) 최우석(戶崔雨碩)의 헌신적인 자세를 칭찬하는 말이다.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써 내 몸에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꺾이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 신의가 없었는가, 학업을 잘 익히지 않았는가?’하는 것이다.[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學而』



## 14일 기미, 맑음

묘시(卯時)에 풍세가 극히 순조로워 장림포(長林浦)에서 배를 출발시켜 오시(午時)에 부산포(釜山浦)로 돌아와 정박하였다. 일행의 가족(家屬)이 뱃머리에 모여서 부자와 형제가 악수하여 서로 기뻐하고 더러 묵묵히 바라보며 말없이 있는 자도 있었다. 이 여행이 육지와 다른 것을 알 만한데, 그제와 어제의 고생한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봄에 저도 모르게 모골이 송연해졌다. 삼취(三吹)를 행하고 포를 쏜 뒤에 숙부께서 의장대를 갖추어 육지에 내리시고 이어서 숙소인 백시위(白是偉) 집으로 향하였다. 나는 복물(卜物)을 운반하는 일로 개운진(開雲鎭)의 대변청에 들어가 앉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서울의 여러 벗 및 부산의 여러 친구가 함께 모였고, 지난 3월 26일 집에서 부친 편지를 얻어 보았는데 집안사람들의 안부가 편안하니 몹시 다행스러웠다. 나는 수년 동안 부형(父兄)을 배종(陪從)하느라 북(北)으로 연대(燕臺)의 아래에 노닐었고 남(南)으로 봉도(蓬島 대마도(對馬島))의 위를 건너다녔다. 남북으로 수천 리를 다녀 강산(江山)과 문물(文物)을 역력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킬 듯하니, 또한 장하다고 할 만하다.

저 나라의 풍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략 들었다. 혼인할 때 납폐(納幣)하는 예물에 문무(文武)의 구분이 있다. 무사(武士)의 경우는 갑주(甲冑), 보검, 총창(銃槍), 궁시(弓矢) 등을 쓰고, 문사(文士)의 경우에는 채색 비단과 문방사우의 부류를 쓴다. 아침에 예물을 보냈다가 저녁에 장가를 드는데, 친척 및 이웃사람들과 함께 같이 친가(親家 신부집)에 이른다. 신랑과 신부는 그 나라에서 늘 행하는 주례(酒禮)와 같이 앉아서 구작례(九酌禮)<sup>179</sup>를 행하지만 전안(奠雁)의 예식은 없고, 마신 뒤에는 주인과 빈객이 한 곳에 모여서 통음(痛飲)하며 극진히 취하는데, 그 신부와 함께 즉시 그 집으로 되돌아와 그대로 부부가 된다. 남자는 20살 남짓, 여자는 15, 16세 이후에 비로소 혼례를 올린다.

179) 구작례(九酌禮) : 주연(酒宴)에서 아홉 번 술을 부어 아홉 번 마시는 예식을 말한다.

저 나라 사람들이 죽으면 즉시 꿰어얹히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히기를 산 사람의 모습처럼 하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쓰고 여름에는 홑옷을 써서 그 평소 차던 칼을 차게 하여 궤(櫃) 안에 얹힌다. 날짜를 고르거나 땅을 고르지 않고서 승사(僧寺)의 곁에 매장하는데, 목궤의 밖에 또 석갑(石匣)을 사용하고 석판(石板)으로 덮고는 위에 석비(石碑)를 세운다.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조금이라도 가산(家産)이 있으면 외척쪽을 궤에 채우니 이는 예(禮)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자녀들은 초종(初終)하는 날에 상복을 입었다가 다음 날에 흰옷을 벗고 검은 옷을 입고는 날을 골라 부처에게 공양하되, 그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절에 나아가 예불한 뒤에는 모두 벗어 승려에게 베푼다. 더러 검은 매장하지 않고 지니고 가서 승려에게 줬다가 다시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검은 아껴서 후손에게 남기고자 해서이다. 50일에 한하여 소식(素食)하고 머리를 깎지 않다가, 50일이 지나면 머리를 깎고 잔치하기를 보통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한다. 비천하여 하는 일이 있는 자는 50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릇 사람<sup>180)</sup>에게 작은 잘못이 있으면 모르는 체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잘못이 조금 무거우면 그 문을 봉쇄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되 기간이 차면 풀어준다. 저지른 잘못이 더욱 무거우면 내쫓거나 더러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가장 무거우면 참수를 하는데 더러는 자살하도록 한다.

서인(庶人)이 죄가 있으면 그 이웃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을 표시해 봉쇄하게 하고, 조금 더 무거우면 적몰(籍沒)하여 노비로 삼으며, 가장 중하면 살해한다. 도적의 경우에는 옷을 벗겨 동여매 세워 두 개의 창으로 죽을 때까지 마구 찌르는데 매질을 하거나 고문하는 형(刑)은 없다. 자복(自服)을 받아낼 때에는 사지를 긴밀하게 묶고 그 입을 반쳐 벌린 뒤 죽통(竹筒)을 써서 잿물과 청장(淸醬)을 들이붓되 부푼 흉복에 험관으로 밟아 누르면 잿물과 청장이 일곱 구멍에서 흘러나오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니 몹시 잔혹하다.

180) 사람 : 여기서는 아래 서인(庶人)과 대비한 설명으로 보이므로, 신분이 어느 정도 높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봉행(奉行)’이라는 호칭은 명령을 받들어 행한다는 뜻이니, 모두 6인이다. 늙어 죽거나 혹은 물러나 쉬게 되면 그 장자로써 이어받게 하고, 장자가 불초하면 그 여러 아들 가운데 어진 자를 택하여 그 지위를 대신하기를 창씨(倉氏)와 고씨(庫氏)<sup>181)</sup>의 경우처럼 한다. 만약 여러 자식들이 모두 불초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는데 이는 그 나라에서 유래하는 규례이니, 만약 과실이 있으면 비록 친하고 공(功)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끊어 폐하고 도려내는 데에 조금도 용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신을 아껴 성의를 다해 공무를 받든다고 한다.

‘금도(禁徒)’는 그 공평하지 않고 법이 아닌 것을 금지함을 이르고, 거기에 등급이 있는데, 도도금도(都都禁徒), 도금도(都禁徒), 중금도(中禁徒), 소금도(小禁徒)가 그것이다. 또한 자리를 이어받아 중금도에게 만약 큰 공이 있으면 도금도에 오르고 소금도에게 공이 있으면 중금도에 오르니, 곧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대목부(大目付)’와 ‘별목부(別目付)’라는 호칭이 있다. 별목부는 도금도와 같은데 조금 높고, 대목부는 그 가운데에서 위세과 명망이 있는 자로 지위가 도도금도의 위에 있는지라, 매번 일이 있을 때면 여러 금도를 거느리되 파수(把守)를 나누어 거행한다. 또 ‘조두(組頭)’라는 호칭이 있으니 대목부나 도도금도를 올려 차임하는데 지위가 봉행의 아래에 있다.

무릇 백성을 부리는 법은 간소하고 편리함을 힘써 따르고 침탈을 일삼지 않는다. 혹은 공역(工役)이 있으면 값을 지급하여 고립(雇立)하는데, 혹은 일수(日數)를 계산하는 노역의 경우에는 신역(身役)으로 내는 은(銀)을 감면해 주니 고을 사람들이 생업을 즐거워하여 원망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다.

다만 놀랄 만한 것이 있다. 외딴섬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 사납고 괴팍한 성질을 길러,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음을 터럭처럼 가볍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을 스스로 금치 못하여 손짓 발짓으로 춤추고 구르니, 의리로 책망할 수 없는 자들이다.

---

181) 창씨(倉氏)와 고씨(庫氏)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창씨와 고씨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대대로 곳집을 맡아 보았으므로 자손들이 창(倉)과 고(庫)를 성씨로 삼은 데서 생겨난 말이다. 『通志 氏族略』

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를 꾸짖는 자가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 편안히 여기고 느낄 줄을 모르며 그 자식을 사랑해 주면 기뻐하여 사례해 마지않고, 매매(賣買)하고 교역하는 데에는 죽음을 불사하여 다투며 비교하여 터럭만큼의 이익도 나누니,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이익을 좋아함이 금수와 다름이 없는 자들이다.

귀천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칼을 차는 것은 그 나라의 법도이다. 직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쌍검(雙劍)을 차고 어린아이가 겨우 몇 살밖에 되지 않는데 검을 차고 젓을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몹시 우습다.

저 사람들은 대부분 바지를 입지 않고 단지 넓은 소매의 긴 옷을 착용하고서 큰 띠로 묶는데 왜인 여자 또한 그러하여, 비록 몸을 가렸다고 하지만 걸어 다닐 때에 하체가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또 왕래할 때에 종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종이 옷자락을 말아 올려 맨다리를 드러낸 채 그 뒤를 긴밀히 따르고, 그 여자가 오줌을 누느라 그 옷의 뒷부분을 드는데 그 흐르는 오줌에 젖고 더럽혀지니 몹시 해괴하다.

저 사람들의 정상(情狀)은 교활하고 사나우며 정세(精細)하고 공교한데, 전도되고 착란하여 사치를 극도로 부리지만 죽은 이를 장사(葬事) 지내는 한 가지 예절로 말하자면 매우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아침에 죽은 자를 저녁에 매장하는 일을 심상한 일처럼 보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니, 오랑캐의 풍속이 원래 이와 같은가.

또 우스운 것이 있다. 저 사람들 가운데 녹(祿)을 먹는 자의 안식구[內眷]들이 왕래할 때에 반드시 담교(擔輜 어깨에 메는 가마)를 타는데, 가마의 제도가 우리와 달라 위로 하나의 담가(擔架 들것)를 가로질러 두 사람을 써서 지게 한다. 그들 나라의 법에 무릇 시역(廝役)하는 무리들은 매양 일을 할 때면 추위와 더위에 상관없이 옷을 걷고 팔을 드러낸 채 빨리 걸어야 하므로 가마를 멘 자 또한 그렇게 한다. 내가 묻기를 “가마를 멘 채 급히 달리면 양물(陽物)이 노출되지 않는가?”라고 하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 남녀는 대부분 바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포백(布帛)으로 감싸는데, 물건을

지고 달려가면 형세상 반드시 노출됩니다. 그 양물이 노출되면 가마에 앉은 자가 그놈에게 말하여 가리게 합니다.”라고 하니, 듣고는 몹시 해괴하였다.

상점(商店)에는 이름을 내걸고, 도르래로 물을 길으며, 지팡이를 쳐 가며 물건을 진다. 차를 달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청(淸)나라 사람의 법도와 같다. 방아를 찧는 데에 절굿공이를 사용하지 않고 긴 자루의 큰 쇠뿔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다.

이번의 문위행은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무릇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에 관계된 것이면 비록 지극히 미미하고 사소하더라도 아예 통렬히 금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sup>182)</sup>는 뜻으로 신칙하였다. 이에 일행이 물처럼 잘 따라서 앞사람의 수치를 통쾌하게 씻어 내자 왜인들이 매우 공경하고 예우하였으니, 이른바 ‘위엄은 청렴함에서 나온다. [威生於廉.]’라는 말이 과연 속이는 말이 아니었다.

갑인년(1734, 영조10) 정월 초10일에 배에 올라 순풍을 기다려, 12일에 좌수내포(佐須奈浦)에 도착하였고 15일에 서박포(西泊浦)에 도착하였으며, 16일에 뇌호내(瀨戶內)에 도착하였고 18일에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하였다. 3월 24일에 배를 타고 순풍을 기다려, 4월 1일에 풍포(豊浦)에 도착하였고 3일에 좌수내포에 다시 도착하였으며, 12일에 표류하다가 가덕진(加德鎭)에 정박하였고 13일에 장림포(長林浦) 앞바다에 서서 머물렀으며, 14일에 부산포에 돌아와 정박하였다. 전후로 소요된 기간은 모두 93일이고 물길은 도합 760리였다.

## 15일 경신, 맑음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숙부님을 모시고 부(府)에 올라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 노야(鄭

182)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 대본에는 ‘斷不撓貸’로 되어 있는데, 문맥에 의거하여 ‘撓’를 ‘饒’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老翁<sup>183</sup>)를 들어가 뵈었다. 정성스레 술을 주었고 또 일행이 무사하게 다녀온 것을 기뻐하였는데, 무사히 다녀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씀하시니, 몹시 감사하였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고 물러났다. 장계(狀啓)를 올리는 편과 사자(使者)가 가는 편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주어 보냈다.

### 16일 신묘, 맑음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고태 도성(高台道成)이 거처를 내방하여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고 돌아갔다.

### 17일 임술, 맑음

오후에 들어가 부백(府伯)을 배알하였다.

### 18일 계해,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가 옴

### 19일 갑자, 맑음

날이 어두워진 뒤에 들어가 부백을 배알하였다.

### 20일 을축, 아침에 맑았다가 미시에 크게 우박이 옴

---

183) 동래……노야(老爺) : 정래주(鄭來周)로, 그는 1733년(영조9) 2월에 동래 부사에 제수되었다가 4월 28일에 후임 이훈(李滄)이 하직한 기록이 보이므로, 문위행(問慰行)이 대마도에서 돌아와 보고하는 현 시점에서 동래 부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 英祖 9年 2月 8日, 10年 4月 28日』

### 21일 병인, 맑음

숙부가 훈도(訓導)로 계실 때 타던 좌마(坐馬)가 갑자기 안골(眼骨)이 생겨 끝내 살지 못했다. 마음이 몹시 참담하였다.

### 22일 정묘, 맑음

식사를 한 뒤 부산(釜山)에 내려왔다가 날이 저문 뒤에 올라왔다.

### 23일 무진, 맑음

떠날 시기가 가까이 오니, 5, 6명의 기녀(妓女)가 거문고를 가지고 왔다. 밤새도록 단란히 지내다가 돌아가니, 그 마음이 가상하였다.

### 24일 기사, 맑음

### 25일 경오, 맑음

### 26일 신미,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비가 음

들어가 부백 및 여러 친구에게 인사하고, 오시(午時)에 상하의 인원과 동시에 길을 출발하였다. 십수정(十樹亭)에 이르러 물을 퍼붓듯 큰비가 내렸는데, 비를 무릅쓰고 가서 양산군(梁山郡)에서 묵었다. 이날 50리를 갔다.

### 27일 임신, 맑음

양산군에서 출발하여 황산(黃山)에 이르러, 잔도(棧道)로 가다가 배를 타고 내포(內浦)

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에 그대로 배에 앉아 작원(鵲院)을 지나 육지에 내렸다. 밀양부(密陽府)에서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 28일 계유,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비가 옴

밀양부를 출발하여 유천역(楡川驛)에서 점심을 먹었다. 청도군(淸道郡)에서 묵었다. 이날 70리를 갔다.

### 29일 갑술. 아침에 안개가 끼고 저녁에 맑음

청도군을 출발하여 오동원(梧桐院)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구(大邱) 관아에서 묵었다. 이날 70리를 갔다.

### 그믐날 을해, 맑음

대구 관아를 출발하여 독명원(犢鳴院)에서 점심을 먹었다. 장천참(長川站)에서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 5월 작은달

### 초1일 병자, 맑음

장천을 출발하여 여차천(如此川)에서 점심을 먹었다. 불현참(佛峴站)에서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 초2일 정축, 맑음

불현(佛峴)을 출발하여 덕통참(德通站)에서 점심을 먹었다. 신원참(新院站)에서 묵었다. 이날 100리를 갔다.

### 초3일 무인, 맑음

신원을 출발하여 초곡참(草谷站)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말이 피로하여 고개를 넘지 못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

### 초4일 기묘, 비가 음

초곡을 출발하여 비를 무릅쓰고 가서, 안부참(安富站)에서 점심을 먹었다. 달천참(達川站)에서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 초5일 경진

달천을 출발하였는데 비가 내려 갈 수 없어 송선참(崇善站)에 도착하여 묵었다. 이날 50리를 갔다.

### 6일 신사, 잠깐 비가 오다가 잠깐 만에 맑아짐

승선을 출발하여 회원참(回院站)에서 점심을 먹었다. 진촌참(眞村站)에서 묵었다. 이날 80리를 갔다.

### 7일 임오, 맑음

진촌을 출발하여 직곡참(直谷站)에서 점심을 먹었다. 판교참(板橋站)에서 묵었다. 이날 110리를 갔다.

### 8일 계미, 맑음

판교를 출발하여 한강(漢江) 나루에 도착하니, 집안 아우 자익(子翊)이 맏아들 및 노복을 이끌고 와서 맞이하였다. 다 함께 집으로 와서 사당에 절한 뒤에, 부자와 형제가 한 곳에 단란히 모여 악수하며 서로 환락을 나누니, 기쁨이 넘쳐흘렀다.

## 「해행록지」

### 海行錄識

옛날 사마씨(司馬氏)<sup>184</sup>는 문장의 특장(特長)이 산천(山川)에 있었다. 내가 그러므로 일찍이 집밖을 나가지 않고도 손 가는대로 두루 『사기(史記)』를 보아, 화이(華夷)에 관하여 강역 폭의 험난함과 평탄함을 살펴 다 알 수 있었으니 위대하지 않은가. 하지만 오직 섬나라 지역의 산천을 볼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무릇 지도에 실린 것은 이미 자세하지 않은 바가 없지만 글로는 기술하기에 부족한데, 『해행록(海行錄)』 한 책을 얻어 보고는 그 민속(民俗)과 도리(道里)에 대해 거의 정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김자(金子 김홍조(金弘祖))의 문장은 기술하는 데에 있지 않고 섬나라 지역의 산천을 묘사하는 데에 있다고 할 만하다. 김자의 문장이 사마씨의 한 지류에 해당될 수 있었으므로 마침내 대마도의 기이한 경치를 이에 지었으니, 김자의 문장이 아니면 어찌 능히 중화의 바름을 빛낼 수 있었겠는가.

병인년(1746, 영조22) 윤달 든 봄에 저리(樗里)의 병부(病夫)<sup>185</sup>가 적다.

---

184) 사마씨(司馬氏)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사람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킨다. 유람을 좋아하여 남으로는 강회(江淮)에 노닐고 북으로는 문사(汶泗)를 건너 산천을 유람하면서 얻은 호한(浩瀚)한 기운을 문장에 발휘한 것으로 유명한데, 부친인 사마담(司馬談)의 태사(太史) 직책을 이어받아 『사기(史記)』를 완성하였다.

185) 저리(樗里)의 병부(病夫) :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지 않다.

## 『海行記』 標點

### 「金任重海行記序」

余嘗讀洪滄浪遺稿，有金廣川東槎錄序。其略曰，余與金廣川同爲日本之役，而二十餘年之後，則茫然若夢中事。今視其所記東槎錄，則恍然省悟，歷歷乎羅列乎前矣。山川之遠近，風俗之殊詭，纖悉備具，扶桑數千萬里之外，可坐而按覩也。世有如顏師古者出而爲王會圖，則必有採焉。余雖未及見廣川公，而因知有東槎錄矣。每欲一獲而觀之，以滌吾心胸，而見人自日本還者，問其道途所經，不能詳也，則意尤在東槎錄，而卒未得見焉。

近與金任重甫交，任重卽廣川公之孫，而嘗隨問慰之行，渡海而還者也。間示其海行記一編，讀之，則所謂扶桑數千萬里之外，在吾目中，而心胸爲之浩然矣。

夫廣川公之往也，得一世詞氣如滄浪子者，而與之同舟，而記其山川風俗，則屬之於公。公後五十餘年，而繼而記之者，又不在他人，而屬之於任重，其亦奇且異哉。抑未知東槎錄之視此編，其詳略果何如。而滄浪子之見者，余未之見也，余之見者，滄浪子未之見也。而其得千萬里外之山川風俗，則余與滄浪子故無異也。余於是不恨東槎錄之未得見焉，而幸此編之寓目也。

夫滄浪子親於其身，飽幽趣詭異之觀也，而猶以東槎錄爲德，矧乎若余之匏繫者，而於此編愛玩之當何如也。惜乎任重之航大洋而東也，余不得同之，如滄浪子之與廣川公也。且夫廣川公得滄浪子而爲之序，故人皆知東槎錄之爲可觀。果有顏師古者出而爲圖，則必不見棄，而任重不幸無有以重之者，余何爲哉。余何爲哉。

丁巳大壯之下，完山李德集敘。

## 「海行記序」

嗚呼。尙忍言哉。天地無窮，甲申長回，春秋迭代，壬辰每復。我東方有志之士，撫劍扼腕之懷，已老於北揮而南灑矣。

今見金任重海行記，不局浪浪然北揮南灑者，落紙而雲如也。但其山川·道里·土俗·人物，歷歷然一幅扶桑圖，而抑有可記而不記者。

吾今質於任重甫，彼國之政令施設·百執之夙夜者，其有能自維之道否。兵力之脆實，糧食之歉足何如，而果能詳得其虛實否。關隘扶候又何如。所謂富山之上，雲氣之游翔者，其或水如秋如乎否？所欲知者，在此而不在彼。

任重甫無乃以是爲筆外之妙詮·意中之成算，而可爲知者道，難與俗人言者耶。聊以識諸卷，庸俟夫志士之觀采焉。

歲甲子月六上浣，首陽吳尙文書。

### 該曹書契

朝鮮國禮曹參議金【龍慶】，奉書日本國對馬州前太守拾遺平公閣下。暄涼遞禪，秋序轉深，瞻言嚮溯，一倍架增。回想疇昔，隣好克篤，釋負今日，付托有人，欣賀之餘，悵缺兼至，茲遣舌官，替伸問慰，不腆別幅，庸表舊情，不備。癸丑年九月日。

### 別幅

人蔘五斤，虎皮三張，豹皮三張，白苧布十匹，白綿紬十匹，黑麻布十匹，白木綿三十匹，花席十張，四油菴五部，霜花紙十卷，畫硯三面，黃毛筆三十柄，眞墨三十笏。

朝鮮國禮曹參議金【龍慶】奉書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公閣下。逖惟茲辰，動止冲裕，況聞新膺寵命，還紹世爵，撫莅一州，旌纛載新，誠信相接，庶期益篤，其在隣好，曷勝欣賀？茲差象官，聊修薄儀，領留是希，肅此不備。

### 別幅

人蔘五斤·虎皮三張·豹皮三張·白苧布十匹·白綿紬十匹·黑麻布十匹·白木綿三十匹·花席十張·四油菴五部·霜花紙十卷·畫硯三面·黃毛筆三十柄·眞墨三十笏。

## 癸丑九月

廿一日，對馬州太守平方熙退休，以其兄之子義如，承襲其位，而出送護行裁判來請問慰官，朝廷以家叔父爲致賀兼問慰正官，以朴正和仲爲副官。叔父以釜山訓導，上京復命後，更爲肅拜下來。【十二月初七日，到東萊。】

十一月二十四日辛丑，晴。船將徐後釋，再昨自統營粧船回來，【差使員，栗浦權管李厚培。

**】** 止泊釜山云。 余與李順白·金俊益·金禹三及小童朴重泰·下人朴松齊·尹命伊·李培同等，  
 下往釜山船滄。 裨將等及諸親舊， 一時俱來， 而開雲萬戶金君世璵， 以差使員， 亦來見。 沙  
 工等， 與象船人， 放下橋板， 下來現謁後， 接余而上。

余至船上， 自船頭至船尾十七丈， 底板九立， 杉板十八立， 可容千餘人， 前帆竹十三把， 後  
 帆竹十二把， 鴟木七把， 欄檻之內， 平鋪木板， 有若陸地， 而正官粧房， 處於中央， 其傍有  
 副房， 其後有船將所住處， 而其他櫓棹繩索什物， 十分堅固， 少無疎漏， 可保其利涉滄波，  
 如履平地， 此豈非王命所暨， 百執事莫不盡心之致歟？ 感祝感祝， 而亦係於船將之勤幹周  
 旋， 可謂得人矣。

與諸君坐於粧樓上， 寒暄之間， 船將語余曰：“在前渡海船粧造時， 無船將粧房， 而今番創始  
 者， 非欲自便之計也。 抑以思之， 今番之行， 公必陪從， 故意有所在云。” 船將之其眷愛余者  
 至矣， 誠極感謝耳。

### 一行元額

堂上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猛 金

堂下通訓大夫前司譯院正 朴

**船將** 出身 徐後穉

**軍官** 折衝 徐錫龜 兵房 釜山 落後

白善雄 兵房 釜山

崔暹 工房 釜山

金得海 工房 釜山

金俊益 禮房 東萊

出身 徐後逢 禮房 東萊

司果 金處重 戶房 釜山

閑良 金尙傑 釜山

李順白 東萊

方興福 東萊

**伴人** 通德郎 朴震豪

副司猛 金弘祖

閑良 金瑞門

折衝 金禹三

閑良 卞廷瑞 東萊

咸有德 東萊

**并定** 張之碩 東萊

朴東植 東萊

金業基 東萊

李萬傑 東萊

柳東輝 戶房 釜山

鄭順命 釜山

**書契色** 金益喜 東萊

**都訓導** 金象鼎 釜山

**上通事** 白哲同 草梁

**通事** 金險札 草梁

崔世佑 草梁

秋五乙萬 五日 草梁

高石乙立 釜山

**小童** 金三傑 東萊

鄭潤寶 東萊

孫鳳就 釜山

朴重泰 釜山

**禮房色** 李萬德 庫子 朴松齊 【移差五日庫子】

**工房色** 朴月白 【兼戶房色】 庫子

**戶房色** 庫子

**盤纏色** 庫子

**禮單色** 庫子 【以上以行中人充填於成冊中】

**及唱** 裴分貞 釜山



刀尺 尹命伊 東萊

食尺 李培同 東萊

上房 奴子【到佐須浦廚房庫子差出】 鶴立

芴叱石

夢齡

副房奴子 允立

元石

使命 金五乙未 東萊

金業先 東萊

吳元伊 右兵營

鄭孝奉 右兵營

金得鶴 左兵營

朴厚三 左兵營

金致迪 左水營

鄭已里山 左水營

砲手 李枝輝 統營

白八十伊 左水營

沙工 崔守命 統營

舞上 姜弘晉 統營

船工 金尙萬 統營

工人 元達 金海

鄭命山 金海

元天禧 金海

白千元 金海

金屎伊 金海

格軍 唐浦文元望

玉浦徐永輝

天城金哲右【修補船匠】

加徳田石只  
 三千李昌雲  
 蛇梁金處建  
 赤梁千介金【守船直】  
 平山崔義崑  
 曲浦韓善貴  
 尙州浦高莫實  
 彌助項金業同  
 安骨鄭淡沙里  
 薺浦李自善【兵船色】  
 助羅金以雲  
 知世鄭愛松  
 所乙非孔世雲  
 加背梁梁善巾  
 栗浦金夢石  
 龜山朴莫男

以上八十四員名內，倭人所供六十五人。

上上官二員，上官二十五員，中官二十五人，下官十三名，其餘中下官十九人，無料，故除出，上官日供，依式分給，雖曰平均，事甚苟簡，先輩之曲從倭人所請，任他減額，貽此後弊之責，烏得免哉？

**護行裁判** 差倭吉川六郎左衛門

**封進** 栗谷藤兵衛 裁判同船者

**傳語官** 花田重右衛門

**禁徒** 小田尤平治

小田安平

**沙工** 彌五兵衛

市三郎

清五郎. 以上我船同騎者.

**大廳奉行** 仁位貞之丞

吉田安右衛門

**賄掛**【五日次知마가내】三浦治部右衛門 津留本【尤右衛門】

清水興左衛門

平山吉左衛門

**大廳都都**【禁徒】平山鄉左衛門

高崎七左衛門

戶田常右衛門

**傳語官**

越治兵衛 小田四郎兵衛【偕來】

**船滄都都**【禁徒】平田權右衛門 堀判右衛門

古川伊右衛門 吉松清右衛門

巖崎四郎三郎 江口金七

**佐**【須浦賄掛】山田式右衛 井手五郎兵衛

寺崎喜平次 廣松茂八【以上到府中後接待者.】

伴人·軍官·書契吏·首通詞·都訓導·都沙工爲上官，其餘爲中官，格軍爲下官.

## 癸丑十二月

二十日丁卯，晴. 行船習儀次，余與族丈汝卿氏·叔氏士徵及軍官徐後逢·李順白·金俊益·方興福·朴東植·李萬傑·張之碩·金業基及小童鄭潤寶，庫子朴松齊，刀尺尹命伊，偕往釜山下處白是偉家問安後，仍爲朝飯於厥處.

而與開雲萬戶金君世璵·朴友尙訥，穩話之際，兵房稟初二三吹於叔父前，余與諸公，陪行

到船滄，則前陪旗手·吹手，例自各營定送，而尙未齊會，太半借用於釜山鎮，雖不得整齊，猶爲可觀，此莫非國家恩德，感祝之心，難以限量矣。

乘船坐政於粧房上後，兵房稟坐起吹，吹打罷，裨將等，以次現謁於粧房下，分立左右，各執事下人輩，亦依次叩頭畢，大張鼓樂，使裨將等，次第對舞，而余與兩叔氏，坐於粧房中，飲酒談論，以待行船之時。

逆風大起，白浪滔滔，船人等皆以爲風勢如此，不可以造次發船，姑待風順發船云云，故差倭處，以風順則卽爲行船之意送言，而風勢終日不順，故未時罷坐，吹三吹後，陪行下船，到下處，叔父留宿，故與叔主及裨將下人等，下直上府。

二十一日戊辰，晴。風勢順利，故鷄初鳴，預爲發船，止泊於草梁設門內，而叔父自陸路作行，到船上，如昨日儀。設饌饋酒於禁徒·通事·沙工·倭等，而權生員載運·尹正世和·金正鼎台·朴正弼大·本府裨將鄭日瑞，亦皆來會云。此實盛會，而余因觸寒，身蟻不得進參，誠可歎也。

韓訓導纘興，送酒五壺·鴨子五首，而以公故，不得來會。金別差鼎均，來到船泊處，三上橋板，不及半，而眼花脚戰，終不得上云，聞甚可笑，而金公之衰老，亦可以據此知矣。士徵叔昨日落後，故得參是會，此亦有緣矣。

## 甲寅正月小初

九日丙戌，晴。清早，入辭萊伯鄭爺·接慰官權爺，兩爺之慇勤，倍於平日，而俱言珍重之意，極爲感激。食後，與族丈汝卿氏及朴東植·李萬傑，下來釜山下處，問安後，仍爲點檢雜物，昏後玄仲舉來傳家書，而閣況無恙，曷勝欣幸？

初十日丁亥，晴。丑時，行祈風祭於永嘉臺。以下廷瑞爲大祝官，柳東輝·崔暹爲執事，金俊益爲典祀官，金尙傑爲滌器，朴東植爲謁者，方興福爲贊者，李萬傑爲奉爐，鄭順命爲奉香，

金得海齋郎。祭物，猪一口·餅一甌·飯三器·炙一器·湯三器·果五器·脯一器·醢一器·菜一器·酒三爵。幣帛，白木十二尺，【盛於箱，用周尺。】位板以紙爲之，而書大海之神四大字。奉安後，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引祝及執事入，就壇南拜位，北向西立，四拜，詣盥洗位盥手，各就位。執事者詣爵洗位，洗爵拭爵，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獻官四拜，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升自南階，詣神位前北向跪，樂作三上香。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以授祝，奠于神位前，俯伏·興·小退北向跪，樂止。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曰：

維歲次甲寅正月戊寅朔初十日丁亥， 問慰官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金·通訓大夫前司諱院正朴春瑞·船將出身徐後穉，虔心齋宿，敢昭告于大海之神：

忠信之仗，至險坦履，正直之守，明神鑑視。笑睨白刃，土看黃金。昂質倉旻，倚誓赤心。一葦萬里，敢憚辛苦。臣職當然，王事靡盬，牲醑式薦，仁隲是祝，風濤利涉，使命無辱。尚饗。

萊伯鄭使君【來周】所作也。俯伏興，平身，引降復位。樂作獻官四拜，樂止。亞獻官·三獻官上同，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謁者引祝及諸執事，俱復壇南拜位，祝以下皆四拜。謁者引出執事焚位板，祝焚祝文，幣飯豕牲，奠祀官領出海港口投水。是日也，祥飈蕭瑟，日色清朗，此豈非我叔父與諸執事虔誠之致歟？余以身恙不得參，心甚缺然。

早食後，本府搜檢裨將朴經學下來催促，故盡出公私雜物，而朴丈信哉氏·玄丈道以氏及五六出使諸友，一時俱來，本府妓生等亦爲來到，故大張鼓樂，使妓女輩雙雙對舞，而侍坐叔父前，稟定行中節次之際，兵房與都訓導，來稟三次，而洛中諸友，奉別叔父次，盛設畫船，舞童待坐釜山待變廳云，故不得直往船滄，而培行其處。

玄·朴兩丈先到，而玄季深·黃聖應·尹和叔·金汝和·朴君碩·玄仲舉·朴敏甫·黃大而諸君及本府裨將金彥重·李采休兩君，亦來會矣。衆妓等，奏行船之樂，唱「漁父之詞」，而盃盤狼藉，日已向西，故拜別玄·朴兩丈，玄丈執余之手，慇懃送別，而叮囑珍重之意，與玄季深諸君及金·李兩君，握手相別，此時去留之情難堪，而且余於壬子四月，陪從下來，仍作越海之行，悵然之懷，比於人倍蓰矣。

陪行到船滄，則東萊·釜山諸親舊等來送，而本府妓生秋香·仰介·勃亦伊·命今·益娘·貴才·

傑女·無疑·來日·鳳花等諸娼，一齊來會，慇懃送別，或有垂淚者，其情可愛也。晡時，陪從乘船，以潮退水淺，不得舉碇，仍爲留宿。

十一日戊子，晴。丑時，潮進風順，故放舉碇砲後，仍爲舉帆，到倭館船滄外，則風勢潺潺，不得前進，下碇洋中，以待明日順風。午後，別一代官春日龜竹右衛門，送呈盒饌於叔父前，分饋案前諸人。是夜，雲翳四收，月色如晝，心事怆然，難禁步月之懷，移時徘徊。夜深後，與小童鄭潤寶，宿於粧房中。

十二日己丑，晴。子丑時，西北風極順。辰時，裁判使通事倭重右衛門·禁徒倭小田尤平治·小田安平送言曰：“今者天氣清朗，風色順利，可以發船云云。”分付船將，放砲·舉碇·舉帆，與裁判騎卜船，直向馬島。舟中諸人皆言：“水勢之安穩，前所未有的云。”而舟至中流，吐水顛倒者過半。若使風猛浪激，則慣水者外，必無率性人，海路之危險，據此可知也。

及到水旨，余至船頭，通望四方，滄波滔滔，雲水相連，不知其幾萬里，恍若天地間復無他物也。眼界空闊，胸襟灑落，顧彼紅塵間萬端惱碌之累，不覺心忤而顏靦矣。

距馬島百餘里，水勢漸急，船往如箭，余亦眼花脚戰，不能久立，暫入粧房中，合眼穩臥，聚精會神之際，船人告以幾到彼岸，整衣出視，馬島一山，橫沉於巨浪之中，有若與水浮沉，古人所謂鰲背山者，果不虛也。

入佐須浦船滄，放砲落帆，島主使都都禁徒津江權平，問安於船頭矣。未時末下陸，而上官以下，例有搜檢之舉，禁徒廳前，各設上中官席，依次列立後，禁徒倭一人，暫撫衣上，而不甚大端，與前所聞大異矣。余亦以上官將當其駭舉，即招通事倭廣松茂八曰：“余雖以伴人，上官來此，而乃是問慰正使之親侄，不可以立庭矣。宜有參酌之道，此意通于裁判及都都禁徒處，可也。”茂八走通其言，裁判都都禁徒以爲，我等初實不識，而今聞此言，不可與他等，宜有變通之道，而搜檢一節，自古流來之規，亦不可廢者也。請來廳上，循例爲之，則彼此無妨云。彼言既如此，則計無奈何，與小童鄭潤寶，偕至廳上，與諸倭相見畢，禁徒一人若干撫身塞責而罷。彼之禮待則可尚，而其終不肯廢法者，亦甚固哉。

下隸·格卒等，依數搜檢後，叔父前陪軍物鼓樂乘轎張蓋，自船下陸，裁判六郎左衛門大目

付六之進及都都禁徒福田傳七，一齊下堂，叔父下轎，行相見禮，禮意恭謹，禮畢後，仍向館所。行中有此行數三次者五六人皆言，前者問慰行時，上上官下陸時，諸禁徒等，不有禮貌，一事搜檢，少無禮待之意，而今番則事事如許，禮貌隆重，衆心欣悅，如得重寶云，可勝欣聳？就館後，彼人進呈酒食於上上官以下，而各有差等也。余與上官等，同會一處，談笑醉飽，而使樂工奏與民樂以賀利涉之慶，仍爲留宿。是日行四百八十里。

十三日庚寅，晴。卜物搜檢次，朝食後三吹後，陪行到禁徒廳盡出船中之物，使小禁徒等，着力搜檢，以示一行之清白無疑，而侍坐叔父前，俄而倭人等以爲：“今日輸運卜物時，彼我諸人，互相往來，不可不更爲搜檢。上官以下至下率盡數更搜。”而禁徒等，使傳語官送言曰：“尊公則異於他人，故不爲舉論云。”其爲禮待之終始如一，蓋可知矣。

大張鼓樂，使金業基·朴東植·李萬傑·崔暹對舞，而又使才人元天禧，呈鶴趨回頭立越空門，各搯才枝，次第爲之，而樂工元達者，本老倡夫，善作戲謔者也。應鼓起舞，或作盲人狀，或作侏儒形，搖目掀鼻，縮項伸臂，奇怪之狀，無所不爲，彼我觀者，莫不絕倒，亦一破寂之道也。

語次之間，大目附【大目附者首禁徒之稱，居都都禁徒之上云】加城六之進在坐，而彼此面熟，不能覺悟，久之，六之進送言曰：“上年告慶使時，俺以都船主，進往貴國，其時或有相面之舉耶？余聞此言，始爲知覺矣。癸丑之夏，新島主承襲告慶之行，有年少名松之助者偕來，而卽差倭之堂從也。重得痛病，幾至死境，而余偶施一得之術，快得蘇完，差倭深感其救活之德，設小酌以待之，時適與此人會面，而今來大海之外，邂逅相逢，亦足欣慰矣。”六之進，慇懃接待，而又送言曰：“尊公旣到此處，凡有所幹事，而係於俺身者，卽爲傳通，則當極力周旋云。”其言雖不足盡信，其禮待之意，可嘉也耳。申時，陪從就館，仍爲留宿，自是日，始受日饌及五日供。

上上官，每一日饌，生魚一尺【二寸】，造泡【一尺五寸】，生菁十本，芹菜【三丹】，生葱【三丹】，白菜【半斤】，南草【一兩七錢】。

五日供，白米【十五水斗】，酒【十五水斗】，甘醬【五水斗】，清醬【二水斗】，眞油

【二水斗】，鹽【六水斗】，醋【一水斗】，生薑【一水斗】，清蜜【三兩二錢】，蘘古【四水斗】，活鷄【五首】，山藥【四水斗】，芥子【四合】，乾古道里【二條】，方魚【二尾】，鷄卵【十五個】，山椒【二合】，蓂子【二合】，豬脚【五足】，鹽菁【十五本】，生鮑【十五個】，燭【十五柄】。

上官，每日饌生魚【一尾】，造泡【七寸】，生菁【五本】，芹菜【二丹】，生葱【二丹】，南草【二錢七分】。

五日供，白米【十水斗】，酒【十水斗】，甘醬【一水斗半】，鹽【二水斗】，清醬【一水斗】，醋【七合五夕】，眞油【三合三夕】，活鷄【二首半】，方魚【七合】，生鮑【六個】，藿【三合三夕】。

中官，每日饌，生魚【五寸】，生菁【二本】，芹菜【一丹】。

五日供，白米【七水斗半】，酒【一水斗半】，甘醬【四合三夕五里】，鹽【一合六夕】，方魚【七夕】，豬脚【二合】，乾魚【二尾】，藿【五夕】。

下官，五日供，白米【五水斗】，酒【一水斗】，甘醬【四合三夕】，鹽【一合五夕】，方魚【七夕】，豬脚【二合】，乾魚【一尾半】，藿【五夕】。

上上官·上官僉中，牛價銀【三兩】，到府中出云。

十四日辛卯晴。以風勢不順不得發船，心甚菀菀，與行中數三人，徘徊散步於庭下，忽聞門外有喧笑之聲，偕往視之，館中使喚倭一人，擊鼓起舞，而狀甚奇怪。余使樂工元達等，盛陳鼓樂，使之挑動，厥倭躍舞一回，急索小盤之無足者二，余及諸人不會其意，卽爲覓給，則厥倭置二盤於席上，聳身伸臂，說一句舞一回。馱舌之言，雖不能知之，而意者如我國優倡之祝辭者也。倏忽之間，攫置二盤於兩掌之上，左右旋轉，上下翻覆，翻而復覆，覆而復



鬣，左掌之盤，出於右脅之後，右掌之盤，出於左脅之後，出沒陞降，少無差池，如膠貼糊付者然，豈不異哉？此地人性之巧，概可知矣。

日暮後，與兩叔氏及裨將等，出往船頭，作樂遣興，一輪明月，聳出於島山之上，影入滄海，物色清淑，渾忘此身之在於千里滄波外異域也。倭人等，告以閉門，故使鼓樂前導就館仍爲不撤，自裨將廳，下至通事，次第對舞，盡興而罷。【一行家書，付送飛船次，同封出付於傳語官四郎兵衛處。】

十五日壬辰。陰。丑時，行望賀禮。朝食時，裁判使傳語官重右衛門送言曰：“今日可以發船云。”故辰時發船，出佐須奈浦港口，則東南風大作，不得掛帆，使格軍等櫓役，而倭小船數十隻，左右分列，連絡繩索，每一隻用櫓五六，一齊搖蕩，其疾如飛，而不啻風勢之不順，騎船體大，故寸寸前進。

至鰐浦，【自佐須浦三十里倭語완누라】雨雪交下，執事人等衣服盡濕，急招伺候倭船，以雨勢如此，姑爲止泊之意，送言於裁判處，則以爲去此十里之地，卽豐崎，【도이사기】極其危險處也。若風猛浪起，則雖留此數旬，決不可過去矣。今此東南風，雖非順風，水勢安穩，一浪不起，此實難得之秋也。不可停止云。其言亦甚有理。仍爲前進。

望見豐崎，則石角嵯峨，兀然削立者，林林如麻，又有如長城，而出沒於滄波之間，橫亘東西者，不知其遠近之幾許矣。我國沙工及倭沙工同載者，皆以爲自此連亘於我國延日界江吉串云。由此觀之，則雖有千里滄海之隔，山川之脈，實是一派矣。

中有如門而僅容數隻船者，故倭船二隻，預待其處，分立兩傍，指路安過，幸莫大焉。雨勢稍霽，風色漸息，故仍爲櫓役曳船，至西泊浦【이신도마리】止泊，日已黃昏矣。島主使吉田又倉問安後，上副房，各呈杉重及諸白，【酒名】分饋船中上下人員。

自佐須浦至西泊浦七十里之間，山勢峭峻，樹木叢苑，而塹山堙谷，結廬而居，隱暎於樹林之間者，望之如畫中之畫，眞可觀也。老少男女倭，各乘小船而來，觀者不知其數，女倭所服，與男倭無異，但不佩劍不斷髮，以雪綿子裹頭，至頷下而結。

而或有漆齒者，或有不漆者，所見極爲怪駭。問其委折於傳語官重右衛門，則以爲，此乃俺國流來之規，有夫者漆處女，娼女則不漆。又問，漆性甚毒，若漆齒而中毒，豈不怕哉？衛門笑答曰：“尊公其實不知，豈用漆爲？破碎水鐵，沉于酒中，取其液而漱口，則其黑如漆。”

又問：“有夫漆齒，無夫不漆者何耶？”答曰：“此是古規，俺亦不知云。”雖未知其當初主意之如何，而怪駭則極矣。【自佐須浦至鰐浦三十里，自鰐浦至豐崎十里，自豐崎至西泊浦三十里。】

十六日癸巳，乍陰乍晴。巳時，自西泊浦發船，直出港口，則東風極順，故放砲後，揭起雙帆，順流而進。雖無風濤之作，巨浪相搏，陞降轉側，窗櫳欄檻，片片響應，軋軋作聲，心神驚悸，百念俱消。智者之樂水，終不如仁者之樂山也。

歷富浦【도미가우라】·唐舟志浦【두지우시우라】·琴浦【긴우라】·小麻浦·一重浦【오시세우라히도에우라】·志多賀浦【시라가우라】·佐賀浦【사가우라】。酉時，至瀨戶內【서도노우시】止泊。

左右島山，重複層疊，倉松翠栢，蔚然深邃。其他花卉異草，密密葱葱，石灘蹭蹬，港汊錯雜，萬千船隻，可以藏匿。雙峰兀然，削立相對，而間有一路，僅通一船，如垣牆之有門戶。瀨戶之稱，蓋以此也。

努力行舟，入其戶內，則翠壁巉巖，石色如畫，若施屏障，風靜浪恬，眞馬島之第一勝區也。邊有一古廟，前立小石門，而如中國之牌樓狀。問其土人，則以爲：“昔者俺國人名住吉者，有至孝，喪母於此，而哭之甚哀，水爲之盡赤，土人憐之立祠，而多有靈驗云。”

日已昏黑。雨雪交下，禁徒支供。伺候諸倭船，依山傍樹，散處四隅，各懸明燈，恍若白晝，亦爲可觀。島主使都都禁徒平田三左衛門問安，而兼呈杉重諸白於上副房。是日行一百四十里。【自西泊浦至富浦十里，自同浦至唐舟志浦十里，自同浦至琴浦十里，自同浦至小麻浦一重浦三十里，自同浦至志多賀浦十里，自同浦至佐賀浦三十里，自同浦至瀨戶內四十里。】

十七日甲午，乍雨乍晴，風勢太作，望見洋中，白浪連天，不得發船，而午後雨霽，昏後乃止。

十八日乙未，雨雪快霽，風勢極順。辰時，舉帆發船，而余與船將徐後穉·戶房裨將柳東輝，出立船頭，通望前路，萬疊青山，左右縹緗，層巖絕壁，如削如畫，而樹木蔥蘢之間，少有隙地，則墾以麥粟之屬。石确之地，寸土如金，專賴於我國歲贈米，而一島生靈，得以聊生，可知矣。

直出海口，則左山先斷，而茫茫滄波，杳然無際，雲與水接，水與雲連，與中國之蘇·杭·兩浙，豁然相通，天壤之間，海爲最大云者，誠不誣也。沿右山而行數十里，而又轉一隅，則山勢屈曲，分作兩翼，龍虎相抱，而所泊船滄，處於其內，藏風向陽，實天作之地也。土狹人衆，故所居閭閻，依山之勢，環處於層巖之上，而樹以花竹，繞以松杉，粉牆飛甍，互相隱映於松篁之間，極其巧妙，物色清灑，此地人性，務從精巧，凡百作爲，大率如是云。

島主使者陶山大助，與執事諸倭，問安於船頭，而老幼男女之觀光者，亞肩疊背，如山如海，無慮數千百，而默默如木偶人，少無喧雜之聲，亦爲奇哉。三吹放砲後，盛陳軍威，下陸就館，自船滄頭，設行步席，至于廳前，而門窗補陳之屬，極爲精潔矣。

島主使市井奉行平田源五四郎問安，而呈杉重於上副房。昏後，與裨將廳，作樂宴樂，以賀一行之無事到泊。

是日行七十里，振舞之禮，與佐須浦同。【自瀨戶內至鴨居瀨浦十里，自同浦至鷄知浦三十里，自同浦至南實浦二十里，自同浦至府中十里。】

十九日丙申。晴。朝食後，運入船中卜物而點檢，則米穀·果子之類，大半見偷，監色之不謹，極爲未安矣。島主使寺崎與四右衛門問安，饋以花床，而以累次存問，感謝之意答送。

午時，裁判與大廳奉行仁位貞之丞·吉田安右衛門來，議下船茶禮。新島主茶禮，以本月二十二日，舊島主茶禮，以二十五日停當，而亦辦花床，饋待以送。【一行家書，同封付送於飛船次，出給傳語官清右衛門。】

二十日丁酉。晴。島主使古川多次右衛門問安，饋以花床。奉行杉村仲【平訥一】·平田將監【平誠泰】·平田隼人【平方直】·大浦忠左衛門【平倫之】及裁判吉川六郎左衛門【平方敬】，各呈鮮鯛【道味】於上副房，分饋於裨將廳·戶房所使令·沙工·工人等處，而與柳裨

將東輝·小童金三傑·鄭潤寶·書契吏金益喜等，封裹公私禮單雜物。

二十一日戊戌，晴。奉行平田隼人·大浦忠左衛門·杉村仲及裁判吉川六郎左衛門，大廳奉行仁位貞之丞·吉田安石衛門等來，各設花床饋待，而裁判·奉行落後，講定茶禮節次而去。晡時，傳語官禁徒倭及買物番【가염반】等來言：“明日茶禮禮物，依例受去云云。”故公私禮單雜物，照數出給。

二十二日己亥。晴。朝食後，島主使者來請行。三吹後，叔父與副官，盛陳軍儀鼓樂。裨將廳戎服佩弓前陪，而余與族丈汝卿氏爲首，士徵叔·金禹三諸人及書契吏·都沙工等，依次雙行後陪，而所騎夫馬，彼人預爲立待三十餘匹，漆鞍·曲鏡·錦轡·綵勒，極爲怪底。

接待諸執事倭，或騎或步，各立旗鎗，前後護行，如我國之接伴中國使者。大小洞口，各置禁徒，倭二三持杖禁喧，而老少男婦，挾路觀光，或有舉手指點，嘖嘖稱羨者。國朝衣冠文物之燦然，而爲隣國之所景仰，概可知矣。

自館所至島主所住處數里之地，道路雖不甚廣濶，平坦乾正，一塵不起，而奉行及有職諸倭之家，左右列處花木松杉之類，屈枝盤葉，或有建瓴之狀，或作倒甑之狀，極盡奇妙，寒梅脩竹·棕櫚蘇鐵之屬，雜植其間者，比屋皆然。

而路左有石碑樓，以青銅鑄爲扁額，八潘宮三大字，而字體異於楷法，而風磨雨蝕，綠苔班班，蓋古跡也。柳裨將東輝以爲：“曾有所聞。往在壬辰後，島主之妹夫平調興圖点島主，誣捏平義成，爲洪知樞【喜男】之所駁，反坐藉產而廢爲庶人，所謂八潘宮，卽調興之古第也，今作神堂云。”【所謂副特送使，卽平調興之送使，而比諸他送使，所得甚多，故義成利其所得，調興廢後累請不已，朝廷許之云。】

到島主家，大門外下馬【有下馬碑。】，上上官到中門外，下橋【有下輿碑。】，從行步席入三重門，石牆粉壁，高臺廣室，巍巍嵯峨，而窮極雕琢，山節藻梲，門扇門框飾以銅錫，務盡奢靡。其他花卉松篁之屬，不可盡述。

裁判·大廳奉行及組頭倭【待客之官，乃都都禁徒大目付之類云。】八九人，勘定所諸倭【專管行中凡百者。】前導入大廳，各有歇廳，而上上官歇所及島主所居處，圍以金屏，掛

以古畫，光彩閃爍，射人眼目。北壁之下，設玻璃床，床上蹲一古銅獅爐，而鑄品精妙，真翫好之器也。

少歇後，【紅袍烏沙。】依例傳給書契·公私禮單，與島主行振舞之禮，而所食之物，灑以金銀，是其欲誇其奢麗之意，而實爲怪駭。上官則同會於上上官歇廳之左，隔壁大廳，余與兩叔氏，北向主壁坐，而左壁則金令俊益爲首，右壁則金令禹三爲首，各依齒而坐。中官坐於外廳，下官坐於內中門外云矣。

一時進饌，而上上官前則島主·軍官等進支，其餘則執事者多率小童倭，奔走應接，輕快如飛，而無一毫錯亂喧雜之舉，法之尙嚴，可知矣。食畢進酒，酒畢進糖果·乾烏魚·柑橘而撤矣。

忽一人與茂八來揖致敬曰：“尊公利涉於千里海路，不勝欣賀云。”余答謝而問茂八曰：“此人爲誰？”其人，使茂八傳語曰：“俺乃勘定次知平田助之進，卽松之助之父也。賤息之生還古土，實出於尊公再生之恩。聞公之來，卽當趨謝，以伸感祝之忱，而俺國法嚴，館中出入，不能任意爲之，今茲接顏，勢使然也，而心甚愧慙云。”而慇懃之狀，現於辭色矣。

一二組頭，與助之進親戚云，各致感謝之意，而大目付六之進，亦以組頭在坐，送言問候，亦致慇懃之意。島主入去後，以酌菴【玄蘇僧院堂。】長老僧，與五六徒弟，來問候於叔父前，而盛設花床酒饌，以賀利涉之慶。【長老，例自倭京差來，故島主十分敬待，出送花床，以生光色云。】禮畢，三吹後，陪行就館，觀光之人，比來時添衆矣。

二十三日庚子，朝陰暮雨。島主遣使問候，而勘定所倭四郎左衛門·吉川繁右衛門·小田四郎左衛門·志賀甚五左衛門·演崎治五兵衛等來，饋以花床。以酌菴長老，亦送執事僧來問候，饋以茶果·素酒以送。

二十四日辛丑。朝陰暮晴。舊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而送。去廿二日茶禮時，雨森東之次子松浦廳長，來謁於叔父前而呈書，故叔父使余裁書答之。【島主，以廳長備諳我國禮貌，使之前導。】

松浦書曰：僕本姓雨森，名德允，往在癸巳年，雨森院長，爲大差都船主，僕纔十一歲，從遊貴國，其時足下適在草梁，因得拜謁者屢矣。爾後不相聞者二十餘年，不意今日再接芝眉於公宴之中，未知繼此辱賜青目也否？僕以雨森院長次兒，養於松浦霞沼，故改姓云。

答：

往在癸巳，令尊之奉使和館也，不佞亦爲啣命，來留草梁，與足下朝暮相從者，未知其幾何，而倏忽之間，已經卅餘春秋，各天一方之懷，能不依依。不意，向者得接青眼於公會宴樂之間，舊懷新情，藹然若春園之草，而未克從頌，曷勝其悵？春寒尙峭，未審令尊道履，茂膺蔓福，無路奉拜，迨庸耿耿，替伸是希。

午後，傳語官，禁徒倭買物番等，請受去明日舊島主茶禮禮單，照數出給。

二十五日壬寅晴。舊島主使者來請行，叔父與副官，【軍儀前後陪，如廿二日儀，裨將廳則以初次不得參者相換，而仍爲後例。】到島主家，【舊島主所住處狹窄，故行禮於此處云。】而舊島主病重不得出，書契禮單【物件與新島主同。】奉行等代受以入而上上官前，設若干茶果，茶罷而就館後，舊島主送使問候，饋以花床，而送。上上官至下官，各呈乾物單字。【舊島主有病，不得行振舞禮，故送呈乾物云。】使戶房裨將柳東輝，照數捧上。

上上官二員，宴需三十一種，代銀十一兩六錢八分六厘，上官二十五員，宴需十五種，代銀九兩三錢；二里六戶，中官二十五人，宴需十種，代銀四兩六錢八分一厘，八戶，下官十三名，宴需九種，代銀二兩一錢七分；八里，九戶。

所謂雨森東者，專管一島中文翰禮節，而嘗以裁判差倭，出來我國，與洪滄浪道長，互相唱和者也。厥家處於路左，故預爲出待叔父所乘轎，至其門口，鞠躬問候，叔父欲爲下轎，則以爲公私有異，事體自別，不可不可云，故叔父停轎暫敘而別。余在其傍，觀其體貌舉止，年近七旬，而顏貌不衰，雙眸澄澄，光彩動人，而清幽雅淡之狀，現見於周旋云爲之間，若使冠吾冠而道吾道，則可爲文明之士，惜哉！

未時，裁判與大廳奉行，來議萬松院【平義智院堂。】茶禮，以開月初二初四兩日中，無故日爲之事，停當以送。

二十六日癸卯，晴。無事。

二十七日甲辰，晴。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

二十八日乙巳，晴。島主每兩年一次入謁關伯，仍爲留住江戶，年終還島，而還島後，卽送告還差倭，告達其去就於我國者，例也。

新島主承襲其位，而將欲入去江戶，習儀行船，故裁判預設上上官下處於路南公舍，請來觀光，而上·中·下官坐席，亦爲鋪設於館門外矣。余與士徵叔陪從，而大廳奉行兩人及傳語官諸人，亦來會。

俄而島主出來，前後護行者數百人。島主及諸奉行騎馬，其餘都禁徒以下，皆步行，各執纛·鎗·銃·劍·弓·箭之屬，軍威甚盛。而島主不着冠而着短衣，與凡倭之常服無異，而足着藁鞋。

【國俗，尊貴者着藁鞋。】心甚可笑。抑有所可取者。前後陪行者，其數夥然，而肅靜不喧，遲速進退，井井有法，而繩然不亂，此其可尙者耳。

是日之朝，余使小通事白哲同，秋丕萬，送言於都都禁徒等曰：“今此貴太守之演禮，實是壯觀也。趁此太守未出之前，許我觀光，歸詔本國可乎？”答以爲：“衆人齊出，事多難便，而若尊公及隨陪小童一人，則似爲無妨云。”余與小童鄭潤寶·通事秋丕萬，出到船滄，船滄前及左山之下，有六隻大船，而紋窓朱欄，綵錦帷帳，玲瓏參差，流蘇金縷，雜垂其間，窮極奢靡，以待島主之出來，而執事倭數十人，與二三從倭，各乘小船，奔走應接，縱橫出入，輕快如飛，而無錯亂，可謂敏於使令者矣。移時周覽後，就館。

二十九日丙午晴。雨森東之長子名顯之允者，嘗以都都禁徒，出來我國，與之相接者累矣，

而到此之後，渠國之法，無執事者不得出入於館中，且渠有病不能來見，故使其表弟大廳奉行吉田安右衛門問候，而兼致景昂之意，余書以答之。

僕與足下，奉接於和館者，恍然如昨，而倏已經歲，三秋之思，曷勝言哉？釜海乘槎之日，意以爲即到貴邦，與足下討論文章，以敘契濶之懷。貴國法嚴，事與心違，苑陶斯深。今承傳言，足下有違和之節云，然耶？仰慮仰慮。而無路晉候，浩歎而已。不宣。

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奉行大浦忠左衛門，送呈南草十五把·乾古道魚二十箇【副房同。】持來人處帖下藥丸以送。

二月大初一日丁未，朝晴暮陰。丑時，行望賀禮。是日則我國之俗節，而來此異域，一行諸人，心甚無聊，造若干松餅，分給上下人員，設席於大廳前庭，而余與裨將廳，大張鼓樂，以暢幽懷，觀光者如市。

初二日戊申。朝陰暮雨。島主使者來，請行萬松院，叔父與副官，備軍儀鼓樂，由大路東行數里，轉入北巷，又行數里。山林泉石，深邃幽闐，而東山之下，有一座大莊院，層樓傑閣，聳出於葱林之間。

而鑄銅爲飛魚之甍，勢若活動，十分壯麗。清溪一曲，透迤牆根，如城郭之有濠，而玉水潺湲，幽趣可掬。問於傳語官，則以爲：“昔者義智【平氏之始祖云。】·義成太守所居之宅，而至於平義眞，以其與勘定所【專管一島錢穀，如我國之度支者。】相距稍遠，每當有事，事多窘束，故移住於今島主所居處，而只留管事人守直云。”

其傍有島主廟宇，又其傍有萬松院，而門懸鍾碧山三字。上上官至門外下轎，僧倭等撞鍾迎接，而大廳奉行兩人前導，從行步席進至院堂前，奉行·裁判·組頭·諸執事倭及主持長老僧引接陸堂。堂有綠板金字萬松精舍之扁額，而明燭煌煌，金碧閃爍。北壁下有一龕室，【隔板爲六間】，玲瓏彫琢，塗以黃金，列立義智以下位板，粉面而有記書，意其職名號，而字劃纖細，不可考矣。



贈給若干幣物後，滅燭下簾，移坐傍廳，行進舞禮，進湯餅·蔬菜·糖果之屬，而不用腥葷。院之東有一石橋，橋柱·橋梁，鑿穴撐架，方圓斲柄，曲盡其妙。由橋有直道，而地勢峭峻，故累石爲砌，望之如雲梯者數十丈，而雙排石燈臺【如我國之長明燈。】數十坐。燈臺之外，挾植松杉，落落亭亭，遮掩日色，寒氣襲人矣。

余與諸人屢屐而上，進入山門，則層階曲墻，茂林脩竹，如生人之居，而平氏諸島主墓，俱在其內云。【問其葬制，盛於木櫃，實以倭紅，納於石匣，而以石爲蓋，蓋於其上，上壓石龕云。】禁徒等不許衆人之混入，故余與族丈汝卿氏·士徵叔，立於墓道之前，觀其墓制，以石爲龕，如佛家之浮圖，而壓於瘞上，圍以石欄，前立銅鑄鶴一隻·花三朵，諸墓皆然，鶴是插燭之具，花則焚香之器，而石燈臺之散立者，則其數無算，蓋其制作者，欲其堅固不朽之計，而誠極怪駭。

又有奇妙者，行植杉松，盤結枝葉，作成墻壁，曲直如削，若施翠屏，可謂妙之極矣。移時觀翫，陪從就館後，大雨如注，是亦幸也。

萬松院平義智，光雲院義成，天龍院義眞，靈光院義倫，大衍院義方，大雲院義誠。方熙，義誠之弟退休者。義如·義誠之子，今之島主，年纔十九云，卽平彌一也。

初三日己酉，晴。島主使者及萬松院僧來問候，各饋花床以送。

初四日庚戌，晴。傳語官等，以大廳奉行之意來言：“公之一行，留此客館者有日矣。請遊翫近傍寺院，暢敘菴懷云”而以風勢之大作，未果焉。

初五日辛亥，晴。雨森東之子顯允，送人問候，兼呈書簡曰：

華翰忽至，不勝感激。足下木道平安，駐駕客館，恭喜恭喜。僕拜違芝眉，有年於茲，彼此相思，同出一轍。足下今附問慰之行，僕早已聞知，意欲倒屣於弭節之日久矣。那知意外臥

病，閉門絕交，重之三尺有法，不得愜懷，奈天慳良緣何？臨楮神馳，不知所言，唯願若序自齋，謹此不備。

答謝以送。午後，裁判來議新島主中宴，以本月十二日停當，出饋花床。圖書大差倭杉村采女，自草梁回泊，故裁判親持我一行家書來傳，而不得見吾家書，心甚缺然。日暮後，與兩叔氏及行中五六人，出往船滄，移時徘徊而還。

初六日壬子，晴。都都禁徒高崎七左衛門者，嘗以告還差倭，出來我國，與之相接者也。平明，使通事送言問候，且曰：“俺國之法，門外禁徒廳入番，都都禁徒無事而不得入館中矣。暫枉陋處，以叙積阻之懷爲望云。”余與小童鄭潤寶，出坐禁徒廳，移時接話而回來。

忽聞竹籬外，有笑語聲，而細軟清朗，如鶯聲燕語。就往視之，兒倭女年纔十一二者四五人，環坐一處，互相擊毬，而初則執毬擲地，因其勢而輕輕舉手，右擊左打，左擊右打，間以一手，激上打下。及其興酣處，手勢漸快，升降漸急，毬隨指尖，飛騰跳躍，若懸空中，彌看彌妙，而傍坐諸兒，一齊唱曲，聲甚清婉急促。問其歌曲，則以爲「擊毬曲」云。擊罷，取毬視之，以綿爲之，外用綵線網罟，團團如鵝卵之大者。傳語官等言：“此處小兒輩，箇箇務學，以爲戲具云。”蓋其國俗耳。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

初七日癸丑，朝晴暮雨。余在草梁之日，記誦若干湯頭。醫活館倭五六人，輕率之輩，互相稱譽，今番陪行之意，預爲傳播於島中，故此地老少男女之有病者，日聚門外，而畏法不敢入，懇乞於都都禁徒平山鄉左衛門，此人，卽癸丑之夏，以以酹庵送使出來我國，與之數次相接者也。使傳語官，送言問候，且曰：“竊有所告達，而所帶之任，不可以違法入館，奈何奈何云。”其意欲使余出來見渠，而不敢明言者也。傳語官等，亦爲縷縷懇請，故不得已與小童鄭潤寶，出就禁徒廳。

鄉左衛門，起立拱手，延之坐定，叙寒暄畢，曰：“弊島之有疾者，聞公之來，思欲一現，自曉來聚者，其數無算，欲爲入送，則似必紛沓，欲爲驅逐，則心所不忍，計無奈何，坐屈尊公，心甚不安云。”余答以何傷之有。

而即招病人，等近前，使傳語官，問其病情，痿者，蹙者，麻木者，傴僂者，疾濕澎脹者，火喘冷嗽者，胸腹牽痛者，眩暈怔忡者，瘡瘍腫痛者，腰酸脚痺者，不一其端，依其症候，或鍼或藥，堇堇塞責，所識者短，酬應者煩，將不免於拖白之患，而彼人輩，不識術業之深淺高下，語言之間，必稱良醫尊公，豈非可笑之甚者乎？世人之驟得浮名，騰揚一時者，抑亦此類也夫，呵呵。

初八日甲寅，大雨通宵如注，狂風大作。船滄邊所泊一歧大板倭商船二隻，爲風浪相搏，片片破碎，所載雜物，盡爲淹沒，而我船則所泊處，極其安穩藏風，故少無傷損，可幸可幸。雨勢淋漓，終日不晴。奉行杉村采女【平眞長】送呈鮮鯛於上副房各二尾。

初九日，乙卯。乍雨乍霽。島主使者問安，饋以花床以送。

初十日丙辰陰。叔父送若干禮物於雨森東，而使余裁書以給。積歲相阻，瞻仰之懷，能不依依。卽惟春寒，足下道履茂膺蔓福，不任區區。僕以不似之身，適值乏人，濫叨專對之任，中心踟躕，闕漏是懼。向者太守之宴，得蒙令胤之周旋，獲免顛倒，何幸如之？且足下出臨門牆之外，眷意隆重，誠極感激，而王命在身，未由奉展，倏忽相別，耿悵之至，如癡如醉。未知繼此而辱賜青眼，以叙其契濶之誼耶？只自綣綣而已。左錄菲品，笑領是希。不宣。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

十一日丁巳晴。勘定所五郎左衛門，有其兄之病，請於大廳奉行，來懇不已而立待人馬於館門外，故不得已與小童鄭潤寶·通事秋丕萬·使令金丕未·隨陪元達等，至其家。診察症情後，請出客位，盛備酒饌，十分禮待，

而厥家親戚之來問疾者無數，還用苦悶矣。最後有一女倭，年近三十餘者，出來拜見，語其所患，觀其服飾，長衣束髮，與清國之女，大同少異，而且其羞澀之態及舉止姿色，與我國

之女一般，而第言笑之間，露出墨齒，則心甚駭然，酬應多人，而日暮後回來。

十二日戊午，晴。島主使者來請行。叔父與副官【綠袍烏紗。】備軍儀鼓樂，就往島主家。宴享大廳，盡去隔壁窗戶，豁然寬敞，而結綵鋪氈，周圍金屏。堂之東北，曲屏爲門，門垂綠錦帳。其所排置者，與前日所見大異。問於傳語官，以爲今日島主特設能組【能組雜戲之名】，欲爲款待公之一行，此實敬待之意，而前所未有之舉，可賀可賀云。

少歇後，請改便服。叔父改着藍錦道服，戴金縷東坡巾而坐。執事倭又以島主之意，請內廳相見。傳語官等言：“此尤尊敬之意云。”大廳奉行裁判組頭等前導至內廳，【上官以下留外廳。】與島主相見，同盃禮。【待尊客酒禮。】罷，復請外廳觀戲，故與諸執事倭出就外廳，當中東向坐，奉行杉村仲·平田將監·大浦忠左衛門等陪坐，而上官以下，依次北向坐定後，彩服倭四人，各抱樂器，披綠錦帳而出，一齊作樂，樂聲短促，與我國之樂不同。

俄而二倭擡出摺床，粧造涼棚而去，紗帽錦袍者一人，自帳裡出來拜現，上坐棚中，又無角帽斑爛袍者二人，手執繡紈扇，出坐於涼棚之下，高聲談說，不知其說話之如何，而其舉止語訓，則與中國之場市，略相似焉。

又童子二人，一戴金龜冠，一戴白鶴冠，身着綠金衣，盤旋而舞，亦坐其傍，互相答話，與着帽者入去，而又二盲出來彷徨，彼此相搏，幾至顛仆，一盲怒甚，舉杖追擊，一盲着急，蒼黃奔避之狀，極爲絕倒。問於傳語官，則以爲戲名鶴龜·伯養。不能詳知其事實，而二盲則聞其樂聲，入來討食，誤致相搏，被其歐打云。

二盲去後，又二倭擡出榻床，置於堂中，蓋以錦袱，上置小几，几上有如紅蓮之未開者一顆，綵衣僧俗二人，出立其傍，作供佛之狀。忽有披髮白面鬼隱身潛出，跳上榻床，奪取紅蓮而逃。僧俗二人始爲知覺，頓足焦燥，僅僅追奪，復置几上，拱手念佛。

又有紺髮金面鬼，身被雜綵金縷衣，形容凶險，而張開大口，奮勇突出，手攫紅蓮，踏破小几，跳騰躍舞。僧俗二人不敢近前，只自搥胸，滾倒在地。忽有朱顏金睛神，頭戴金箍，身穿星衣，手執金鞭，躍至榻邊，踢倒厥鬼，舉起金鞭，橫打肩背。厥鬼蒼黃堅抱紅蓮，縮伏榻下。朱顏金睛神怒目張拳，掀翻厥鬼，復奪紅蓮。厥鬼乘隙脫身逃走，與僧俗兩人徐徐入去，問於傳語官，以爲戲名舍利，如紅蓮之未開者，卽舍利也。人家請僧供佛，而魔奪舍利，故佛遣神將，復奪舍利，卽返本還元之意也云。

又師徒二人，身着斑衣，項掛纓絡，手持數珠，相對念經。而忽有紅面赤體，紺髮如羊毛鬼，斜睜白眼，湧躍出來，執其徒弟之耳，東西提曳，痛楚之聲，不絕於口，其師不勝其憤，手攢數珠，頓足念經，欲爲收服其鬼，又被厥鬼之所執，挾而入去。傳語官以爲，師徒二人，卽山伏【我國之花郎。】赤身鬼，卽蟹精，酷好喫人，山伏師徒，欲爲說法除祛，反被其害云。

又一童子，頭戴金箍，身被白錦衣，腰插長劍，出舞堂中，忽豹頭怪眼者，身被紅錦，以帛裹頭，而大喊跳出，手舞大刀，直取童子。童子少無懼怯，拔其佩劍，與之合鋒，互相擊刺，劍光閃爍，寒氣颯颯，移時酣戰之際，忽豹頭怪眼者，擲劍退伏，叩頭稱罪，童子橫劍叱咤而去。問於傳語官，則以爲，此名橋辨慶，此人恃勇，到處殺人，故童子學得劍術，挫其兇頑云，而且言今此戲具，皆是新造，所費甚重云。【粧鬼者，皆着假面。】余不解其戲子言語，故雖不能悉曉其意味之如何，而觀其觀光諸倭之拍掌誼笑，手舞足蹈，則可知其渠國之有來歷故事，而傳語官所傳之語，不甚明快，可慨也已。

執事倭，又請上上官內廳赴宴，奉行以下諸倭，前導以入，而上官前，各呈酒食矣。大通事倭四郎兵衛來言：“奉行裁判，請入金主薄云。”余與小童鄭潤寶，隨四郎而入，層層甬道，深邃屈曲，而以十小車，各戴大砲，置於其內。進至內廳，千門萬戶，幽闕深邃，而古畫·古爐·金銀酒器·文房翫好之物，整齊齊，石塔花卉之屬，曲盡巧妙。

奉行裁判，對盤於叔父前。【渠國之法，凡接待尊客，主客相對，則多有節次，客心必不便逸，故同盃禮後，主人入去，而使其親屬陪食云。】而茶碗·酒卓·烟竹之類，俱以銀造，水陸之味，連續不徹，其接待之鄭重，概以知矣。余與鄭潤寶，耽翫景致，散步廳廊之外。

島主又送三壺酒及玻璃盒，而各付書標，一曰胡桃酒，一曰紫蘇酒，一曰蜜燒酒，盒盛各種蜜煎果。奉行·組頭送言於余曰：“今此酒果，乃是弊太守所食之物，公亦來此，一同分味，如何云。”余侍坐於叔父前，執事倭，各斟三壺酒而勸，連倒三觥，味甚香辣。余謂裁判曰：“我行之在外廳者，亦欲入觀貴處，方在門外，使之許入可乎？”裁判通於奉行，卽招衆人，遍觀其內，亦一快事也。

觀翫畢，與衆人偕出外廳，傳語官等，以裁判之意來言曰：“請觀貴國風樂及元天禧之呈才云云。”而且曰：“此非裁判之意也，有所命令云。”卽使元達等，盛陳鼓樂，又使才人元天禧，呈各樣才技於廳上，觀光者如市，而島主內眷輩，多聚於簾內云。

雨森東與其子廳長，來揖於余曰：“尊公利涉於千里滄波，仰賀仰賀云。”而不用倭語，專

以我言，十分明白。余起立答謝，與之對坐。森東以爲：“俺卽雨森院長也。往在癸巳，與尊叔父，交遊於貴國之和館者，今已二十餘年矣。恒切悵仰，而不意今者獲拜尊叔父於公宴之上，欣幸之懷，曷勝言哉！且僕之不肖息顯允，向自草梁回來，盛稱足下眷愛之澤，而近得怪疾，不能出入於戶庭之間，故聞足下之來，而趁不得趨謝，朝暮咄嗟。不勝舐犢之情，替伸敬意，而得瞻芝宇，幸莫大焉。”余答曰：“僕在弊邦之日，得聞家叔父與足下交遊之誼，願一識荊，而南北絕遠，境界有限，如風馬牛之不相及，故尋常慨歎矣。今茲意想之外，獲瞻芝眉於太守之堂，以遂平生之願，何幸如之？”彼此酬酢之際，傳語官，自內廳急出曰：“兩使今方出來，速爲三吹云云。”故與雨森東父子相別，而陪從就館，道路觀者，不知其幾千百矣。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

十三日己未，晴。朝食後，裁判大廳奉行，請出遊館外。【島主之意云。】叔父與副官及行中數十人，從前導倭，自船滄西，由石階而上，至其最高處，石山嵯峨，樹木蔥菀，而中有小佛堂，堂簷之下，懸光清寺三字，傍題朝鮮原城晚橋書。不知其晚橋之何許人，而來此海外異域，得見朝鮮二字，心甚欣喜。堂中西壁之內，供一尊彌陀佛，堂之右傍，有一層閣，而斫木以蓋，鑄銅爲萼，加於其上，翼然如張傘也。

余與諸人陪行，從雲梯而上，俯瞰滄海，萬里風浪，一望無渚，心神清快，客念俱消，而一髮青山，縹遙於邈冥之中，卽一岐島云。府中閭閻，撲地櫛比，而土狹人衆，山谷之間，亦無空地。昨年失火時，延燒數千戶云者，非虛語也。

閣名應潮，有八景，曰岐島晴嵐，曰白木歸帆，曰立龜秋月【閣之對岸，石立如龜，故名。】，曰波戶夜潮【等石爲滄，如水之戶，故名。】，曰虎崎漁火【島名。】，曰八幡晚鍾【八幡宮。】，曰後山暮雪，曰海岸白鷗，【寺名。】云。

島主送杉重諸白，分饋一行諸人，就館後，裁判來議，以酌菴茶禮，本月十八九兩日中，以無故日爲之事，停當以送。

十四日庚申，晴。是日之夕，天氣清朗，月色如晝。叔父與副官出坐於廳前，大張鼓樂，自裨將廳，下至通事·沙工·使令等，次第起舞，以示上下同樂之意，而夜深後乃罷。

十五日辛酉晴。寅時，行望賀禮。裁判大廳奉行，以奉行之意來言，島主欲觀貴國風樂及呈才，使之持樂器起送爲望云，而大廳奉行言於余曰：“下人輩酒醉後，恐有悖舉，若得足下之行，則甚好甚好云。”故余與崔令暹·船將徐後稷·小童金三傑·鄭潤寶·通事秋丕萬及樂工等五人，至島主家。

與諸倭相見畢，請入內廳，卽再昨中宴時，接待上上官之處也。盡去門窓，遍垂竹簾，庭下鋪陳長席，以爲呈才之地。花樹下別設一席，引余而坐。裁判送言曰：“今日太守內眷，多會于此，故不得請來廳上，休怪休怪云。”而執事倭等，呈上酒饌矣。

使之樂作，綵衣粉面，玲瓏於細簾之內者無算，而新舊島主，亦在其中云。奉行大浦忠左衛門·杉村仲平田將監等，侍坐簾外，請我國之舞，余使小童等出舞，又請樂工元達之舞。此卽在前元達隨往於通信之行，故倭人輩，多有見知故也。使之起舞，達也踴躍跳出，備盡奇怪，觀者絕倒。又使元天禧，呈各樣才，贈若干賞格而罷。

雨森東之次子松浦廳長，率其兄顯允之子，來現於余，而其兒懷出小紙，視之，有曰：“小生乃雨森院長孫兒，名龜允也云。”而字畫幼冲。余使傳語官問曰：“是汝之所書耶？”對曰：“小生之書也。又問幾歲？”曰：“八歲云。”而對答了了，心甚奇愛，卽索紙筆而書。八歲小兒，免於襁褓者無幾，而能書文字，豈不奇哉？所謂虎不生犬者此也。其紹續雨森院長之書香，不卜可知，可賀可賀耳。廳長稱謝不已曰：“今日足下眷愛之意，歸詫於家兄云。”

日勢已暮，故與廳長相別，而使工人等作樂前導，緩緩就館。昏後，大浦忠左衛門，各呈提重【盒饌】於上副房，分饋諸人。

十六日壬戌，晴。朝食後，裁判請遊海岸寺，叔父與副官及上官以下數十人，偕至其寺。寺在光清寺之右，與館所相距里許矣。山門嵯峨，堂宇寬敞，【東向】。堂之中央，供三金佛，金碧輝煌。

而佛之後壁層卓之上，有林林麻立之物，近前視之，以木爲小小碑碣，漆而加金，面書某信士某信女之位。問於傳語官曰：“此是何意，而又何其如是之多也？”以爲：“傍近人家之父祖靈位，每當其死亡之日，則各推其物而祭之云。”聞甚可笑。問於通詞倭判右衛門曰：“君家

先靈，亦在是中否？”曰：“有之矣。”余戲之曰：“若夜黑燈暗，則易取他人之物，似爲不難。聞者大笑。”

堂內東北有冥王位，堂之前庭有觀音堂。其堂之後，石碑無數，而或爲石欄·石門者。問之，以爲：“碑底石匣，俱是瘞葬處云。”寺之西南皆山，而只柝東北，陡然臨海，寺之爲名，盖以此也。樹林蒼蒼，有四時長春者，婆娑綠陰，菀菀深邃，而蘿菴·蒿苳·青蔥之屬，無異盛夏，此必地勢之偏於東南之故，而日色風氣之寒，無異我國，甚可怪也。

裁判奉行請我國之舞，大張鼓樂於堂上，使船將徐後穉·禮房裨將徐後逢及朴東植·金業基等舞畢。又請樂工元達之舞，使之起舞，觀光者如市，而不勝其笑。裁判及通詞倭茂八，各呈提重，分饋一行諸人。倭船自我國回，傳一行家書，而不得見吾家書，可悵可悵。日暮時就館。以酌菴長老使執事僧問候，饋以茶果而送。

十七日癸亥，晴。無事。

十八日甲子，朝陰暮雨。以酌菴執事僧來請行，而以酌菴去年被災，今無餘存，故長老僧移住西山寺云。寺在館所西牆之外，鋪設步障，通於大廳前矣。叔父與副官乘轎張蓋，而上官以下，步行陪從，執事僧二人出門迎接，進至廳上。

正廳【東向】西壁有一間粧房，內設五層榻，被以金繡，榻上奉安朝鮮國王殿下萬萬歲殿牌。【漆本紅字。】殿牌之前，列銀燭金爐，燭影煌煌，香煙馥郁。叔父與副官行四拜禮殿牌之下，余與族長汝卿氏·士徵叔及咸有德·卞廷瑞，行四拜禮於楹外，裨將等亦依此行禮，而上官以下，行禮於楹外之外。禮畢，滅燭闔門。

叔父與長老僧，及奉行杉村仲，兩揖而坐，行振舞禮，而堂宇狹窄，故正廳之右，新構涼棚，以爲上官下處，亦甚精灑。茶禮畢，陪從就館後，長老僧遣執事僧問候，饋以茶果。

十九日乙丑，大雨終日。



二十日丙寅，雨勢通宵不霽，而終風且霾，難堪菀菀之懷。

二十一日丁卯，陰。奉行杉村采女，使傳語官四郎兵衛·重右衛門，送言問候，且曰：“僕今番遠役之餘，素患猝發，而弊島僻陋，醫治無路，得聞足下有越人之術，以好生爲德云，故茲敢委送人馬，休咎爲望云。”心甚苦矣。將欲托故而辭之，因叔父之命，不能獲已，與小童鄭潤寶·通事秋丕萬·使令金丕未·及四郎兵衛重右衛門，就往采女家，

門牆高大，堂宇宏濶，亦有食祿者氣像矣。管家執事等，引到客廳，坐定後，采女與其子婿二人出來，行兩揖而坐。傳語官及隨來禁徒等，俯首趨跽，有若奴隸。

寒暄畢，論其症情，而傳語官所傳之言，不甚明快，余書而示之，仍爲筆談，互相對答，而雜引陰陽衰旺·臟腑生剋及經傳古事，譬而諭之，偶合厥意，滿口稱服，感謝不已，此與堪輿家妄說禍福，不識頭緒者，惑其虛誑，誠心尊崇，視若神明者，奚以異哉？可笑可笑。

采女，使四郎兵衛傳語曰：“今具薄饌，而主客相對，則似不便逸云云。”而同盃禮後，卽爲入去，厥家親屬及傳語官禁徒等，以次勸酒，進九味而罷，老少男婦數十人，待立廳外，一齊問疾，紛沓噪聒，實爲難堪，亦一苦況矣。日暮後，與采女相別，還館。

二十二日戊辰，晴。以酌菴長老僧，與執事僧六人，若堂【帶率之類】二人來問候，兼致回謝之意，而乘擔轎張紅傘，從者甚衆。是其國俗，而怪駭則極矣。裁判·大廳奉行等亦爲偕來，一體饋待以送。

二十三日己巳，乍陰乍晴。島主使者來問候。以酌菴長老使執事僧二人來問候，呈上采箋，有曰：

昨赴賓館，敦領盛饗，款接勤摯，感欣實深，謝悃無既。

因賦野律一章，兼呈兩使節，下博粲：

終古兩邦通善隣，幸逢持節使槎臻。嶮超滄波一千里，盟誓山海幾萬春。鼓吹館中瞻禮典，  
 燕筵盤裏列清珍。交談貴解此方語，傾盡真情親更親。  
 末書驢山光瑄，饋以花果，謝其慇懃之意而送之。

二十四日庚午，積雨快晴，與行中諸人，出往船滄，移時徘徊，遣輿而還。

二十五日辛未，晴。叔父與副官，及行中諸人，出往船滄，余亦陪從。使元達等大張鼓樂，  
 觀光者如市。船滄都都禁徒，請觀元天禧之呈才，而以地多石角，不得爲之，略施而罷，日  
 厠乃還。

二十六日壬申，乍雨乍晴。雨森東與其孫兒龜允，來現叔父前。寒暄畢，龜允懷出其父顯允  
 書呈余，有曰：

槎臨有日，卽當趨謁，而病與禁并，作我怪祟，悵也奈何！小豚頃在公堂，塗鴉一二，不意  
 過蒙眷顧俯愛，多辱厚貺，其在舐犢之情，感戴何限。今日家君進館，又復帶去，童心劣質，  
 未必不羞澀于躋蹠之中，幸爲提誨是祈。茲告紫金丹·玉樞丹·薄荷煎及瀉清丸方法，此雖流  
 傳，未審真贗，敢求明示，以指冥途如何？其中瀉清丸最所未諳，其主治及炮製法，詳悉書  
 示，仰懇仰懇。錯愛之餘，煩瀆至此，幸勿咎焉。時方春雨，尤須珍嗇，不備。

雨森東言：“此兒略解書字，使渠書之何如云。”余使小童出給紙筆，龜允少不推辭，捲袖執  
 筆，大書：“蘆花深澤靜垂綸，月夕煙朝幾十春。自說孤舟寒水畔，不曾逢着獨醒人。”二十  
 八字，而與前日島主家視余之細書字，大異。其排置體劃，正直分明，念出許多字，信手書  
 之，而無一錯漏，誠甚奇妙。上·副房賞紙筆墨，余亦多贈果子，而其父顯允處，答書以送。

今日令尊之寵臨，誠是料外，而眷愛之誼，特出尋常，曷勝欣幸？且令胤龜允，來傳手滋，

憑諗足下調候，尙今未瘳，貢慮貢慮。

向於太守之堂，得見胤子，而不勝奇愛，書贈數行字，不意今者過蒙推獎，慚赧深，罔知攸答也。今見龜允，如對芝字，而於稠人廣座中，捲袖揮筆，大書特書二十八字，而排置字劃，井井有法，少無參差，何其奇哉！何其壯也！可謂足下之有子矣。所示四種丸劑之法，適值僂擾，未克考出，徐當錄呈爲計耳。不宜。

二十七日癸酉，朝晴暮雨。雨森東之子松浦廳長及平山兵藏等，以島主命，來講論草木禽獸。昨年夏，一代官越常右衛門，兼典書官，出來我國，請學草木禽獸之名，朝廷許之。未幾，常右衛門，病死館中，其事遂寢。至是，廳長等來，質正其未完者。

二十八日甲戌，晴。奉行杉村仲與諸執事倭來呈新島主回答書契并別幅及舊舊島主平義誠·舊島主平方熙·平彌一兒名圖書，照數捧納後，饋待花床以送。

午時，近習【島主近侍人也。】鈴木市之進，持禮單單子而來，使該色等照數捧上，分給一行諸人。

### 書契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如，奉復朝鮮國禮曹大人閣下。星槎鼎來，華帖捧誦，憑諦貴國靖和，慰釋逾常。【不佞】嚮奉鈞命，紹家緒，掌隣誼，客歲初入州，繇是遠煩象官，辱蒙盛賀。況多儀珍品，尤出厚意，銘荷之深，謝悰何勝？且去秋馳价所請新印，賜以鑄送，感領。卽啓東武，仍今般先老二太守之圖書，及兒名圖書共三顆，還璧焉。別錄薄物，庸表回悃，搆置爲榮，統祈攝理。肅此不備。

享保十九年甲寅二月日，對馬州太守拾遺平義如。

### 別幅

貼金小屏風三雙，水晶笠緒十五結，黃蓮十五斤，粹鑑中清皿三十箇，粹鑑中茗碗三十箇，彩畫掛硯一備，彩畫花箋匣二箇，彩畫文匣二箇，彩畫書架二脚，彩畫衣桁二脚，彩畫有跌

大圓盆十枚，朱竿煙器五十握，赤銅累五，盥盤二部。

上官二十五員，丹木四千一百二十五斤，小煙竹三千七百五十箇，中匣草一百箇，紋紙五十軀。中官二十五人，丹木四百二十五斤，小煙竹七百五十箇，紋紙四十三軀七十五丈。下官十三名，丹木一百四十三斤，小煙竹二百七十三箇，紋紙十三軀。

二十九日乙亥，晴。島主之外祖樋口孫左衛門者有疾，懇請不已故，與小童鄭潤寶·通事秋彥萬·使令金彥未·通事倭四郎兵衛茂八，至樋口家。堂宇之宏廠奢靡，與島主家一般，而客廳南壁朱簾之內，彩衣粉面及年老戴白者，無數聚會。余問四郎兵衛曰：“此是客室，而何其女人之多也？”曰：“簾內與此家內室相通，而聞舊島主妻及新島主之母適來此處，欲觀貴國衣冠，與諸婦女聚坐云。”

少頃，孫左衛門出來坐定，論病畢，使四郎兵衛傳語曰：“薄具小饌，而弊邦酒禮，苛而不便。僕嘗以裁判送使，出往貴國，稍解貴國之法，請以貴國之禮，行酒可乎？”余曰：“諾。”衛門使其家人，即呈杯盤，而食品規貌，與我國之饌，恍然相似。衛門慇懃勸酒曰：“僕前日隨行奉行之列，而今則老病退休，身無職事，故不得進拜於尊叔父，方切悵快，而不意今者，獲接尊顏，何幸如之？今日天氣清朗，日色和暖，請開懷痛飲，以爲接風之樂爲望云云。”而十分款待，余辭以量小，數巡而罷。

診察數三病人後，與孫左衛門相別而來，路逢島主，回馬隱避，問於傳語官，以爲島主行期在邇，故往拜於萬松院墓所，而方向孫左衛門家云。路傍人家垣牆之內，百花爛熳，紅白參差，而微風一起，香臭擁鼻，亦一好風景也。按轡徐行，左右觀翫，緩緩而歸。

三十日丙子，雨。飛船一隻，自草梁入來，傳致一行家書，而不得見吾家書，心甚悵然，而累次船便，每每如是，可怪可怪。

## 三月小初

一日丁丑，晴。寅時，行望賀禮。余在草梁之日，倭人鳴村理左衛門者，以中禁徒，出來館中，頻頻來見，而爲人端正良順，故若有食物，則必以饋之。厥倭隈滿還島，來到館門外問候，余送言禁徒廳，使之入送，衛門趨入跪拜，而使通詞倭，傳語其前日感激之意，且曰：“尊公乘船之日，未由奉別，心切悵缺，而今來穫拜於弊邦者，又是意外，其爲欣幸，曷可勝達云云。”而舉手稱謝，縷縷不已，彼雖非吾之徒，而其情則可嘉也耳。饋若干酒果以送。

初二日戊寅，晴。舊舊島主平義方之子，村岡左京者有疾，而與時島主爲堂從間。使大廳奉行等，來請甚懇，余與小童鄭潤寶·通事金險札·使令金丕未·及傳語官重右衛門·廣松茂八，偕就其家。家在島主家後山之下。

左京，年纔十八，而兩目盡瞽，不得行禮，故島主，送都都禁徒一人，使之傍立，代行其接見之禮，問其病原，言幼時重得疝脹，兩目昏暗，誤點藥屑，以致廢明云，點藥之患，概其如是也夫。余答曰：“眼珠突凸，白膜已厚，雖越人復起，無能爲也。”曰：“盲者之不可復睹，僕亦知之，而膈滯腹脹泄瀉之症，今爲痼疾，元氣漸漸，幸望足下祛此諸症，以延此命，則其恩其德，曷可忘諸？”其言誠可憾矣。書給抑肝扶脾之劑，而反以思之，不覺可笑也。左京，使其執事倭，卽呈盃盤曰：“僕以病廢之人，不能坐待尊客，故弊島主，特遣都都禁徒，以代其禮，心甚悵缺，望足下休咎，幸甚云云。”而扶人入去，都都禁徒，又立其傍，代行兩揖禮。都都禁徒及厥家親屬六七人，互相勸酒，進七味而撤。

老少男女一齊問疾，苦莫甚焉。此所謂欲罷不能者也。問答之際，粉面綵衣女數十人，裂破窓孔，露出半面，注目觀望，事極駭然。問重右衛門曰：“何其女人之若是多耶？”曰：“此皆左京使喚之女，而自官賜給，故厥女輩，終身不得嫁云。”日晏後，與諸人還館。昏後，島主以入去江戶次，乘船，待風於船滄之東云。島主使者來問候，饋以花床。

初三日己卯，晴。是日卽三三之日，而又是清明節也。余與兩叔氏，設席於廳前，大張鼓樂，

與一行諸人，上下同樂。島主送艾餅·諸白，分饋裨將廳·戶房所·通事·使令·工人·沙工·奴隸等·傳語官·買物番等，呈提重·諸白於叔父前，而且送酒饌於余與兩叔氏及三四諸人，從容醉飽，而使金裨業基，依簫而歌。移時，宴樂而罷。

裁判大廳奉行來，議定別下程·上船宴及乘船日字，別下程，以明日行之，上船宴，本月十六日，乘船本月二十四日爲之事，停當以送。

初四日庚辰，晴。日付大浦與一衛門，持別下程單字來，戶房裨將柳東輝捧上分給。

上·副房各杉重一坐·魴魚二尾·鹿脚二箇·清酒一樽。上官二十五員，粘飯一桶·魴魚二尾·清酒一桶。中官二十五人·下官十三名，上同。

年少倭人名春日玄意者，與傳語官重右衛門來現曰：“僕之祖米田勘右衛門·父勘三郎，俱以針術，鳴於島中，不幸早死。僕幼未能紹續箕裘，而弊島狹陋，師授無路，尋常慨惋。今聞足下飽覽華扁之書，有起死回生之法云，不勝欣聳，幸望足下，點掇愚蒙，使之成就，以續父兄之業，則其恩其德，爲何如哉？”余聞是言，不覺瞿然莞爾而答曰：“豈有是哉？此必公之誤聞風傳也。”玄意曰：“今番足下來臨弊邦之後，不啻名聲之喧騰，沉疴怪疾之得以蘇完者亦多，誠若足下之言，從何以致此耶？更望足下，勿爲過謙，明示一二，幸甚幸甚。”重右衛門從傍懇勸曰：“傳語酬酢雖苦，終若拒絕，則彼必無顏。看我薄面，明以教之爲望云。”

計無奈何，問所習者何書，玄意懷出一冊，卽針灸書也。處處付標，逐標而問，余解其文理，分析喻之，厥倭滿心歡喜曰：“今聞尊言，胸次豁然矣。既承明教，從今爲始，逐日來現，幸勿爲苦是望云云。”俯首稱謝而去。彼之誠心向學，欲續其父兄之業，則雖甚可嘉，無其實而好爲人師，將未免賊夫人子之誚矣。

初五日辛巳，晴。有一年少倭，與傳語官清石衛門，來問其疾，且曰：“僕名阿比留久五郎，賤號鵬溟，卽雨森院長之門人也。因師院長，得聞聲華久矣。今來獲拜，而辱賜青眼，不勝欣幸云云。”而舉止恭謹，言辭端雅，稍有斯文之風，與之筆談，移時而罷。

春日玄意者來謁，而懷出一書曰：“此貴國鍼醫李秀甫贈亡父之書云。”受而視之，秀甫傳授穴法，而勸勉三郎之意，而玄意之意，欲使余亦如秀甫之贈其父。傳語官等，知其意而勸余，余信筆而書之曰：“對州人米田勘左衛門及其子勘三郎，俱以鍼術，鳴於一時者也。其孫春日玄意，來訪余於賓館曰：吾祖吾父在世之日，僕幼不能傳受其業，而今無及矣。僕雖不敏，願授九鍼之法，使之紹續其箕裘，則何幸如之？余觀玄意，清秀端正，而且其向學之誠可尚，故不揣識淺才拙，指點若干穴法，是豈曰爲君之師也？亦一相長之義也。聞貴邦筑前大板之城，多有賢者云。勿憚負笈之勞，採摭玄機，以爲醫國之手，是所望也。玄意其勉之哉！”厥倭滿口稱謝曰：“不意秀甫古事，復有於今日，僕之父子，可謂有緣於貴國矣。當與秀甫之書，十襲藏之以遺子孫云。”誠可笑也。

初六日壬午，雨。加肖梁格軍梁善巾者，數十日前，重得熱病，症情危惡，故出置於館外人家，多般治療，而有加無減，竟死於去夜云，聞甚慘然。題給若干斂具，而出送於飛船事，停當於大廳奉行處。

初七日癸未，晴。今日，我伯父知樞公壽旦也。昨年此日，爲伯父周甲之辰，故在京諸從，設小筵獻壽，而余陪從叔父於草梁任所，一家不得團聚，難堪其耿耿之懷，而今來千里滄波外卉服之域，又逢此日，其爲悵菀之情，益復何如哉？欲設小酌，奉慰叔父之心，而以格卒之有故，未果焉，尤極悵然耳。

初八日甲申，晴。乘船日字不遠，使船將徐後穉，與船滄禁徒及各色倭匠等，看審船中什物，而今十五·十六兩日中，以無故日煙燻事，停當於大廳奉行處。

初九日乙酉，朝陰暮晴，倭船回泊，便得見去正月廿九日家書，閣況無恙，而伯父氣候，一樣萬安云，欣幸欣幸耳。

初十日丙戌，終日陰雨。雨森東之門人鵬溟者，及春日玄意來，與之筆談，日暮後乃歸，可謂有情，而亦足以消鬱鬱之懷也。

十一日丁亥，乍雨乍晴，而終日大風。

十二日戊子。雨。舊島主近習內野市郎左衛門·幾度又右衛門，持舊島主回答書契并別幅禮單單字來，照數捧上，而使戶房監官，分給行中人員。

### 書契

日本國對馬州民部大輔平方熙，奉復朝鮮國禮曹大人閣下。遠承惠贖，莊誦三復，就諳體履調適，曷勝欣暢？不佞謝事就閑，舍侄奉命承業，由是辱蒙慶慰，且領腆貺，感謝實深。左幅雖薄，略伸鄙忱，諒存是希。肅此不備。享保十九年甲寅二月日，對馬州民部大輔平方熙。

### 別幅

貼金小屏風三雙·水晶笠緒十五結·黃蓮十五斤·粹鐵中清皿三十箇·粹鐵中茗碗三十箇·彩畫掛硯一備·彩畫華箋匣二箇·彩畫文匣二箇·彩畫書架二脚·彩畫衣桁二脚·彩畫有跌大圓盆十枚·朱竿煙器五十握·赤銅累五，盥盤二部。

上官二十五員，丹木一千斤，小匣草三百七十五箇；中官二十五人，丹木四百五十斤，小匣草二百五十箇；下官十三人，丹木百四十六斤，小匣草一百七十箇。

十三日己丑，晝雨夜晴，無事。



十四日庚寅，朝雨暮晴，瘴雨淋漓，連日不霽，客懷悶苑，與小童鄭潤寶，出往禁徒聽，與都都禁徒，平山鄉左衛門，移時間話而來。

十五辛卯，晴。寅時，行望賀禮。使船將徐後稷，率我國沙格及禁徒倭匠等，修理船中，俾無滲漏之弊，而仍爲煙燻。

春日玄意者又來，講論穴法，而書示余曰：“弊邦之婦人，年過二十，則腹中成塊者，十居七八，而至土用八專，則厥疾添劇難堪。未知貴國婦人輩，亦有此患耶否？”余不解其意。問玄意曰：“書中土用八專，未知何謂耶？”曰：“所患婦人，每當四仲之月，則自初一日至十九日，或早或晚，三四日或五六日，極痛而愈，過十九日則不痛，又當仲月，則厥痛如前之謂也云。”又問：“誠是異事，而所謂土用八專，終所未曉者也。”曰：“此乃弊邦之流來方語也，僕亦未知其意味云。”可怪可怪。

十六日壬辰，晴。島主卯時發船，入去江戶。裁判六郎左衛門，島主禮房倭大石伴五，持上船宴乾物單字來，【島主乘船，故不得設行。】使戶房裨將柳東輝，照數捧上。

上上官二員，宴需三十一種，代銀十一兩六錢八分六里，上官二十五員，宴需十五種，代銀九兩三錢二里，六戶中官二十五人，宴需十種，代銀四兩六錢一里，八戶。下官十三名，宴需九種，代銀二兩一錢七分八里，九戶。

十七日癸巳，晴。新舊島主禮單雜物，使戶房裨將柳東輝，分給上·中·下官。柳君東輝爲人忠直恭謹，且能文而善書，故乘船之後，差定戶房之監。監之爲任，專管一行糧料財帛，記注其出入。蓋喫緊苦任，非才能有文算者，決不能堪勝，而且無公平正直，則亦不可以授之者也。

柳君任事之後，日夜孜孜，不啻不墜其職，正直分明，毫末之事，少無疎忽，而每於五日收

捧時，倭人輩若有差誤而不悟，則明白算帳，逐條曉諭，終不肯利而隱匿者，非止一再，我行多之，而倭人輩，舉皆心服，咸稱其廉潔，名聲藉藉，豈不美哉？

柳君素貧窮，在家之日，擔石屢空，而澹澹然自如，不以飢寒，移其所操，有古君子風云，可敬可昂。向日分定幕僚，而後因徐後稷之言，叔父始知柳君之才行，而他無通變之舉，以并定帶來。凡所食分兒之物，比諸元定，減半而已。獨勞苦，似必有怏怏之色，而與之相處者，數月于茲，一未見有不快底意，謂有古君子風云者，果不誣也。

余心甚憫然，與卞君玉·方德祖諸君，鳩出若干物，而行中諸人，聞而隨波相助者亦多，柳君之有心德，亦可以據此可知矣。合爲一色，贈而告之曰：“今茲些少之物，實是愛君之清貧，而誠心周急者也，豈世俗子與受之比哉？幸勿推辭，以孤我衆人之意。”柳君愀然曰：“當今之世，誰無見利起心，而今此相贈者，有何名目也？”余陽爲作色曰：“吾等早知君意之如許，而意以爲衆人之言，君必聽從，故有此舉措，而何其泯泯之至此耶？終若不肯，則吾等之誠心，將歸虛套，而還爲赧然矣。”柳君不得已受，其幾於素貧賤，行乎貧賤者矣。

十八日甲午，晴。兵房·船將·戶房·兩禮房·及書契吏·小童·通詞·使令·沙工及唱工人·刀尺，五日庫子·廚子等處，帖下若干雜物。

十九日乙未，朝陰暮雨。別幅禮單雜物，與都都禁徒平山鄉左衛門，眼同封裹。奉行杉村仲，有其弟之疾而請，余與小童鄭潤寶·通事崔世佑·使令金丕未隨陪元達·通詞倭重右衛門，至仲家，乃前日所往采女之家。問之，仲卽采女之子。島主家適有緊務，故仲之父子俱往，而使其弟接待云。

與之論病畢，盛備酒饌以待，而男女有疾者，迭相來懇，僅僅酬應，誠可苦也。忽狂風大作，暴雨如注，而日勢漸晚，乘擔轎冒雨而還。樋口孫左衛門送書問候，兼付若干土宜曰：

比者辱蒙賁臨，繼惠芳札，感慰之至，無以爲喻。卽惟旅榻何如，不勝區區？所投藥方，當從盛教製服，幸甚幸甚。令叔尊候，想惟多福。替致鄙意如何？茲將薄品，聊伴回轅，莞留是希，不備。

二十日丙申，晴。每月念後，則潮水漸退，預爲發船，移泊於東山水深處，以便廿四日行船。

春日玄意來，與之寒暄畢，曰：“僕近得寒疾，不得問候者多日矣。未審尊候一樣平安否？僕幸得識荊以來，過蒙俯愛，而且授秘訣，感激之忱，曷有其極？聞乘槎涓日，行旆在邇云，故強疾來辭，從此南北隔遠，境界有限，未知何日，更得獲拜尊顏，以遂此未了之誠耶？”余答曰：“來到貴邦，四顧無親，客懷難堪，而幸蒙公之逐日相訪，情意甚密，良用欣慰，而且公不恥下問，故臆說若干穴法，方切慚赧，而今者秘訣之稱，一何誤也？”曰：“僕幼年失教，晚而就學，而師授無路，徒有亡父之書，莫知頭緒，尋常悶苑，而不意足下賁臨弊地，不以僕爲卑鄙，特垂明教，擊破愚冥，僕自聞命之後，豁然清快，不啻若發蒙睹天，何幸如之？亡父遺業，可以紹續，足下之恩，其敢忘諸云。”而怊悵不已，余慰之曰：“公之厚誼，誠極感謝矣。古語云，‘人生何處不相逢？’安知他年，再與公，歡然相逢如今日哉？惟願孜孜不撤，期於成就，可也。”玄意拱手稱謝曰：“謹當如教，而館中出入，十分難便，且身病如此，不得再來，從此告別，惟望珍重，早早利涉云云。”而去，余亦有舛然之懷耳。

二十一日丁酉，朝晴暮雨。結裹卜物。酉時，倭船自草梁回，傳一行家書，而不得見吾家書，心甚悵然，而萊州諸妓，各付情札，可嘉可嘉。

昏後，大廳奉行吉田安石衛門來請樂，叔父與副官出坐廳前，使之作樂，又使朴東植·金業基對舞而罷。

二十二日戊戌，大風雨。以酌菴長老僧，遣執事僧問候，饋以茶果而送。

二十三日己亥，朝晴暮陰。雨森東來辭叔父曰：“積阻之餘，獲拜尊顏，而弊邦法嚴，未得朝暮承接，尋常悵昂，而今當榮旋，勢不可挽留，此心之舛然，曷可勝喻？”書呈一絕曰：“飛

花歷亂柳如絲，正是江頭分手時。臨老猶將強壯語，他年鷄黍笑爲期。”

又向余而揖曰：“僕與足下邂逅相逢，旋即奉別，迨庸耿悵，而公私有別，不得遠送，尤可歎也。惟願鷓鴣路平安，坦履滄波，是所望也。”余答以感謝。酒過數巡，起身拱手，珍重珍重云而去，可謂有情之士也。

凡百公幹，無弊竣事，乘船在明，而無他所事，上下安閑。叔父與副官及行中諸人，設席於館門，而大張鼓樂，使元達·元天禧呈各樣才，大廳奉行都都禁徒等皆來會，而觀光男女不知其幾千百。日暮乃罷。

二十四日庚子，晴。新舊島主使者及大廳奉行安右衛門等，把酒來餞，而諸奉行等，遣人問候，且致珍重之意，答謝以送。

午時三吹後，叔父與副官，備軍儀，出到館門外，別代官立花左平治·長留藤右衛門·橋邊又兵衛·津和崎德右衛門等，羅立路傍，躬身送別。叔父下轎答揖，而與都都禁徒以下諸倭相別後，仍爲上轎到船滄。乘船坐起，吹三吹罷，放舉碇炮發船，到久田待風所止泊。

與館所相距數里，而十餘村家，散處於山麓之下，石田茅屋，頗有幽趣，而傍有一大屋，十分廣濶，島主藏船處云。

禁徒原太郎左衛門·來德長左衛門·沙工倭判三郎瀨兵衛·傳語官吉松清石衛門。

二十五日辛丑，朝晴暮陰。今日我先妣之諱日也，不勝追慕之情，而方在叔父侍下，且船行異於陸地，望哭之節，亦爲廢闕，悲痛之懷，尤爲難堪，而在家昆季之哀痛，想必一般矣。中夜彷徨，不能就寐耳。

午後，叔父與我行六七人，裁判·傳語官，各乘小船，遊翫於越岸延命寺，移時乃還，而隨陪人等言，多有景致云。北風連日不休，故不得發船，仍爲留宿。

二十六日壬寅，終日風雨，仍爲留宿。

二十七日癸卯，朝晴暮雨，風勢稍好，故未時用曳船，直出海口，則變作東風，而細雨濛濛，不可前進，不得已還入久田，心甚菀悶矣。

二十八日甲辰，晴。東風終日不息，不得發船。

二十九日乙巳晴。風勢不順，不得發船，殊甚菀菀。使傳官清右衛門，送言於裁判曰：“向日家叔父遊翫之行，余有故不得從焉，而且候風久滯，悶菀難堪，許我下陸，一暢幽懷可乎？”曰：“諾。”即送一快船。與兩叔氏及柳裨東輝·卞君廷瑞·小童鄭潤寶·通事金險札·秋五乙萬·五日庫子朴松齊·樂工二人，傳語官清右衛門·判右衛門，偕至彼岸，廣濶而地肥腴，又多有源泉。若墾而播穀，則可獲千鍾之粟，而只有略干麥田，而無水畚，可惜也。清溪一曲，自南橫流，玉水滾滾，白石磷磷。

余與諸人，坐於芳草之上，少憩而緣溪行數里，山林川石，益復清秀，而山谷松篁之間，有一小屋。余與我行及通詞禁徒諸倭，信步而到其門，主人出來接，入坐於花樹之下。余觀其人，言辭舉止，恭謹端雅，頗有隱者氣象。余使清右衛門傳語曰：“僕等來到貴邦，竣事還歸，而連以風勢之不順，逗遛者累日矣。不勝菀菀，下陸遣興，而耽翫景致，偶到貴處，獲瞻芝宇，深用欣幸矣。”其人答曰：“僕名井手藤十郎，自少居於府中，不幸再昨年弊島之慘被火災也，燒盡家產，而愛此風景，結廬而居，不意今者，忽得貴人之辱臨弊地，何幸如之，而山家無物，末由款接，慙赧云云。”而慇懃勸茶，其意可嘉，而移時問答，亦覺有趣。

日已向西，故別藤十郎而來言：“延命寺去此不遠云。”遂與諸人，由橋過溪，復行數百步。寺在半山之中，年久荒廢，別無可觀者，而僧名鐵員云。去時所乘倭船，艤待山下，與諸人下船，緩緩而歸。

## 四月大

初一日丙午。晴。南風極順。卯時，放舉碇砲，三吹後，與裁判騎卜船及護行禁徒船，直出海口，揭起雙帆。風順浪平，殆同陸地，而輕快如箭，舟中之人，談笑如常，人人自樂莫不稱頌。

歷瀨戶·西泊等浦，幾至豐崎，而西風大作，不能制船。未時，入豐浦止泊。去豐崎十里許，而山勢縹緲，極其安穩，眞藏船處也。叔父率行中數十人下陸，與裁判倭，散步遣興，行至山後，近百居民，依山結廬，傍水種麥，稍有純古之風，而多有富戶云。又行數百步，有竹林院，蓋一小菴也。雖不甚寬敞，奇花異草，蒼松翠竹，十分可愛。與住持僧，移時閑話，日暮而回，古人所謂偷得半日閑者也。是日，行二百三十里。【是日卯時，行望賀禮。裁判以島主命，送呈杉重諸白於上副房。】

初二日丁未，風雨大作，昏後乃止。

初三日戊申。晴。卯時發船。出港口，多用曳船，曳至豐崎，是馬島第一險處，而多有石角，故怒濤層浪，屹立如馬，咆哮相搏，心甚危怖，而暈倒者亦多，僅僅安過，幸莫大焉。

健兒數十人，各乘畫船，奮突出沒於巨浪之間，如履平地，十分悍勇，而舉止異常。同舟諸倭等言：“渠輩俱以一歧漁戶，捉鯨爲業，而此處多長鯨，故尋常往來。一歧之島，去此四百八十里，而視若咫尺，朝暮出入云。”

風勢不順，故午時到泊佐須奈浦，下陸就館，日勢尙早，頗有踏青之興。叔父與行中諸人及傳語官·禁徒倭等，散步徐行，從山路深入數十百步，脩林茂竹，鬱鬱蒼蒼。中有一小菴，而扁書福壽山觀音寺，李貞谷壽長之筆也。僧知觀出山茶野菜以待，與之閑話，移時而還。是日行五十里。

初四日己酉，晴，風勢不順，仍爲留宿。

初五日庚戌，雨，不得發船。

初六日辛亥，晴，風勢不順，仍留。

初七日壬子，晴。裁判使傳語官送言曰：“今日風勢稍好，可以發船云。”辰時三吹後，與裁判騎卜船及指路船，放砲舉帆，直出海口。

離馬島百里許，風勢漸息，變作北風。櫓役前進之際，裁判急招指路船傳語曰：“日已過午，風勢若是，不可前進，況且海路，異於陸地，而前路有三百餘里，若洋中日暮，則事極狼狽，姑還弊島，更待順風，何如云。”舟中之人，論議紛紜，或北或南，不一其端，而唯船將徐後釋，及都沙工崔守命，俱言：“日晏風殘，烟靄四塞，窮日櫓役，可到水旨，自水旨到釜山，將不知夜深幾許，而不測者風雲也。裁判之言，實爲萬全云。”言甚有理。從其二人之言，與裁判船，卽爲回棹，艱辛櫓役，還入佐須浦，日已昏黑矣。

初八日癸丑，雨，不得發船。

初九日甲寅，晴。西北風，通宵不休，不得發船，舟中之人，不勝寒苦，誠可悶鬱也。

十一日丙辰，晴。風靜浪恬，日色和暖，衆心欣悅，而又得順風，卯時三吹後，與裁判騎卜船及指路飛船，放舉碇炮，一齊舉帆，直出海口，順流而進。纔過水旨，忽狂風大作，掀動天地，怒濤驚浪，屹立相搏。我船及倭船，出沒於巨浪之間，前後升降，左右轉側，大小木

板，片片作聲，而後帆弓竹，折爲兩端，一舟之人，莫不蒼黃，暈倒者過半。昂賴國恩，獲免顛覆之患，而風雲之變，誠難測也。

風猛浪烈，不能制船，任其所往，晡時，漂泊於加德鎮船滄，一行無事，幸莫甚焉。裁判卜船，漂向玉浦云。下陸後，鎮帥裴公泰琪，卽爲來見，十分慇懃，而夜深乃歸，誠爲感謝耳。使樂工大張鼓樂，又使裨將廳及本鎮將校輩，迭相起舞，以賀無事到泊之喜，仍爲留宿於待變廳，是日行五百餘里。

十三日戊午，晴，風勢稍好，故辰時三吹後，舉碇行數十步，潮水已退，不得拔船，多用曳船，而亦無奈何。

申時，乘夕潮，與裁判船指路倭小船及我國守護船，舉帆前進，幾至沒雲臺，風勢大作，不能制船，幾乎觸石。事甚危急，蒼黃落帆，僅僅回舟，幸以得免，而無處止泊，不得已還爲退行，至長林浦前洋下碇，裁判船，已向館所。

而風勢益急，日已昏黑，四顧茫茫，衆心遑遑之際，指路倭小船及我國守護船，追蹤來到送言，守護船將安骨萬戶崔雨碩，使之傳通危急之意於多大鎮，則該色等，稱以鎮僉之就睡，防塞不通云。吏習之駭然，誠極可惡，而崔公奔走風浪，終宵不寐，可謂勤於王事，爲人謀忠者也。

十四日己未，晴。卯時，風勢極順，自長林浦發船，午時，回泊釜山浦，一行家屬，聚會船頭，父子兄弟，握手相歡，而或有脈脈相視無語者，可知此行之異於陸地，而追念再昨及昨日辛苦之狀，不覺毛骨之悚然也。三吹放炮後，叔父備軍儀下陸，仍向下處白是偉家，而余以卜物之運，入坐於開雲鎮待變廳，日暮乃回。

洛中諸友及釜山諸親舊，俱會，而得見去三月二十六日所發家書，閣況安穩，可幸可幸。余於數年之間，陪從父兄之後，北遊燕臺之下，南涉蓬島之上，南北數千里，江山民物，歷歷如在指點中，亦可謂壯也。

略聞彼國風俗，凡婚娶時納幣之物，有文武焉，武用甲冑·寶劍·銃鎗·弓箭之屬，文用彩錦



文房之類，朝送夕娶，而與其親戚隣里，偕至親家，新郎與新人，坐行九酌之禮，如渠國之常時酒禮，而無奠雁之節，飲罷，主客同會一處，痛飲盡醉，與其新人，卽還其家，仍爲夫婦，而男年廿餘女年十五六而後，始爲婚娶云。

彼人之死，卽爲跪坐，梳頭被衣，如生人之狀，而冬用暖衣，夏用單衣，佩其常時所佩之劍，坐於櫃內，不擇日不擇地，而葬於僧寺之傍，而木櫃之外，又用石匣，蓋以石板，上立石碑，而勿論有職無職，稍有家資，則用倭紅實櫃，此則僭禮。

爲其子女者，掛孝於初終之日，而翌日脫白穿黑，擇日供佛，而衣其亡人之衣，就寺禮佛後，盡脫施僧。或有不葬劍而帶去給僧，復以重價贖還者，是則愛惜厥劍，欲爲遺後之計也。限五十日喫齋不剃，過五十日則剃頭燕樂，與常人少無異同，賤而有執事者，不待五十日云。

凡人有小過，佯若不知，不爲舉論，所犯稍重，則封鎖其門，使不得出入，限滿放釋，又重則竄逐，或刪削其名，最重則斬之，而或令自殺。

庶人有罪，則使其隣坊，封標其門，稍重則沒入爲奴，最重則殺之。盜賊則脫衣綁立，雙槍亂刺，以至殞命，而無鞭扑拷掠之刑。取服時，緊縛四肢，撐開其口，用竹筩灌入灰水清醬，胸腹澎脹，踏壓夾板，則灰醬湧出七竅，而莫不承款云，酷之甚矣。

奉行之稱，奉承行令之意，凡六人。老死或退休，則以其長子承襲，長子不肖，則擇其諸子之賢者，以代其位，如倉氏·庫氏，而若衆子俱不肖，則移授他人者，渠國流來之規，而若有過失，則雖親而有功者，割恩廢削，少不饒貸，故人人自愛，竭誠奉公云。

禁徒者，禁其不公不法之謂，而有等級焉，都都禁徒，都禁徒·中禁徒·小禁徒也。亦爲承襲，而中禁徒若有大功，則升於都禁徒，小禁徒，有功，則升於中禁徒，卽不次之用。

而又有大目付·別目付之稱，別目付與都禁徒同而稍高，大目付，渠中之有風力名望者，位在都都禁徒之右，每當有事，率諸禁徒而分把舉行，又有組頭之稱，以大目付或都都禁徒升差，而居奉行之下云。

凡使民之法，務從簡便，不爲侵漁。或有工作，則給價雇立，而或計日之役，減其身役之銀，邑村樂業，無怨恨之聲云。

第有可駭者，生長絕島，養其狼狽之性，事不若意，則輕死如毛，少有好事，則喜不自勝，手舞足蹈，不可責之以義理者。

且人有數其父則恬然而不知感，愛其子則欣喜而謝不已，買賣交易，舍死爭較，利析秋毫，其慈子嗜利，無異禽獸者也。

勿論貴賤，舉皆佩劍，渠國之法也。有執事者，則必佩雙劍，而小兒之年纔數歲，而佩劍哺乳者，多有之，可笑可笑也。

彼人舉不着袴，只着廣袖長衣，繫以大帶，而女倭亦然，雖曰掩身，行步之際，下體綻露，而不知愧。且往來時，與奴偕行者，多有之，而厥奴捲起衣幅，露出赤腳，緊隨其後，厥女放尿，舉其衣後，爲其尿流污濕，而駭然極矣。

彼人情態，狡頡精巧，耳衣目食，窮極奢靡，而送終一節，不啻疎忽之甚也。朝死而夕埋，視若尋常者，多有之云，夷奴之風，元來如是也夫。

又有可笑者，彼人食祿者，內眷輩往來時，必乘擔轎，而轎制異於我轎，上橫一杠，用二人擔之，而渠國之法，凡厮役之徒，每當服事，勿論寒暑，捲衣露臂，以快行步，故擔轎者亦然。余問：“擔轎急走，不無厥物之露出也。”曰：“俺國之法，男女舉不着袴，故用布帛裹之，而擔物行走，勢必露出，厥物若露，坐轎者，言于厥漢，使之遮掩云。”聞甚可駭也。

店肆懸號，轆轤汲水，搥杖擔物，烹茶待客，如清人之法，舂者不用杵，用長柄大椎，是則前所未觀者也。

今番之行，別作節目，凡係邦禁之物，雖至微且細，一切痛禁，申之以斷不撓貸之意，一行如水，快雪前人之恥，而倭人輩，十分敬禮，所謂威生於廉者，果不誣也。

甲寅正月初十日，乘船待風，十二日到佐須奈浦，十五日到西泊浦，十六日到瀨戶內，十八日到馬島府中，三月二十四日乘船待風，四月初一日到豐浦，初三日還到佐須奈浦，十二日

漂泊加德鎮，十三日浮留長林浦前洋，十四日回泊釜山浦，首尾共九十三日，水路合七百六十里。

十五日庚申，晴。朝食後，陪從上府，入謁於萊伯鄭爺，慇懃饋酒，且喜一行之無事，利涉眷眷爲教，感謝感謝。移時酬酢而退。狀啓便及步行之去，付送家書。

十六日辛酉，晴。多僉高台道成來訪於下處，移時閑話而去。

十七日壬戌，晴。午後，入謁府伯。

十八日癸亥，朝晴暮雨。

十九日甲子，晴。昏後入謁府伯。

二十日乙丑，朝晴。未時，大雨雹。

二十一日丙寅，晴。叔父訓導時，所騎坐馬，忽生眼骨，終不得活，心甚慘然耳。

二十二日丁卯，晴。食後，下釜山。昏後上來。

二十三日戊辰，晴。行期在邇，五六妓女携琴而來，達夜團闌而去，其情可嘉也耳。

二十四日己巳，晴。

二十五日庚午，雨。

二十六日辛未，朝陰暮雨。入辭府伯及諸親舊。午時，與上下人員同時發程。至十樹亭，大雨如注，冒雨而行，梁山郡止宿。是日行五十里。

二十七日壬申，晴。自梁山郡發行，至黃山，棧道乘船，至內浦。中火後，仍爲坐船，過鵲院下陸，密陽府止宿。是日行一百里。

二十八日癸酉，朝陰暮雨。自密陽府發行，楡川驛中火，清道郡止宿。是日，行七十里。

二十九日甲戌，朝霧暮晴。自清道郡發行，梧桐院中火，大丘官止宿。是日，行七十里。

晦日乙亥，晴。自大丘官離發，犢鳴院中火，長川站止宿。是日，行八十里。

## 五月小

初一日丙子，晴。自長川發行，如此川中火，佛峴站止宿。是日，行八十里。

初二日丁丑，晴。自佛峴離發，德通站中火，新院站止宿。是日，行一百里。

初三日戊寅，晴。自新院離發，到草谷站中火，而馬疲，不得逾嶺，仍爲留宿。是日，行五十里。

初四日己卯，雨。自草谷離發，冒雨而行，安富站中火，達川站止宿。是日，行八十里。

初五日庚辰，自達川離發，雨不克行，到崇善站止宿。是日，行五十里。

初六日辛巳，乍雨乍晴。自崇善站離發，回院站中火，眞村站止宿。是日，行八十里。

初七日壬午，晴。自眞村離發，直谷站中火，板橋站止宿。是日行一百一十里。

初八日癸未，晴。自板橋離發，至江頭，舍弟子翊率長兒及奴僕來迎，與之偕行。到家拜廟後，父子兄弟團聚一處，握手相歡，欣喜可掬矣。

## 「海行錄識」

昔司馬氏文章在於山川，余故未嘗出戶序，而隨手徧閱，華夷疆幅之險坦，可按以盡，其不偉哉！然惟島服山川之未能覲，以爲恨也。

夫載於輿圖者，既無所不識悉，而文不足以述焉。得海行一書，而其民俗道里之庶幾微焉，則金子之文章，可謂不在於記述，在於島服之山川。金子之文章，可以當司馬之一支，遂於是作對馬島奇覲也，非金子之文，惡能光中華之正？

歲丙寅閏春，樗里病夫。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金弘祖, 『海行記』, 日本 東洋文庫 소장본.  
 金指南, 『東槎日錄』, 『海行摠載』 6冊.  
 金指南 金慶門 共編, 『通文館志』,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  
 金顯門, 『東槎錄』, 日本 京都大學 圖書館 소장본.  
 金顯門 著, 백옥경 역, 『東槎錄』, 혜안, 2007.  
 『국역 通文館志』,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신편 국역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2007.  
 『국역 邊例集要』, 민족문화추진회, 2000.  
 김양수 외, 『朝鮮後期 外交의 주인공들』, 백산자료원, 2008.  
 김양수, 『朝鮮後期 中人 집안의 發展-金指南, 金慶門 등 牛峰 金氏 事例』, 백산자료원, 2008.  
 김충영, 『일본 전통극의 이해』,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김학현, 『狂言』, 열화당, 1991.  
 ———, 『能』, 열화당, 1991.  
 이지선, 『일본전통 공연예술』, 제이앤씨, 2007.  
 김두현, 「조선후기 通信使行 및 問慰行 參與 譯官의 家系와 婚姻」,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김문경, 「연행사와 통신사가 본 중국과 일본의 연극」, 정광 외편, 『연행사와 통신사』, 박문사, 2014.  
 백옥경, 「譯官 金指南의 日本 體驗과 日本 認識-東槎日錄을 中心으로」, 『한국문학연구』1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유채연, 「조선후기 問慰行 명칭과 성립과정에 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52, 한일관계사학회, 2015.  
 윤유숙, 「조선후기 問慰行에 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50, 한일관계사학회, 2015.  
 이상규, 「仁祖代 前半 問慰行 研究」, 『한일관계사연구』 30, 한일관계사학회, 2010.  
 이성후, 「金指南의 東槎日錄 研究」, 『논문집』 3, 금오공과대학, 1982.  
 하우봉,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1.  
 한문중, 「조선시대 對日使行과 對馬島」,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한태문, 「통신사왕래를 통한 한일 演戲 교류」, 『지역과 역사』 23, 부경역사연구소, 2008.

## 2. 웹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sjw.history.go.kr/](http://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BZ-2101>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